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한국투자증권
함께 가는 금융 친구
I'M YOU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7년 1월 13일 금요일 제1566호

1조 규모 CCS사업 올스톱 온실가스 저감 계획 차질

정부 부처간 갈등으로 사업 난항 "경제성 없는데 정부 강행" 지적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사업이 부처 간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1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갈등을 조율하고 나섰으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신청한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사업의 예타가 중단됐다.

CCS사업은 대규모 해양저장소를 확보하고 화력발전소 등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주입할 수 있는 인프라 설계 및 건설, 실제 주입 및 모니터링 3단계로 기획됐다.

그러나 예타 도중 민간 전문가들이 이 사업에 빠진 이산화탄소 포집 과정에 대해 산업부에 의견 조회를 했고 산업부에서 "우리와 의견을 교환하거나 협조를 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예타가 중단됐다. 정부 관계자는 "CCS사업은 해수부와 산업부, 환경부가 관여돼 있는데 해수부가 독자적으로 예타에 나서면서 산업부가 해수부 사업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갈등 조율에 나섰지만 부처 간 시각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CCS사업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포함돼 2030년까지 감축 목표가 할당됐다는 점이다.

애초에 CCS사업이 경제성이 없는데 정부가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창섭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는 "탄소를 포집하는 것도 경제성이 떨어지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어디에 묻는 것도 난제"라며 "CCS에 회의적인 학자들이 많고 1000만 톤을 감축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곽도흔·박엘리 기자 sogood@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단위: 백만톤)

국내 감축	219
전환	64.5
산업	56.4
건물	35.8
에너지 신산업	28.2(CCS 10 포함)
수송	25.9
공공기타	3.6
폐기물	3.6
농축산	1
국외 감축	96
합계	315

칼자루는 쥐었지만…고심하는 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22시간 마라톤 조사…곧바로 서초사옥 출근
특검 "조사결과 검토 영장 청구여부 결정" 대외신인도 영향 우려



최순실 뇌물공여 혐의로 밤샘 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을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최순실(61) 씨 일가에 대가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22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곧바로 서초 사옥으로 출근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전날 오전부터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특검 사무실을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청문회에서 위증한 게 아닌지', '아직도 삼성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서둘러 떠났다.

이 부회장은 출근 직후 주요 팀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특검 수사에 대비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긴 결과물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이 공갈·강요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별검사보 지휘하에 한동훈 부장검사, 김영철 검사가 맡았다.

이 부회장이 조사를 받는 동안 박상진(64) 대외협력담당 사장도 13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박 사장은 독일로 건너가 최 씨 일가에 대한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뇌물, 횡령, 배임 등의 혐의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 최 씨 모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정상적 절차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면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총수 일가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려 최 씨 측에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면 횡령, 최 씨 측을 지원할 목적으로 회사로부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배임이 된다.

그러나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특검 이미지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글로벌 기업으로서 삼성의 대외신인도에 미칠 영향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입건 여부도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현충원 참배…대권행보 시동 건 반기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부인 유순택 여사가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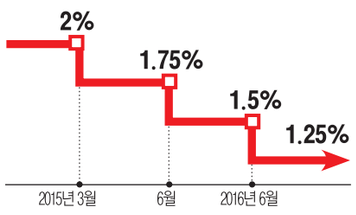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새해 첫 금리 한은 또 동결

7개월 연속 연 1.25%로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동결했다.

한은은 13일 오전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7명의 금통위원이 참석한 1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다음 회의 전까지 국내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통위는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끌어내린 데 이어 7개월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나라 안팎의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반영됐다. 오는 20일 트럼프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미 연방준비위원회(Fed)의 금리 결정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대내적으로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올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새 정부의 입맛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시한부 정책'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트럼프 랠리'에 스스로 찬물 끼얹은 트럼프

기자회견 실망감에 나스닥 뚝
4거래일 연속 '신고가 행진' 멈춰
달러화 가치도 어제 0.5% 하락
美 국채·금 가격은 올라 대조적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정책으로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이른바 '트럼프 랠리'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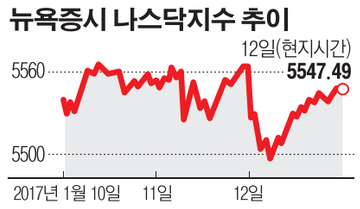
트럼프의 기자회견에 대한 실망감에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미국 달러화 강세도 꺾였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날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32%, S&P500지수는 0.21%, 나스닥지수는 0.29% 각각 하락했다. 특히 나스닥지수는 전날까지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이날 신기록 행진이 멈췄다. 나스닥지수가 하락한 것은 새해 들어 처음이다. 주요 10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블룸버그 달러 스팟 인덱스도 이날 0.5% 하락했다.

트럼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의 관계에 치중하고 취재진과 충돌을 빚으며 트럼프 랠리의 핵심인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 재정확대 정책의 집행 시기와 범위 등 세부사항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중개업체 마렉스스펙트런의 데이비드 고벳 귀금속부문 대표는 "시장이 트럼프가 경제에 대해 얘기하고 모든 종류의 재정적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했다면, 슬프게도 이는 착각한 것"이라며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시장에 감미롭고 가벼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좀 더 트럼프를 열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는 동안 부진했던 미국 국채와 금 가격은 이날 일제히 올라 대조를 보였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2bp(bp=0.01%포인트) 하락한 2.36%를 기록했으며 장초반엔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최저치를 찍기도 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금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지난해 11월 말 이후 처음으로 온스당 1200달러 선을 넘기기도 했다. 미국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는 새해 들어 금값이 약 4% 올랐으며, 이는 트럼프 랠리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뉴욕증시 나스닥지수 추이



블룸버그 달러 스팟 인덱스 추이



이슈 & 인물 ▶17
조붕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장



1997년 설립된 코막중공업. 10년 만에 50개국 이상의 거래처를 둔 강소 수출기업으로 부상했지만 2008년 키코사태로 2012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1년 후, 법정관리에서 졸업했다. 이 놀라운 과정엔 조붕구 대표가 있다. 조 대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하자마자 회생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를 만들었다. 조 협회장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무조정만 하는 현 회생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위기에 처한 기업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서 "유한기술 투자와 금융 등으로 100개의 회사를 살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박진수 부회장 ▶9



최성준 위원장 ▶14



비즈 엔터 ▶19
'두시탈출 컬투 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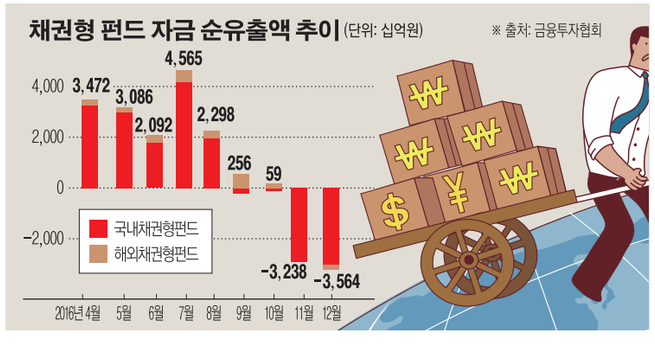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etoday.co.kr 온라인뉴스는 계속

데이터 뉴스 DataNews



美 금리인상 우려에… 채권형펀드 '자금 엑소더스'

미국 금리인상 우려로 지난해 11월 순유출로 전환한 채권형 펀드의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채권형 펀드에서 총 2263억 원이 순유출됐다. 국내 채권형 펀드와 해외 채권형 펀드에서 각각 2004억 원, 259억 원이 빠져나갔다.

채권형 펀드는 지난해 상반기 국내외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같은 해 9월 미국 금리인상 우려가 부각하면서 자금 이탈이 시작됐다. 2015년 12월 말 8조6000억 원이던 순자산은 지난해 9월 말 112조 원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외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채권형 펀드에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3조2300억 원, 3조5600억 원의 뭉칫돈이 이탈했다.

대표적 채권상품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8월 말 연 1.308%에서 전날 연 1.624%로 4개월여 만에 31.6bp(1bp=0.01%포인트) 상승(채권값 하락)했다. 국내 채권형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도 -0.47%를 기록 중이다.

김지영 기자 gutjy@

방송사 여직원 10년간 45% 증가… 3명 중 1명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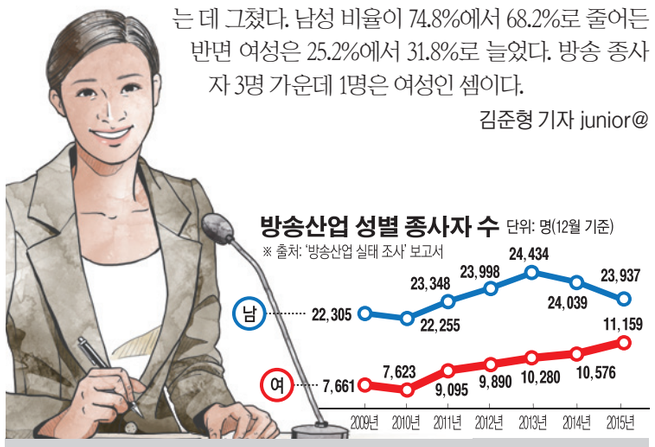
지상파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 등 방송산업에 종사하는 여직원 수가 10년 사이 45% 늘어나면서 전체 직원 3명 중 1명을 차지했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방송산업 종사자 수는 모두 3만50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05년(3만530명)보다 15.0% 늘어난 수치다.

지상파는 같은 기간 1만4024명에서 1만4378명으로 2.5% 늘어난 반면, PP분야는 2005년 8533명에서 2015년에는 1만5170명으로 77.8%나 증가했다. 종사자 수도 지상파 규모를 넘어섰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2005년 7685명에서 2015년 1만1159명으로 45.2% 늘 었 다. 남성은 2만2845명에서 2만3937명으로 4.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남성 비율이 74.8%에서 68.2%로 줄어든 반면 여성은 25.2%에서 31.8%로 늘었다. 방송 종사자 3명 가운데 1명은 여성인 셈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꼬리 내린 '지정감사제'… '반쪽개혁' 논란

금융위 회계제도 개혁안

분식우려 기업만 감사교체 의무
'전면 전환'→'선택적 감사' 선회
확대우려 사라진 상장사 '화색'

기존 자유선임제 틀 유지한 꼴
개혁 타깃 된 회계업계는 '실색'
야당 개정안 '국회통과' 기대만

중공업·건설 등 수주산업의 지정감사제가 확대된다. 지정감사는 기업이 금융당국에서 정해주는 회계법인과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제도다. 상장사들이 낮은 가격에 감사를 지정하는 '회계쇼핑'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회계제도 개혁안은 지정감사로의 전면적 전환이라기보다는 '선택적 감사제'로 평가된다. 지정감사는, 예를 들어 A라는 회계법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기존 회계법인을 제외하고 기업이 골라온 B, C, D 중 한 곳을 금융당국이 지정해 주게 된다. 금융당국으로서는 매번 회계법인 한 곳을 직접 고르는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대상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지배구조나 재무특성상 분식회계에 취약점이 있는 곳 △회계투명성 유의가 필요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경우다. 수주산업을 비롯해 채권단이 대주주인 기업 등이 주요 대상인 셈이다.

지정감사제가 대폭 확대될 것을 우려한 기업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기업 관계자는 "금융위가 제시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기업들이 더욱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회계법인들은 이번 금융위의 회계제도 개혁안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유감사와 지정감사를 섞은 혼합감사제 실행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표준감사 시간도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제도를 가장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

회계 투명성 제고방안

감사인 독립성 제고
– 분식 발생이 용이한 회사 자유수임 제한

이해상충 방지
– 회계감사 대상회사에 비감사용역 제공 금지대상 국제 기준으로 확대

회계부정 제재 강화
– 10년 이하 징역 등 제재 수준 상향

금융위는 표준감사 시간의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자율 규제하기로 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선택 감사제를 일부 확대하는 정도로는 회계업계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감사보수 하락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익의 대부분이 컨설팅, 자문보다는 감사에 치중된 중소 회계법인의 경우 경영 악화가 지속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회계업계는 금융위가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할 회계제도 개혁안에도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중소 회계법인 대표는 "정부는 회계제도를 개선하기보다는 회계업계를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계제도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매수 목적의 인수합병(M&A) 실사, 가치평가, 자금조달과 투자 관련 알선 중개업무를 금지했다. 또 금융당국이 품질관리 기준을 정해 회계법인을 점검한 뒤 등급을 부여한다. 상장회사 감사 자격을 일정 등급 이상으로 제한하려는 방안이다.

이 때문에 회계업계는 금융위에 기대기보다는 의원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상장·금융사가 6년 동안 자유롭게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되 이후 3년은 반드시 금융당국이 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8개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금융위가 담지 않은 사안들은 올해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최재혁·황윤주 기자 freshphase@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돈' 쥔 中기업 vs '패' 쥔 박삼구… 금호타이어 누구 품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이르면 오늘 결정
본입찰에 SAIC·더블스타 등 참여
박회장 보유한 우선매수청구권 변수
농협銀 자금 조달 '백기사' 가능성도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본입찰에 참여한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SAIC)와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 중 한 곳이 될 것이 유력하다. 이들은 본입찰에서 금호타이어 인수 가격으로 1조 원가량을 적어 냈다. 이밖에 중국 화학업체 '지프로'가 본입찰에 참여했지만 제시한 인수가격은 1조 원에 미치지 못한다.

채권단 운영위원회(산업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격 요소와 비가격 요소를 고려한다. 비가격 요소는 인수 후 사업 전략, 고용 승계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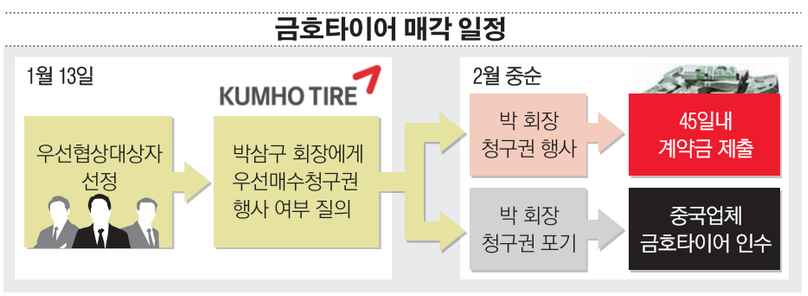
이 부분을 고려할 때도 SAIC는 다른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회사의 모그룹인 '항톈(航天)과학기술그룹'(CASC)은 자회사인 '에스닥'(SDDAC)를 통해 국내 중견 자동차 부품사인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과 공조부문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 투자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본입찰에 참여한 인수 후보 모두가 금호타이어 성장 전략을 갖고 있다"며 "이들은 채권단이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중국 업체들이 가장 견제하는 것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바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묻는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중국 업체들이 그간 들인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12일 박 회장은 "세상에 쉬운 일은 없지만 (금호타이어 인수를)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 한다"며 "세상엔 다 길이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앞서 신년사를 통해서도 "올해는 금호타이어 인수를 통해 그룹 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다"며 강한 인수 의지를 드러냈다.

금호타이어 매각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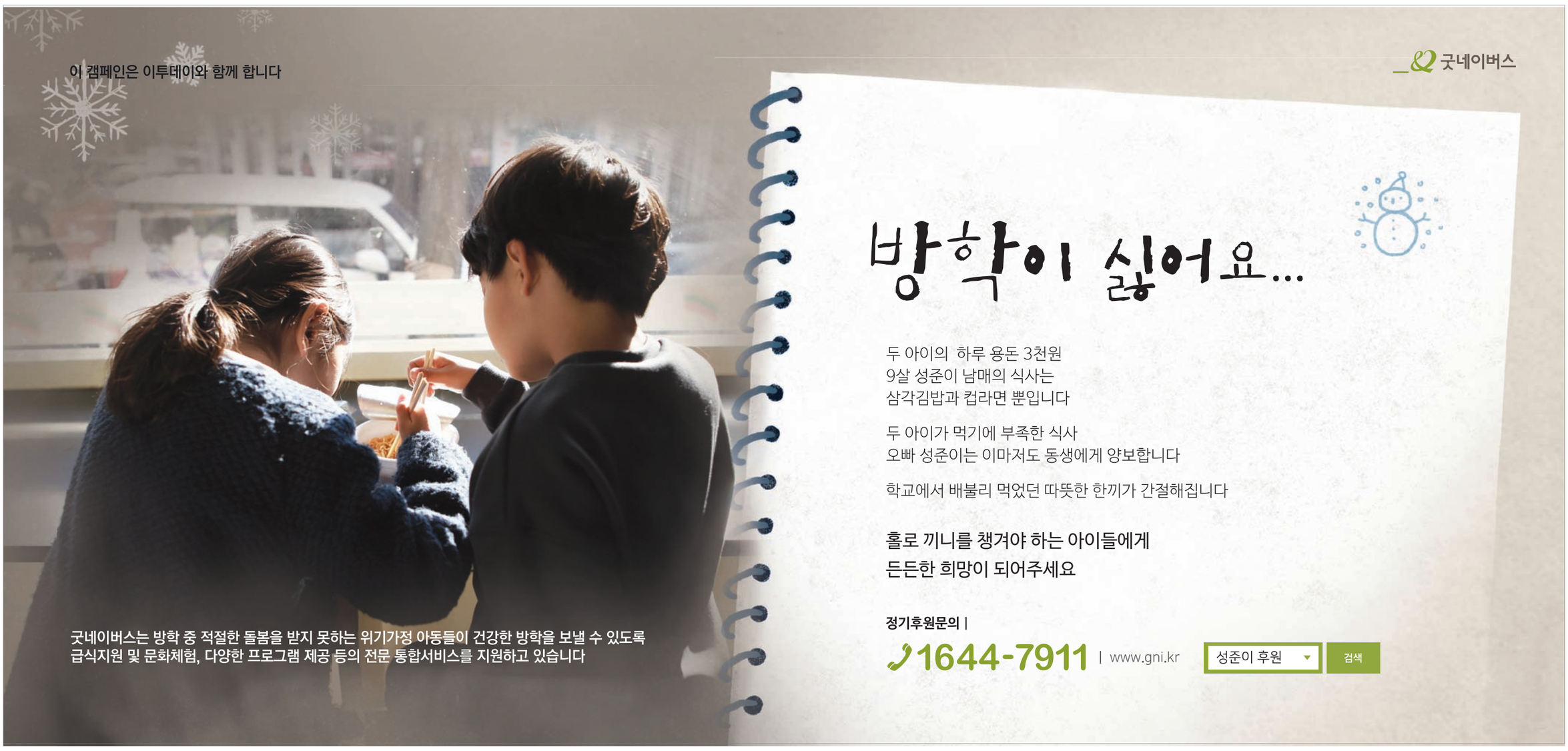
박 회장은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자금 조달 계획이 불확실한 것은 변수다. 채권단 일부는 박 회장이 그동안 언론에 금호타이어 인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을 두고 주식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분 가치를 최대한 낮춰 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박 회장에게 자금을 댈 곳으로 NH농협은행이 꼽힌다. 지난해 박 회장의 금호 계열사 인수합병(M&A)에 자금을 조달했던 NH투자증권은 이번 금호타이어 거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밖에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재계 인맥들이 백기사로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우건설·대한통운 인수로 승자의 저주를 겪은 금호그룹이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이 자금을 무리하게 동원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 의지는 확고하다"며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매각 과정을 지켜보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혁·김미정 기자 freshphase@



‘기승전뇌’ 프레임에 갇힐라… 소환대기 SK·롯데 ‘가시방석’

〈뇌물죄〉

특검 기업총수 소환조사 다음 주자는…

SK ‘총수 사면·면세점’ 놓고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뒷거래 의혹
롯데도 ‘대통령 독대 후 면세점 추가 발표’ 특혜 있었나 추궁 예상
특검, 기업인 대거 출금 “구체적 정황 포착” 흘리며 압박강도 높여

삼성그룹의 심장부를 소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날이 이제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을 향해 정조준된다. 앞서 특검팀은 최태원 SK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직원 10여 명을 출국을 금지시킨 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수사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다.

재계는 특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2시간 마라톤 조사 끝에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 방안을 거론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기존의 국회 위증과 뇌물죄 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까지 추궁 받았다.

특검팀은 SK와 롯데그룹 등 여타 대기업들도 삼성처럼 총수 사면이나, 민원 해결에 대한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측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첩보 수집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대가로 현안 해결을 부탁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박 대통령과 ‘사면 거래’ 의혹 수면 위… 대가성 주목 = 삼성 다음으로 속이 타는 곳은 SK그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SK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명에 진땀을 빼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과 단독 면담에서 최 회장의 사면 문제를 논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20여 일 만에 최 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받아 출소했다. SK그룹은 같은 해 11월 미르재단에 68억 원을 출연했고 이듬해 2~4월에는 K스포츠재단에 43억 원을 냈다. 이에 SK그룹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채용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면세점 사업 인허가 특혜를 받았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2월 박 대통령이 최 회장과 단독 면담 직후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추가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갱신 심사 탈락으로 타격을 입은 SK에 다시 기회를 주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라고 뒷거래를 한 게 아닌지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신동빈-박 대통령 독대 후 시내면세점 추가 발표 = 면세점 사업 인가 특혜 의혹을 받고 롯데그룹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롯데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45억 원을 출연했다. 당시 롯데그룹은 면세점 인허가라는 중요 현안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5월 말에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 70억 원을 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날 전액을 돌려받기도 했다.

특검팀의 시선 전환에 따라 ‘원롯데’ 구축의 원년이 될 올해 신동빈 회장의 행보에 걸림돌이 될지도 이목이 쏠린다. 당장 인사와 조직개편, 사업계획 등의 경영 활동이 올스톱됐다. 당초 롯데그룹은 늦춰졌던 사장단 인사를 이달 중 단행할 생각이었으나, 또다시 연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 그룹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검의 불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자 선정으로 튀는 것 역시 부담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취소 및 선정 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SK와 롯데그룹에 현안 해결을 대가로 최 씨 개인기업에 출연금을 요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들 기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철우 기자 acw@



뜬눈으로 밤샌 삼성 추후 특검조치 대책 마련 고심



최순실 일가 특혜 지원의 실무를 담당했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특검 조사를 마치고 1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부회장 1박2일 고강도 조사
대부분 임원 서초사옥 등 비상대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바짝 긴장
리더십 공백땐 그룹업무 차질 우려
“끼워 맞추기식 수사” 불만 표출도

22시간 30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꼬박 하루를 특검 수사 받는 동안, 삼성 미래전략실 임직원 역시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 예상보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임원 대부분은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초조한 시간을 보냈고, 일부 직원은 서초동 삼성 사옥에서 줄곧 대기했다.

이 부회장이 13일 오전 7시 50분께 귀가하면서 꼬박 하루의 수사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삼성은 초긴장 상태다.

구속이 현실화되면 삼성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오너 리더십 공백으로 삼성이 진행 중인 사업 재편이나 인수·합병(M&A), 지주사 전환 등 굵직한 현안이 모두 중단되는 파국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까지 영장이 청구될 전망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구속수사를 받을 경우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침통한 분위기다. 삼성전자의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결정권자가 당분간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룹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유고 사태가 오면 모든 업무에 크고 작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리스크가 있는 투자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특검이 이미 시나리오를 그려 놓고, 그에 맞춰 수사하는 방식이다. 삼성 한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최종 확정된 건 7월 17일이고 대통령이 ‘승마 지원을 안 한다’고 화를 낸 건 7월 25일”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를 뒤집어 삼성이 돈을 주고 합병에 도움을 받았다고 끼워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 삼성이 이권을 노렸다면, 승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대통령이 화를 내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논리다.

특히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당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이를 무산시키려고 할 때 합병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없다는 여론의 흐름에 따라 합병이 이뤄졌는데, 이제 와서 경위를 문제 삼는 건 억울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삼성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특검 수사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반기문 대권 행보 내주 지지율이 분수령

국립현충원 참배·주민등록 신고
동생·조카 뇌물혐의 기소 영향
文과 지지율 격차 7.6%P 벌어져
"朴대통령에게는 기회 봐서 인사"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10년간의 UN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귀국 후 첫 공식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본격적인 대권행보를 시작했다. 반 전 총장은 13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호국영령을 참배한 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이곳에 안장된 역대 모든 대통령과 파병 용사의 묘역을 잇달아 찾았다.

참배를 마친 반 전 총장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사당3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울시민'으로서 주민등록 신고도 직접 마쳤다. 전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뒤 서울역으로 향할 때에도 열차표를 손수 끊었던 그다. 권력층으로서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민심에 다가서려는 의도로 보인다. 오후에는 KB국민은행 도화동 지점을 방문해 계좌를 계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반 전 총장의 이런 행보가 대중에 어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압도적인 차이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1위를 지키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선두를 빼앗겼다.

특히 귀국 직전 동생 반기상 씨 부자가 미국에서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9~11일 전국 유권자 1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1월 2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은 20.3%에 불과했다. 27.9%를 기록한 문 전 대표에 7.6%포인트나 뒤처진 결과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다만 조사 결과에는 반 전 총장의 귀국 효과,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이라는 대국민 메시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반 전 총장의 행보와 맞물린 여론의 평가가 대권주자로서 반기문의 가능성을 내다보는 첫 번째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한 여론조사 전문업체 대표는 "반 전 총장이 무소속 신분이어서 정당변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다음 주말까지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따라잡지 못하면 이대로 지지율이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반 전 총장은 이날 자택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 드릴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회를 봐서 한 번 인사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시고, 새해 때 제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 하여튼 전화를 한 번 드리는 게 마땅치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중 기자 zerg@

국민의당 '박지원 체제' 유력

15일 전당대회서 지도부 선출
'대선드림팀' 공약 성사 관심
'호남당' 전락 우려 목소리도 여전



국민의당이 15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을 이끌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대세론을 이어온 박지원〈사진〉 전 원내대표의 낙승이 점쳐지면서 관심은 '박지원 체제'가 공약대로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 등을 영입해 '대선드림팀'을 꾸릴 수 있을지 여부로 쏠리고 있다.

국민의당 핵심관계자는 13일 기자와 만나 "경선이 밋밋할 줄로만 알았지만 자강론과 연대론이 맞붙으면서 꿈틀꿈틀하고 있다"며 "대이변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원내대표의 연대론에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가까운 김영환, 문병호 전 의원이 자강론으로 각각 맞서면서 대표 경선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박 전 원내대표의 대세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이번 전대는 김, 문 전 의원과 황주홍 의원, 손금주 의원의 최고위원 순위 다툼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관심은 벌써부터 '박지원체제'가 들어선 이후의 국민의당 대선 대응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그간 대표가 되면 손 전 고문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영입해 당내 대권주자인 안 전 대표, 천정배 전 대표와 더불어 '대선드림팀'을 꾸리고, 경선을 통해 대선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해왔다. 또한 그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서도 "우리 당에 들어와 경선을 하면 좋겠다"고 수차례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안 전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가 전날 자강론에 우선 방점을 두고 이후 외부 인사들과의 연대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박지원체제' 역시 출범과 동시에 당장 인재영입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정치권의 관심이 귀국하자마자 대권 행보에 돌입한 반 전 총장에 온통 쏠려 있는 데다 박 전 원내대표 당선 시 '호남당' 이미지가 강화될 것이 뻔해, 박지원호가 닻을 올린다 해도 당의 미래 전망이 밝지만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김미영 기자 bomnal@

유승민 '반기문은 보수' … 남경필 '안보·자주국방'… 오세훈 '국내 상황 고민 부족'

'50대 新보수' 잠룡들, 潘과 선 그으며 '몸값 높이기'


유승민 남경필 오세훈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귀국으로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특히 유승민·남경필·오세훈 등 바른정당에 둥지를 튼 50대 보수 잠룡들은 반기문이라는 '범여권' 후보의 등장을 환영하면서도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다. 혁신과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자신들이야말로 신보수의 대표 주자임을 자임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오는 25일 바른정당 대선 경선 공식 출마를 선언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 "대선에 출마하시겠다면 보수인지, 진보인지 비전과 정책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정체성을 거론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기 전부터 여권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꼽혀온 데다, 평소 개혁 정책의 청사진을 그려온 만큼 차기 범여권 주자로서 반 전 총장과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한편으로 정치권에서 유 의원은 반 전 총장과 함께 50대 보수 잠룡 중 '제3지대 빅텐트'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선주자로 꼽히기도 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유 의원보다는 반 전 총장에 대해 더 포용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오 전 시장은 "국제사회에서 신망받는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10년간 하시고 귀국하신 만큼 그 경륜이 녹아든 비전을 기대한다"면서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고민이 부족하실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다.

유 의원과 같은 날인 이달 25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켜보겠다. 멋지게 경쟁하자"며 선의의 경쟁을 제안했다. 하지만 "외교관 스타일과 달리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한다"며 견제의 목소리도 냈다.

이달 25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켜보겠다. 멋지게 경쟁하자"며 선의의 경쟁을 언급했다.

여권의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은 외교관·언론인 중심으로 대선 캠프를 꾸린 반 전 총장에 맞서 정책 위주의 어젠다 제시와 전문가 그룹의 참모로 경쟁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유 의원이 새누리당에 몸담았던 시절 두 차례의 대선을 치른 경험이 있는 만큼, 정책 개발이나 전략 기획 측면에서 풍부한 네트워크를 갖춘 상태로 알려졌다.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오 전 시장은 교수·전문가 그룹의 조언을 구하는 중이다. 남 지사는 최근 차기 대권 지지세력을 모으기 위한 조직인 KR포럼을 만들고 강연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사실상 금융사' 상조회사도 금감원 검사

오늘의 법안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상조회사의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정하고,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에 대한 업무 감독은 공정거래위원장 소관으로 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 촉진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는 만큼, 재무 건전성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전문적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5명의 공정위 할부거래 담당 직원이 200여 개가 넘는 상조회사의 공제조합 업무를 감독 중이다.

특히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190개 상조업체 중 111개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들 111개 업체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 7425억 원(전체의 76%)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조회사 부도를 대비해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운영되는 공제조합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안전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제 의원은 "지금처럼 상조회사에 대한 규제 공백을 방치하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엔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세금 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면서 "상조회사의 거래 행태에 관한 규제는 공정위 소관으로 남겨두더라도 금감원의 전문 인력을 통해 검사하게 하는 것이 감독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중 기자 zerg@



담배회사 7900억 폭리… 손놓은 기재부

감사원 '담뱃세 인상 재고차익 관리' 감사
KT&G 지위남용 3300억 부당이익 적발
매점매석 고시부실 공무원 2명 징계 요구

기획재정부의 부실관리로 담배회사들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 후 기존에 쌓아둔 재고품을 가격 조정 없이 팔아 79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 기재부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 차익에 대한 국고 환수 규정을 만들지 않아 담뱃세 인상 차익이 고스란히 담배회사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 차익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T&G는 담배가격 인상 전인 2014년에 반출된 담배 2억여 갑을 인상 후인 2015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판매해 3300억여 원의 폭리를 챙겼다.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도 미리 담배 재고를 쌓아뒀다가 2015년 1월 담뱃세가 오르자 인상된 가격으로 팔아 각각 1739억 원, 39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탈루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재고 차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인상차액 7938억여 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확보되지 못했다. 기재부는 또 매점매석 고시 시행 계획을 사전에 공개해 고시 시행 직전 하루 이틀 동안 평소보다 5.7~22.9배 많은 담배를 집중적으로 시장에 푼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리라고 기재부에 통보했다. 또 KT&G의 담배 가격 인상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현저하게 상승시킨 것으로,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며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동일 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만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미국산 검사용 샘플 달걀 도착



AI 여파로 미국산 달걀 수입을 위한 검사용 샘플이 도착한 12일 오후 인천 중구 아시아나항공 화물터미널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가 도착한 달걀을 점검하고 있다. 시애틀을 출발해 국내로 들어온 미국산 달걀은 총 173kg, 약 3000개이다. 뉴시스

AI, 언제 끝나나

신종 바이러스 발견에 철새떼는 북상 시작
진정세 보이지만 재확산 우려… 예의 주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신고가 한풀 꺾이면서 진정되는 듯했으나 신종 바이러스 검출과 철새떼 북상 등으로 방역당국과 양계농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안성시 안성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의 분변 시료에서 전국에 확산한 H5N6형과 다른 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올겨울 H5N8형이 검출된 건 두 번째로, 지난달 안성천에서 검출된 H5N8형은 2014~2015년 발생한 바이러스와 유형은 같지만 유전자 조합이 일부 달랐던 바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우리나라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아닌, 철새를 통해 새로 유입된 바이러스일 것으로 보고 있다. 농가의 AI 의심 신고가 하루 1~2건으로 진정세지만 이 같은 변수가 발생해 긴장을 늦추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실제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는 H5N6형이 검출됐고, 경기 안성의 육계 농장에서는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서해안과 남쪽에 머무는 철새들이 이달 말을 전후해 대규모 북상하는 점도 예의 주시할 부분이다.

한편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환경부, 국민안전처와 합동으로 16~20일 AI 매몰지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김경규 농림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의심 신고 건수는 줄고 있지만 바이러스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보고 방역조치 중"이라며 "재확산에 대비해 매몰지 확보 등에 집중하고 있다. 방역대가 해제된 농가라도 방역 관련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재입식을 불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창업 활성화" 역대 최대 3.5조 벤처펀드 조성

黃대행 관계장관회의, 일자리·성장동력 추진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창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인 3조5000억 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 조성 계획도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창업 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중기청 등이 마련한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장관회의에는 미래부 장관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획재정부·교육부·해양수산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창업 활성화가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핵심과제라는 인식하에 이뤄졌다. 그동안 이룬 창업 열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기술기반의 질(質) 좋은 창업과 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 촉진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최됐다.

정부는 올해 중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 3조5000억 원 조성한다. 이 밖에 벤처투자 2조3000억 원 달성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3조5000억 원에 달하는 벤처펀드는 벤처기업뿐 아니라 갓 창업한 중소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캐피털 또는 창업투자회사가 수익증권을 발행, 투자자를 모집하는 투자금 유치다. 투자자가 직접 유망 기업을 선정해 주주로 참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세를 이루면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황 권한대행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벤처펀드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술 창업 활성화(Start-up) △지속성장이 가능한 창업지원 강화(Scale-up) △국민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조성(Boom-up) 등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모두 발언을 통해 "창업 활성화는 청년, 은퇴자, 여성 등 연령과 경력,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지름길"이라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전략이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트럼프 보호무역 리스크' 속 열린 한미 FTA 공동위

재협상 요구 없었지만, 안심은 '아직'

내주 취임 앞두고 주목… 한국産 철강 수입규제 강화 우려 전달
한중일 FTA 협상은 소득없이 끝나… 오늘 베이징서 한중 공동위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에서 미국은 재협상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위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정례회의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려 관심이 모아졌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3일 "한·미 FTA 재협상 등에 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며 "새 정부 출범 후에도 큰 문제없이 지속해서 공동위가 개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철강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규제 건수는 지난해 12월 말 누적 기준 모두 23건으로 이 가운데 철강·금속 분야 규제가 18건에 달했다. 미국은 지난해에만 한국산 제품에 대한 4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은 2년 연속 '마이너스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올해도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경제적 압박을 받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반발해 한국 기업에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본은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등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중국 정부는 국내 화장품 19개에 대해 위생허가 등록서증명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수입허가를 내리지 않고 무더기 반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11차 공식 협상은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각국은 상품 협상지침(모델리티·Modality),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했지만 앞으로도 의견을 나누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무역보복 논란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13일 열리는 한·중 FTA 공동위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한 사드와의 연관성을 적절하게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한·중 FTA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1차 한·중 FTA 공동위를 개최한다.

주 장관이 공식적으로 대응 의지를 밝혔지만 '사드 보복' 문제가 한·중 FTA 공동위에서 논의되긴 힘들 전망이다. 공동위에서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려면 양국이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 중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한 탓이다. 따라서 공동위에서는 우리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묻고 비관세장벽 강화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박엘리 기자 ellee@



헌재 명령 귓등으로 듣는 청와대 행정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회 변론기일인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이영선,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최순실 청와대 관저 출입 "기밀"
헌재 "증언의무 있다" 질타
"대통령 지시로 옷값 갖다줬다"
檢 진술과 배치…위증 논란도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근혜 대통령 측 측근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명령을 귓등으로 듣는 등 '일방적인 대통령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2일 오전 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이영선(39) 청와대 경호실 행정관은 증인으로 나서 최순실(61) 씨의 청와대 출입여부 등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관들이 수차례 '그것은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서 증언해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소추위원과 재판관들은 이 행정관이 최 씨를 차에 태우고 청와대를 드나든 적이 있는지, 청와대 경내에서 몇 번이나 마주쳤는지 등을 물었지만 그는 '직무상 비밀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계속 답변을 피하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대통령의 지인(최순실)이 청와대 관저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증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행정관은 여전히 "출입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버텼다.

소추위원 측은 "증인이 오늘 충분히 준비한 답변을 하는 건 좋은데, 허위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에서는 의상실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던 최 씨의 대통령 옷값 대납 의혹이 불거진 이후 박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갖다줬다고 말을 바꾼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행정관은 이에 대해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날 정신이 없어 제대로 발언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5일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전추 행정관도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은 세세하게 밝힌 반면,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산 바 있다.

한편 헌재로부터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 파악을 요청받았던 경찰은 이날 '증인에 대한 소재 탐지를 했지만 현재지나 행선지를 알 수 없다'고 통보했다. 두 전직 비서관은 19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좌영길 기자 jyg97@

'13월의 보너스' 챙기세요

연말정산 서비스 15일부터 시작
부양가족 자료 온라인신청 신설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조회에
폐업 의료기관 의료비 자료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제공된다.

국세청은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 오전 9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중도 입·퇴사자와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36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17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자료를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매일 정정하지 않고, 20일에 확정·제공된다.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자료제출 의무가 없는 기부금 단체, 안경·교복·의료기기 판매점 등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2016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아야 한다. 다만,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구의역 사고 막자" 신림역 등 4곳 스크린도어 재시공

스크린도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메트로가 올해 예산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서울메트로는 확정된 올해 예산 1조 8505억 원 가운데 4043억 원을 안전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올해 106억 원을 들여 2호선 신림·성수·방배·을지로3가역의 스크린도어를 전면 재시공할 예정이다.

스크린도어 재시공 외에도 101억 원을 들여 97개 역 6742곳의 스크린도어 장애물검지 방식을 적외선에서 레이저 스캐너로 교체한다.

또 전차선로 감시용 CCTV를 늘리고, 화재 취약지역의 소방설비를 보완할 계획이다.

올해 전동차 교체와 노후 시설물 개량에도 2380억 원이 투입된다. 2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한 예산은 작년 229억 원에서 올해 10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3% 늘어났다.

우선 교체가 시급한 2호선 전동차의 경우 올해 1061억 원을 들여 신규 전동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2014년 시작된 2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은 2020년까지 2차에 걸쳐 신규 전동차 424량을 도입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선애 기자 lsa@

먹지 마세요~ 초콜릿 구두



제3회 '서울 살롱 뒤 쇼콜라'가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관람객들이 초콜릿으로 만든 작품을 구경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5일까지 열리며 초콜릿 관련 제품과 기술 전반에 대해 소개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시 "한강 지천 철새도래지 방역 강화…AI 철통 차단"

서울시는 제주도 구좌읍 야생조류 분변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과 관련, 철저한 AI 차단을 위해 한강 인근 지천의 철새 도래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말 서울대공원 황새마을에서 황새 2마리와 노랑부리저어새 1마리가 폐사한 뒤 고병원성 AI 판정을 받았다. 이후 AI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다.

조사 현장에서 발견한 야생조류 폐사체는 국립환경과학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발견 장소는 긴급방역·소독을 한다. 지금까지 발견한 야생조류 폐사체 47수를 검사 의뢰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27건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주요 철새 도래지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분변 총 1385건 가운데서도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선애 기자 lsa@

상습 임금체불 3000곳 집중감독

고용부, 근로감독계획 조기시행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액이 1조40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종전 3월부터 시작하던 근로감독을 올해는 1월부터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근로감독은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 감독 신설·강화 △원·하청 상생감독 실시 △4대 취약 분야 발굴, 기획감독 실시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감독을 신설해 이달부터 사업장 3000곳을 집중 감독한다. 이들 사업장은 최근 3년간(2013년 7월~2016년 6월) 체불임금 청산 여부를 불문하고, 반 년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번 이상인 곳이다. 박은평 기자 pepe@

영유아 비만율 7년새 2배↑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영유아의 비만율이 7년 만에 2배로 높아졌다. 또 성인 10명 중 3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발표한 '2016 비만백서'에 따르면 영유아 비만율은 2008년 1.4%에서 2015년 2.8%로 2배 높아졌다. 비만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생후 66~71개월(6.9%)이었고, 다음으로 54~60개월(5.9%), 42~48개월(5.1%), 30~36개월(3.0%) 순이었다.

영유아 비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08년에는 전남·충남이었으나, 2015년에는 강원이었다. 영유아 비만율은 특히 상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2008년에는 건강보험료 중간 분위의 영유아에 비해 1~5분위와 17~20분위 영유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만율을 보였지만, 2015년에는 1분위 영유아 비만율이 3.7%로 2008년보다 2.1%포인트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분위는 보험료를 적게 낼수록 1에 가깝고, 많이 낼수록 20에 가깝다. 박은평 기자 pepe@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공고

▣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주택과 – 1973(2017.1.12.)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의제 처리) 받은 건물임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23번지 일대 ▣ 대지면적 : 전체 65,494.00㎡ 중 오피스텔 지분 4,130.3550㎡
▣ 건축물 연면적 : 전체 598,899.6377㎡ 중 오피스텔 38,125.7049㎡ ▣ 건축물 층별용도 : 지하6층~지하1층 주차장, 지상 7~22층 오피스텔
▣ 공급규모 : 오피스텔 375실 및 부대복리시설
▣ 오피스텔 공급금액 및 납입일정

(단위 : ㎡, 원, VAT 포함)

타입	공급실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 면적	계약 면적	대지지분	라인	총 분양대금 가격구분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금(10%) 1차 계약시	2차 계약 후 30일이내	중도금 50% 1회 2017.6.9	2회 2017.11.27	3회 2018.5.16	4회 2018.9.28	5회 2019.2.12	잔금(40%) 입주 지정일
30	240	30.8885	13.1764	2.9447	19.4415	66.4511	7.1175	1~12호	8~9층	120,677,031	87,566,335	8,756,634	217,000,000	5,000,000	16,700,000	21,700,000	21,700,000	21,700,000	21,700,000	21,700,000	86,800,000
									10~16층	121,789,262	88,373,398	8,837,340	219,000,000	5,000,000	16,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87,600,000
									17~19층	124,013,723	89,987,525	8,998,752	223,000,000	5,000,000	17,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89,200,000
									20~22층	125,125,954	90,794,587	9,079,459	225,000,000	5,000,000	17,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90,000,000
								13호	8~9층	119,564,800	86,759,273	8,675,927	215,000,000	5,000,000	16,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21,500,000	86,000,000
									10~16층	120,677,031	87,566,335	8,756,634	217,000,000	5,000,000	16,700,000	21,700,000	21,700,000	21,700,000	21,700,000	21,700,000	86,800,000
									17~19층	122,901,492	89,180,462	8,918,046	221,000,000	5,000,000	17,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88,400,000
									20~22층	124,013,723	89,987,525	8,998,752	223,000,000	5,000,000	17,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22,300,000	89,200,000
								18~20호	8~9층	120,120,916	87,162,804	8,716,280	216,000,000	5,000,000	16,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86,400,000
									10~16층	121,233,146	87,969,867	8,796,987	218,000,000	5,000,000	16,800,000	21,800,000	21,800,000	21,800,000	21,800,000	21,800,000	87,200,000
									17~19층	123,457,608	89,583,993	8,958,399	222,000,000	5,000,000	17,200,000	22,200,000	22,200,000	22,200,000	22,200,000	22,200,000	88,800,000
									20~22층	124,569,838	90,391,056	9,039,106	224,000,000	5,000,000	17,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22,400,000	89,600,000
69	60	69.1347	26.9851	6.5908	43.5139	146.2245	15.9305	14호	8~9층	186,298,642	135,183,053	13,518,305	335,000,000	10,000,000	2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134,000,000
									10~16층	188,523,103	136,797,179	13,679,718	339,000,000	10,000,000	2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33,900,000	135,600,000
									17~19층	191,859,796	139,218,367	13,921,837	345,000,000	10,000,000	2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138,000,000
									20~22층	194,084,257	140,832,494	14,083,249	349,000,000	10,000,000	2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139,600,000
								15~17호	8~9층	191,859,796	139,218,367	13,921,837	345,000,000	10,000,000	2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138,000,000
									10~16층	194,084,257	140,832,494	14,083,249	349,000,000	10,000,000	2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139,600,000
									17~19층	197,420,949	143,253,683	14,325,368	355,000,000	10,000,000	2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142,000,000
									20~22층	199,645,410	144,867,809	14,486,781	359,000,000	10,000,000	2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35,900,000	143,600,000
84	75	84.8468	32.3809	8.0886	53.4033	178.7196	19.5510	21~25호	8~9층	244,134,638	177,150,329	17,715,033	439,000,000	10,000,000	3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75,600,000
									10~16층	246,915,215	179,167,986	17,916,799	444,000,000	10,000,000	3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177,600,000
									17~19층	250,808,023	181,992,706	18,199,271	451,000,000	10,000,000	3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180,400,000
									20~22층	253,588,599	184,010,365	18,401,036	456,000,000	10,000,000	3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182,400,000

▣ 공통사항

- 상기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타입별 면적, 층 및 향 등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오니 청약신청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금액에 각 오피스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으로 별도 계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 상기 분양금액추가선택품목 금액표함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상기 실별계약 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관리사무소) 및 관리실(MDF, 방재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총 합계금액 범위내에서 편의상 부가세금액 및 대지비는 전단위 미만에서 절상하였고, 해당 절상금액은 건축비에서 감하여 표기하였는바, 실제 금액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청약신청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 3호 기준"에 따라 안목치수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4.12.03개정]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관리사무소) 및 관리실 (MDF, 방재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에 대한 대지지분 4,130.3550㎡을 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비주거시설의 대지지분은 사업부지 전체 대지면적 65,494.0000㎡ 중 기 분양한 공동주택 대지지분 43,859.3186㎡ 을 제외한 21,634.6814㎡ 이며, 이중 금회 공급하는 오피스텔의 대지지분은 4,130.3550㎡이고, 이 대지지분을 오피스텔 실별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소수점 4자리 미만은 절사하였으며, 대지지분 절사에 따른 대지비 정산은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주상복합으로 계획되어 대지는 주거와 비주거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오피스텔 세대별 대지지분에 대한 대지분할 및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향후 비주거시설 중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설계변경면적, 규모, 층수, 입면, 지하층, 용도, 주출입구 위치 등), 대수선, 리뉴얼 등이 실시될 수 있고, 동 설계변경 사항은 입주예정자의 동의대상이 아닙니다.
- 위 표시 부동산의 대지지분은 향후 비주거시설 중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감과 연동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입주예정자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수 없습니다.
- 향후 비주거시설 중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에 대한 설계변경에 관하여 입주예정자는 청약신청 당시에 충분히 숙지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동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최초 분양계약조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표시 부동산의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등 계약면적과 이에 따른 공유지분인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관계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및 지침, 지적정리, 확정측량, 사업시행 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청산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감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청산하기로 합니다.
-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센터,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등)은 공용면적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상기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청산 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대지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청산하지 않기로 함
-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관계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및 지침, 지적정리, 확정측량, 사업시행 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청산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감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청산하기로 함.
- 공급안내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합니다. (단,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 보관)
- 견본주택에 표시된 바닥배수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및 콘센트, 스위치 조명기구,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의 위치 및 수량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 대책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공사시 소방법에 맞추어 시공됩니다.
- 실제 시공 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실 내부에 한합니다.
- 당 설계 고지내용은 업무시설(오피스텔)에 대한 고지로써 그 밖의 용도시설, 즉 주거시설 및 비주거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 시설, 판매시설)에 대한 사항은 제외되므로 주거시설 및 다른 비주거시설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공용면적(계단실,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또는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으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향후 비주거시설의 설계변경(면적, 규모, 층수, 지하층, 용도, 주출입구 위치 등), 대수선, 리뉴얼 등이 실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입주예정자의 동의여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 실당 대지지분은 최종 측량 성과도 및 비주거시설 설계 면적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 도서와 실제 공사간에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이한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구조 및 성능 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하여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변경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업무시설(오피스텔)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 내 명칭 및 실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기타 설계상 주요 고지사항의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 1. 13)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1인당 각 타입별 1실씩, 최대 3개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단, 동일인이 동일 타입의 2개실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하며, 호수는 전산추첨하여 결정됩니다.
  - 청약접수 방법 : 인터넷 청약 (법인의 경우 견본주택 內 접수) – 법인 청약접수 장소 : 당사 롯데캐슬 골드타운 오피스텔 견본주택 [인터넷 청약은 받지 않음]
    ※단, 법인 및 휴대폰 미소지자 또는 휴대폰의 명의가 본인과 달라 본인 확인이 불가할 경우 당사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오피스텔 견본주택 접수
  - 청약 및 계약일정

구 분	일정	장소
청약일시	2017. 1. 13(금) ~ 1. 15 (일) 3일간 10시~18시	청약 홈페이지 PC: http://www.sungbok-lottecastle.co.kr 모바일 사이트 : http://m.sungbok-lottecastle.co.kr ※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오피스텔 견본주택 (법인만 신청 가능)
당첨자 발표	2017. 1. 16(월) 12시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오피스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게재
계약일자	2017. 1. 17(화) ~ 1. 18(수) 10~16시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오피스텔 견본주택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금융기관명	청약신청금 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오피스텔 (전타입 공통)	100만원	KEB하나은행	441–910007–48904	롯데건설 ㈜

  - 납부방법 : 청약신청 계좌 무통장 입금 (견본주택 內 현장 수납을 받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입금자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건 이상 접수시 각각 따로 입금하시기 바람)
    예시 1) 84타입을 청약한 홍길동, 접수번호 11111 → 11111홍길동 (총 1건) 예시 2) 84, 69, 30타입을 청약한 홍길동, 접수번호 20201, 20210, 20215 → 20201홍길동, 20210홍길동, 20215홍길동 (총 3건)
  - 청약신청 당일 18시까지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 청약 신청 방법

– 인터넷 청약안내 (일반)

구 분	이용 안내
①청약신청	청약 홈페이지 PC: http://www.sungbok-lottecastle.co.kr ▶ 청약 신청 ▶ 청약 유의 사항 확인 ▶ 휴대폰 본인 인증 ▶ 타입 선택 ▶ 청약신청 완료 모바일 사이트 : http://m.sungbok-lottecastle.co.kr
② 청약 신청금 입금	상기 계좌로 신청금 입금 (건당 1백만원 : 1인당 최대 3건 가능) (입금자명 : 청약접수번호+청약신청자명)

– 법인 신청

구 분	구비 사항
법인	• 청약신청서 (당사 견본주택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청약신청금 납입영수증 (지정계좌 무통장 입금증) •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 (청약신청 법인 명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청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별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일시 및 당첨자 발표 : 2017. 1. 16(월) 12시 (견본주택 기준 일시이며, 홈페이지 게시는 이보다 늦어질 수 있음)
- 발표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 추첨 : 당사 견본주택에서 타입별 전산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며, 미계약세대 발생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2항 규정 등을 통하여 당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당첨자 선정시 타입별 공급세대의 3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합니다. • 미계약세대 발생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2항 규정 등을 통하여 당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

- 환불기간 : 2017. 1. 23(월) 이후 • 환불방법 : 청약신청시 제출한 환불계좌로 환불일 이후 자동이체함. 단, 계좌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 제출로 환불이 안 될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음
- 낙청자 및 당첨자 (미계약자 포함) 일괄 환불됨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 가능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청약 당첨자의 청약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고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 바람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2017. 1. 17(화) ~ 1. 18(수) 10~16시 • 계약체결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계약금 납부 :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내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회사에서 임의분양할 수 있습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 사항
본인계약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법인	• 청약신청 접수 (영수)증 • 법인 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 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주민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사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구비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공란이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1차	KEB하나은행	591–910035–18404	(주)하나자산신탁
계약금2차, 중도금, 잔금	KEB하나은행	591–910035–19104	(주)하나자산신탁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계좌 외의 계좌 입금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자금관리사인 ㈜하나자산신탁은 계약자 및 시공사를 대리하여 분양대금을 수납합니다. • 당첨된 호수를 확인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KEB하나은행 본.지점 무통장 입금 (타행 입금불가) 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CMS 계좌이므로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금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입금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801호를 계약시 0801홍길동)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조건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회사에서 임의분양합니다. • 청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 청약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단지내 업무시설,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을 준수합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 품목 (유상옵션)

타 입	내 용	금 액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지정일)	비 고
30	슬라이딩 도어	1,430,000	200,000	1,230,000	

- 오피스텔 공급계약과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일정 시점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추가선택품목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공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입주시 개별 납부)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의 제조사와 사양은 제품의 품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 품목 (유상옵션)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납부계좌	국민은행	465101–01–249893	㈜롯데건설	분양대금 납부 계좌와 상이하므로 유의 바람

▣ 분양권 전매 및 권리양도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매가 가능함. 단,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6조의3 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법 제6조의 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 10조 ②항 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가능하며, 당사에 대한 채무이행 및 당사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금액 :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내 대출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출제한 등)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잔단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될 경우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준공예정일) : 2019년 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통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분양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청산 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대지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청산하지 않기로 함 •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관계법령, 행정관청의 규제 및 지침, 지적정리, 확정측량, 사업시행 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청산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증감부분에 대한 별도의 이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청산하기로 합니다. • 공급안내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합니다. (단,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 보관)
- 견본주택에 표시된 바닥배수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및 콘센트, 스위치 조명기구,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의 위치 및 수량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 대책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공사시 소방법에 맞추어 시공됩니다.
- 실제 시공 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실 내부에 한합니다.
- 당 설계 고지내용은 업무시설(오피스텔)에 대한 고지로써 그 밖의 용도시설, 즉 주거시설 및 비주거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 시설, 판매시설)에 대한 사항은 제외되므로 주거시설 및 다른 비주거시설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공용면적(계단실,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또는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으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향후 비주거시설의 설계변경(면적, 규모, 층수, 지하층, 용

차기 신한은행장 내달 말 윤곽… 은행 출신 CEO 중 나올까

조용병 행장, 신한금융 유력 회장후보
당락 관계없이 은행장 교체 가능성 커

신한은행 차기 행장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다음 달 말께 드러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3월 초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어 신한은행 차기 행장을 내정할 예정이다. 이어 신한은행은 3월 말 주주총회를 거쳐 차기 은행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신임 은행장 선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용병 행장이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등과 함께 신한금융의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조 행장이 오는 19일 신한금융 차기 회장으로 내정될 경우 신한은행은 자연스레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게 된다.

조 행장이 고배를 마신다고 하더라도 은행장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신한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차기 회장과 보폭을 맞출 인물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미 (회장 후보와) 사전 교감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2011년부터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후보군(롱리스트)을 관리하고 있다.

롱리스트에는 신한금융 및 신한은행 부행장급과 계열사 CEO들의 명단이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 안팎에서는 전·현직 은행장이 대부분 계열사 대표이사 경험이 있는 만큼 비슷한 경력을 가진 CEO 중 차기 회장과 코드가 맞는 인물이 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신한은행 출신 CEO는 민정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설영오 신한캐피탈 사장, 이동환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 이신기 신한아이타스 사장, 이원호 신한신용정보 사장 등이 있다.

이 중 이신기 사장은 1956년생으로 조 행장(1957년), 위 사장(1958년)보다 나이가 많고, 나머지 4명은 모두 1959년생 동갑이다. 신한은행 입행이 가장 빠른 이 사장은 일본 도쿄지점에서 1996년(차장)과 2005년(지점장)에 두 차례 근무한 적 있다.

오는 3월 차기 신행은행장을 추천할 자경위는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 이만우 고려대 교수, 고부인 산세이 대표, 이상경 법무법인 원전 대표변호사 등 사외이사들로 구성돼 있다.

자경위도 신한금융 차기 회장을 뽑는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처럼 과점주주인 재일교포들과 한 회장의 뜻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장효진 기자 js62@

수출입은행, 이주노동자 진료소 후원



한국수출입은행은 사회공헌 활동인 '희망씨앗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인 라파엘클리닉에 4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13일 밝혔다. 후원금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약품 구입과 진료소 운영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덕훈 행장(왼쪽)이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안규리 라파엘클리닉 대표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수출입은행



동양생명 이어 알리안츠서도 저축성보험 판매

안방보험, 또 공격 영업

1년3개월만에 저축성보험 재판매
최저보증이율 2% 보장 최고수준
단기간에 가입자 끌어모으기 좋아

지난해 말 알리안츠생명을 최종 인수한 중국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에 이어 알리안츠생명에도 저축성보험 판매를 통한 공격 영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11일부터 최저보증이율 2%를 보장하는 '알리안츠 보너스 주는 저축보험'을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다. 2%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는 상품은 타사들의 1~1.5%인 최저보증이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저축성보험은 단기적으로 가입자들을 끌어모으고 매출 규모를 키우기에 유효한 전략이다.

알리안츠생명이 저축성보험 판매를 한 것은 2015년 9월 30일 이후 1년 3개월만이다. 알리안츠생명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저축성보험 판매를 중단해왔다. 모회사였던 독일 알리안츠그룹이 과거 확정형 고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저축성보험 판매를 꺼렸기 때문이다.

유럽 보험사들은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솔벤시2(Solvency Ⅱ) 규정을 받는 만큼 기존에 팔아치운 고금리 상품들로 자본확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알리안츠생명이 변액·종신보험 위주로만 상품을 판매했던 이유다.

이에 따라 알리안츠생명 시장점유율은 쪼그라들었다. 2014년 말 2.1%, 2015년 말 1.8%, 2016년 말(10월 누적) 1.5%로 2년새 0.6%포인트 줄었다.

알리안츠생명 측은 현재 안방보험 측 인사가 임명됐거나 모회사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만큼 저축성보험 판매는 안방보험 전략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고객들한테 반응이 좋은 저축성보험 판매로 영업현장 활기를 돋구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저축성보험 판매는 안방보험이 알리안츠생명에도 동양생명 식(式) 영업전략을 본격 가동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주인이 바뀌고 15개월만의 저축성보험 판매인 데다, 안방보험의 높은 자산운용수익률로 저축성보험 이율 보장에 대한 부담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안방보험은 2015년 9월 동양생명을 인수한 뒤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는 저축성보험 판매로 매출을 대거 늘렸다. 최저보증이율이 지난해 3월 말까지 2.85%로 삼성생명·교보생명 등 대형사(1.5%)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이에따라 시장점유율도 2015년 말 3.6%에서 지난해(10월 누적) 6.1%로 1.6배 증가했다.

동양생명은 높은 최저보증이율로 인한 역마진 우려에서 탈피하기 위해 고금리(6~8%) 수익 을 얻을 수 있는 육류담보대출을 감행하기도 했다.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금액은 3803억 원, 이중 연체금액은 2837억 원으로 연체율이 무려 74.6%에 이른다.

박규준 기자 abc84@

삼성생명도 자살 '위로금'… 보험금 지급 담합?

한화·교보 지급 방법·기준 그대로 따라
일부만 지급 논의…제재 감경은 미지수

삼성생명이 한화·교보생명처럼 자살보험금 일부만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1년 1월 보험업법에 기초서류위반 항목이 반영된 이후부터 청구된 자살보험금만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자살예방 기금으로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방안을 다음 주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방향은 교보생명과 흡사하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2월 16일 '빅3' 가운데 가장 먼저 자살보험금 지급 의사를 밝혔다. 이때 교보생명이 내 건 시점이 보험업법에 기초서류 위반 사항이 반영됐을 때부터다.

이후 한화생명 역시 교보생명을 그대로 따라하며 2011년 1월이란 기준을 앞세워 일부 지급을 결정했다.

이어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을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배임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위로금 형식을 선택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결국, 삼성생명은 지급 시점, 지급 형식 등을 교보생명과 유사하게 결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삼성·한화·교보생명 모두 담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자살예방기금 출연 등은 고민하고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며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금감원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합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임, 소송 등을 피하면서 지급할 방안을 회사마다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생명까지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결정하면서 금감원의 제재 수위로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한화·교보생명을 상대로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문책 경고가 포함된 중징계를 통보했다.

보험업법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2조에는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자진신고, 그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기업은행, 내주 조직개편·원샷인사 단행

지난달 취임 김도진 행장 첫 행보 관심
부행장 4명 이상 교체…부서 통폐합도

기업은행이 다음주 임직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지난달 취임한 김도진 기업은행장의 첫 행보인 만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기업은행 인사와 조직개편은 조직 슬림화, 효율성 강화 등을 골자로 이뤄진다. 앞서 김 행장은 취임 후 "사업본부, 부서 간에 벽이 생기는 모습이 보인다"며 "조직 슬림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보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전무이사직을 포함해 부행장직 4자리 이상이 바뀔 전망이다. 수석 부행장을 맡고 있는 박춘홍 전무이사, 시석중 마케팅그룹 부행장, 서형근 기업금융(IB)그룹 부행장, 김성미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등의 임기는 20일 만료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차기 수석 부행장직의 유력한 후보로 임상현 IBK저축은행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임 대표는 기업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 전체 직원들의 인사도 실시된다. 조직 개편은 그룹 명칭을 바꾸고, 부서를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마케팅그룹은 미래채널그룹으로 재편돼 스마트뱅킹, 핀테크사업 부서를 강화, 확장할 계획이다. IB그룹은 기업투자금융(CIB)그룹으로 바뀐다. 기업고객그룹에 있던 기업금융센터가 편입돼 기술금융부, 투자금융부 등과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김경아·정수천 기자 kakim@

박진수 "中 전기차 배터리 사업 문제없다"

〈LG화학 부회장〉

ESS 대체·해외 수출 등 대응 가능
인력조정·시설 재배치 계획 없어
석유화학 신년회 CEO 109명 참석
"올해도 지난해처럼 전진할 것"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년도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박 부회장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대해 "중국 공장 가동률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인력조정이나 생산시설 재배치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용 전지를 ESS로 대체해도 된다"며 "시장이 중국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지(중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해외로 수출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지난해 배터리 인증 기준 관련 업체들의 생산능력 기준을 강화했으며, 올해 초에는 LG화학과 삼성 SDI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모델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박 부회장을 비롯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허수영 석유화학협회 회장,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 허세홍 GS글로벌 대표 등 석화업계 최고경영자(CEO) 109명이 참석했다.

신년회 시작에 앞서 허 회장(롯데케미칼 사장)은 내년 시황에 대해 "작년과 비슷하게 잘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김창범 한화케미칼 사장은 "작년처럼 올해도 '고(Go)'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GS칼텍스 부사장을 지냈던 허세홍 GS글로벌 대표는 현재 GS칼텍스의 멕시코 복합수지 사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 "기업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적응해야 한다"며 "GS칼텍스도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해 폴리우레탄 시스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SKC의 임의준 상무도 "트럼프 정권 영향과 관련해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자동차 부문 등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올해 첫 번째 만남을 갖게 된 석화업계 신년회는 새해 덕담과 안부를 묻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신년사에서 허 회장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질 개선과 고부가가치화, 시의적절한 사업재편,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무역 규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정부도 통상협력 채널을 통해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수입규제 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래 화학 분야의 연구개발(R&D)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업계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종합상사 성과급 '엇갈린 표정'

'흑전' LG상사 2년만에 지급 전망
포스코대우, 전년과 비슷한 수준
SK네트웍스 순익 줄었지만 기대
'적자전환' 삼성물산 지급 힘들듯

국내 종합상사들의 지난해 실적이 자원 개발과 신규사업 성과 등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직원들이 받게 될 성과급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G상사는 지난해 매출액 12조775억 원, 영업이익 1646억 원, 순이익 970억 원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101.5% 상승, 순이익은 흑자 전환이다.

LG상사는 2014년부터 목표를 달성한 사업 조직 외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올해(2016년 분)는 아직 성과급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큰 폭의 영업이익 상승에 따라 임직원들은 성과급 지급 대상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실적이 하락한 포스코대우와 SK네트웍스는 전 사업 조직에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다.

포스코대우는 2월 전년과 비슷하게 기본급의 100~200% 수준으로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다. 포스코대우는 지난해 매출 15조5730억 원, 영업이익 3316억 원, 순이익 187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1.1%, 10.1% 줄어든 수치다.

상사업계 실적 추정치
(단위:억 원,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16년 추정치 매출액	영업익	순이익
LG상사	12조775 (-8.7)	1646 (101.5)	970 (흑자전환)
포스코대우	15조5730 (-11.1)	3316 (-10.1)	1872 (72.4)
SK네트웍스	19조15 (-6.7)	1591 (-17)	462 (-36.7)
삼성물산	27조9150 (109.2)	1393 (275)	-1407 (적자전환)

SK네트웍스는 아직 성과급의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당기순손실이 났던 2013년을 제외하고 성과급이 매년 지급됐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매출 19조15억 원, 영업이익 1591억 원, 순이익 462억 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6.7%, 영업이익은 17%, 순이익은 36.7% 하락한 수치다.

삼성물산은 6개월마다 목표달성장려금(TAI·옛 PI)을, 연초에는 초과이익성과금(OPI·옛 PS)이라는 성과급을 받는다. TAI 지급률은 회사 평가와 사업부별 평가를 합쳐 결정되는데,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회사평가에서 각각 B와 C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OPI는 2011년 이후부터 2015년(2014년 분)을 제외하고 받지 못했는데, 올해도 OPI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삼성전자, 美서 'B2B 모바일 연합군' 대대적 지원

솔루션 개발사 지원 프로그램
'삼성 엔터프라이즈 얼라이언스'
R&D 채널·유통망·직판팀 등
이용 가능하게 지원 늘릴 계획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기업용(B2B) 모바일 솔루션 사업을 강화한다. 스마트기기와 관련 소프트웨어·서비스 등을 기업에 제공하는 B2B 모바일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해 모바일 보안·데이터 소프트웨어(SW) 업체 타키온을 인수한 데 이어, 기업용 모바일 솔루션 개발 연합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13일 '삼성 엔터프라이즈 얼라이언스 프로그램(SEAP, Samsung Enterprise Alliance Program)'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SEAP는 삼성전자가 지난 2011년부터 모바일 기기에 탑재하는 솔루션 개발사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프트웨어(SW)·시스템통합(SI) 등 업체들은 삼성전자의 자체 보안 플랫폼 '녹스(Knox)'를 이용해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삼성 스마트기기 등을 적용한 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제공한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현재 SEAP에 참여한 300개 이상의 '독립 소프트웨어 공급업체(ISV)'에 마케팅 지원, 개발 과정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SDK)를 제공하던 기존 지원 범위를 확대해, 삼성전자의 제품·연구개발(R&D)·채널·직접 판매 등 주요 팀에 배타적 접근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출시 이전의 기업 솔루션의 테스트를 지원해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는 데 일조할 방침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대형 기술 공급업체 및 SI업체까지 파트너사를 확대하고 클라우드 플랫폼과 모바일 에코시스템 등과 관련한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으로 미국의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업체 인퓨전(Infusion)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요 유통업체를 위한 태블릿 기반의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결국 '반쪽회의'… 쇄신동력 잃은 전경련

삼성·현대차 등 재계 총수 대거 불참… 차기회장 선임도 난항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쇄신안 마련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해 회장단 회의를 강행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찾지 못했다. 다음 달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지만 회장단마저 전경련을 외면한 상황에서 쇄신 동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계에서는 전경련 조직 와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정기 회장단 회의에 삼성·현대차·SK·LG 등 주요 그룹 총수가 대거 불참했다. 10대 그룹 가운데는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는 허창수 GS그룹 회장만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동국제강, 풍산, 삼양 등 18대 그룹 총수들 대부분도 불참했으며, 참석한 일부 기업 역시 허 회장과의 친분 때문에 참석을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회장단 회의는공식 의사결정 기구는 아니지만, 그동안 중요 결정은 회장단 협의를 통해 이뤄져 온 만큼, 쇄신 작업의 제동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경련은 일단 다음 달 예정된 이사회에서 총회 안건 등을 확정한 뒤 총회를 통해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당초 벤치마킹 대상으로 검토했던 미국 헤리티지재단보다 미국 경제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로의 변화에 무게를 두고 쇄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총회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회장단 회의에서 쇄신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발표될 쇄신안이 회원사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 의구심이 모아지고 있다.

쇄신안을 내놓더라도 다음 달 임기를 마치게 되는 허 회장의 후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경련이 힘 있게 쇄신안을 추진해 나가기도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전경련은 외부 인사 영입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각에서는 회장직이 한동안 공석으로 남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SK텔레콤 이어 KT·LGU+도 '동등결합 요금제' 출시

〈이동통신+케이블〉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이동통신과 케이블TV 초고속 인터넷을 묶는 동등결합 요금제를 출시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통사들의 가입자 경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오는 3월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음 달 SK텔레콤이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 올해 1분기 안에는 이통 3사가 모두 동등결합 상품을 내놓고 판촉전에 들어간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HCN, CMB, JCN울산중앙방송 등 6개 케이블 사업자는 동등결합 상품인 '온가족케이블 플랜'을 선보인다. KT는 온가족 플랜과 유사한 '총액 결합할인'을 동등결합 상품에 적용한다. 이는 이동통신 합산 요금 금액에 따라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도 3월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한다. 요금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케이블TV 사업자와 결합할인율, 요금정산, 전산 개발 등 실무적 논의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케이블TV 업계는 그동안 지속적인 가입자 유출과 시장 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이통 3사가 자사 IPTV와 이동전화를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 즉 동등결합을 주장해 왔다. 케이블TV와 이동전화를 묶은 결합상품을 출시해 가입자 이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동등결합 상품이 케이블의 위기 탈출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차별적 판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공정한 동등결합 상품 판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범근 기자 nova@

현대車 '꿈을 키우는 미래 자동차 학교' 교육부 장관상 수상



현대자동차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특화 진로교육 프로그램 '현대차와 함께 꿈을 키우는 미래 자동차 학교'가 2016년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미래 자동차 학교'는 자동차 산업과 미래 자동차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직업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현대자동차 주요 거점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미래 자동차 학교 참여 학생이 VR(가상현실)를 이용한 시뮬레이터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자… 곧바로 신차 내놓는 폭스바겐

'아우디 2017년형 A7' 모델 이르면 이달 말부터 판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 신차를 도입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A7 55 TDI 콰트로 프리미엄 2017년형'(이하 2017년형 A7) 모델은 지난해 10월 말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통과한 뒤, 현재 국토교통부에 제원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정상 2017년형 A7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부터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 서류 조작 사태가 불거진 이후 신규 인증이 통과된 것은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을 통틀어 2017년형 A7 모델이 처음이다. 2017년형 A7의 판매가 본격화되면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의 타 모델도 한국 출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인증 취소 후 반년 넘게 시간이 흘러 모델의 대부분이 단종된 만큼, 새 모델을 도입해 판매하는 것이 영업 정상화에 효과적이라고 회사 측이 판단했다고 풀이하고 있다.

인증 취소 여파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차량을 단 1대도 판매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때문에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은 2017년형 A7 판매를 시작으로 판매 정상화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인증 취소 처분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신규 인증을 내줬다는 점, 전날 환경부가 티구안 2만7000여 대에 대해 첫 리콜을 승인한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한국지엠 '스파크 승용밴' 출시

첨단 변속시스템 이지트로닉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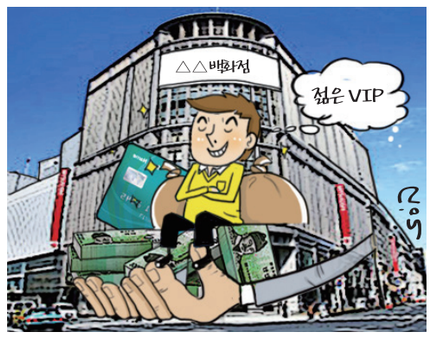
경차 부문 1위를 자리를 두고 기아자동차의 '모닝'과 한국지엠 쉐보레 '스파크'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스파크'의 뒷 좌석을 없앤 '스파크 승용 밴(사진)'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 초 경쟁 모델인 기아차 모닝이 완전변경 모델을 선보이자, 쉐보레 스파크도 새로운 변형 모델인 승용 밴을 내놓으며 지난해 경차 1위 타이틀 방어에 나선 셈이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이번에 출시한 스파크 승용 밴에 첨단 변속 시스템인 이지트로닉을 적용했다. 이지트로닉은 수동과 자동 변속기의 장점을 결합한 신개념 변속 시스템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 변속 시스템을 적용하면 연비 효율도 높아지는 만큼, 유럽에서는 이미 경차에 두루 채택되고 있다. 이지트로닉이 적용된 스파크 승용 밴은 기존 모델 가격(992만~1015만 원)에서 80만 원만 추가하면 된다. 연비 효율이 높고, 여유있는 실내 공간을 확보한 스파크 승용 밴의 출시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젊은 VIP 모시기’ 공들이는 백화점

잘키운 ‘2030’ 고객 미래 쇼핑 큰손
할인 혜택·무료 주차 서비스 제공
신세계 등급 세분화 20만 추가 확보



백화점 업계가 ‘젊은 VIP’ 선점에 나선다. ‘영원한 큰손’인 VIP고객은 미래에는 스마트 쇼핑족으로도 이어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매출 동력으로 예상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젊은 VIP고객은 구매력이 높아지는 40~50대가 돼서도 기존 VIP 혜택으로 익숙한 백화점 쇼핑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신세계백화점은 다음 달 기존 VIP 제도를 전면 개편, 매출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실제로 신세계의 지난해 VIP 고객 수는 전체의 3%에 불과하지만, 매출은 40%에 달한다. 내점 일수도 일반고객 대비 7배 높게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VIP등급을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 확대했다. 실제로 기존 신세계 VIP 엔트리 등급인 ‘로얄’ 등급은 연12회 800만 원 이상을 구매하는 고객이 대상이지만, 새로 개선된 VIP 등급에는 연24회 400만 원 이상 구매 실적을 맞추면 ‘레드’ 등급을 부여받는다. 이로써 20만 명이 새롭게 VIP 고객이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레드 등급의 혜택은 5% 할인과 무료 주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레드 등급은 연간 큰 금액이 아닌 분기별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비교적 적은 금액만으로도 VIP 선정이 가능해진다. 스마트 쇼핑족이 늘고 있어 이들을 신세계백화점의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 전략본부장 유신열 부사장은 “새로운 VIP 제도를 통해 미래의 주요 고객인 ‘젊은 VIP 고객’을 선점하고 점점 늘어나는 스마트 쇼핑족과 단골 고객까지 잡아 올해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성장하는 신세계의 모습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도 장기 불황을 빗겨가는 VIP 고객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MVG 회원(롯데백화점 VIP 고객을 일컫는 용어)은 연간 2000만 원 이상 구매해야 자격을 준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MVG 회원 고객 신장률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8.9%를 차지하며 전체 기존점 평균 대비 약 6%P를 상회했다.

롯데백화점의 MVG 고객은 프레스티지, 크라운, 에이스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6000만 원 이상 구매 시 프레스티지 고객으로 선정되고, 3500만 원 이상 크라운 고객, 2000만 원 이상 ACE 고객으로 선정된다. 에비뉴엘 VIP 고객은 1년간 본점 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의 명품을 구매한 경우 에비뉴엘 LVVIP 고객으로 선정된다. 6000만 원 이상 구매시 에비뉴엘 VVIP, 3000만 원 이상 에비뉴엘 VIP고객으로 분류된다.

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 포인트를 기준으로 VIP 고객을 선정, 5000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TCP(Top Class Progra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약 500만 원 이상 구매하면 적용되는 ‘골드(5000점 이상)’ 등급부터 플래티늄(2만 점 이상),클럽쟈스민(4만 점 이상), 자스민블루, 쟈스민 블랙 나뉘어 있다.

갤러리아백화점도 1년 단위로 마일리지를 적용해 VIP를 선정하고 있다. 갤러리아 마일리지는 갤러리아카드 1000원당 1마일리지가 적립되며, 갤러리아 멤버십 카드로 결제 시 5000원당 1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등급은 파크제이드, PSR 등으로 2만 마일리지부터 7만 마일리지 기준으로 구분된다. 특히 PSR 블랙은 최상위 0.1% 그룹에 속하는 고객이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장기 불황에도 VIP 고객은 구매력이 좋다”며 “부모와 함께 쇼핑하는 ‘젊은 VIP’ 확보는 매출 경쟁력에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정용진의 ‘촉’ 살아있네~ 트레이더스, 40% 고속성장

역점사업 꼽아… 지난달 매출 1182억
대용량 상품 구성 시중보다 15% 저렴
연회비 없는 창고형 매장… 11곳 운영
올 3곳 출점… 2023년 점포 50개 목표



정용진(사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트레이더스가 이마트 성장동력으로 확실하게 자리 매김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10일 작년 12월 실적을 발표했다. 12월 총매출액은 1조17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했고, 순매출액은 1조17억 원으로 8.8% 늘었다. 정국 불안에 따른 주말 매출 감소와 소비경기 악화 등을 고려하면 선방한 셈이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할인점의 총매출액은 951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했다. 온라인과 트레이더스의 총매출액은 804억 원, 1182억 원으로 각각 34.2%, 39.8% 늘었다. 이번 실적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트레이더스의 높은 성장률이다. 트레이더스의 기존점 1~12월 성장률은 21.9%를 기록했고 작년 9월 오픈한 하남점을 포함하면 39.8% 성장했다. 한 자릿수 성장률에 그치는 할인점과는 차별적인 고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트레이더스는 연회비 없는 창고형 할인점을 콘셉트로 2010년 구성점을 처음 개장했으며 작년 9월 스타필드 하남점까지 현재 11개 매장이 영업 중이다. 트레이더스는 이미 작년 10월에 전년 매출을 넘어서고 11월에는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

이마트는 트레이더스의 성장 요인으로 차별화된 대용량 상품을 비롯해 일반 할인점 대비 평균 8~15%가량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들고 있다. 아울러 전체 운영 상품의 50% 가량을 해외 수입 상품으로 구성했다. 특히 오픈 초기부터 병행수입 상품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해외 유명브랜드 인기 상품을 시중가격 대비 20~30% 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또 2014년부터는 자체 브랜드 상품인 ‘트레이더스 딜’을 선보이는 등 상품 차별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정 부회장은 올해 삼송점, 군포점, 김포점 등 3개 점을 추가 출점할 계획이며 2023년까지 점포 수를 50개로 늘려 국내 창고형 할인점을 대표하는 위치를 확고히 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인사·조직개편을 통해 다점포화 등 사업 확장에 따라 이마트 내 트레이더스 담당 조직을 트레이더스 본부로 격상하고 산하에 트레이더스 운영 담당을 신설했다.

한화투자증권 남성현 연구원은 “트레이더스의 성장 추세는 기존 점포의 성장과 신규점 확대에 따라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라며 “올해 트레이더스의 총매출액 규모는 1조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신라면세점(왼쪽)과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이 중국 파워 블로거 ‘왕홍’을 초청해 한국 알리기에 나섰다.

신라면세점·용산 신라아이파크면세점

中 파워블로거 ‘왕홍’ 초청 춘절 마케팅

호텔·쇼핑몰 체험 ‘한국 알리기’ 나서

신라면세점과 서울 용산의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이 중국 현지의 ‘왕홍(SNS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많은 팬을 보유한 유저)’들을 초청해 ‘춘절(1월 27~2월 2일) 연휴’를 앞두고 한국 관광 알리기에 나섰다.

신라면세점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는 중국 현지 왕홍 집단인 ‘신라따카’ 15명을 초청해 ‘한국 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투어는 서울과 제주에서 진행하며 경험을 중시하는 ‘싼커(중국인 개별 관광객)’의 특징에 맞춰 호텔룸쇼, 와인 파티와 같은 럭셔리한 체험부터 지역의 숨은 맛집 방문까지 다채롭게 진행된다.

특히 △뷰티 클래스, △다도·한복 체험, △팝아트 체험, △감귤 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중국인들에게 단순히 쇼핑만 하던 기존의 관광에서 벗어나 고급숙박과 다양한 경험을 함께하는 ‘고부가 한국관광’을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신라면세점은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데 능숙한 젊은 층이 늘어나고 왕홍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2015년부터 중국 현지 파워 블로거로 구성된 ‘신라따카’를 운영해 ‘한국관광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라따카’는 여행, 뷰티 등에 관심이 많은 중국 현지 왕홍들로 구성되며, 현재 2기까지 250명을 선발해 신라면세점 쇼핑 소식과 한국 관광에 관련된 내용을 ‘웨이보’ 등 중국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웨이보’ 팔로워 수를 합치면 1억 명이 넘는다.

신라아이파크면세점 역시 춘절을 앞두고 중국 파워블로거 왕홍을 초청해 중국 현지 홍보에 나섰다. 11일 쑤진무어와 진씌윈, 씨에링, 료짜오짜오 등 네 명의 왕홍이 용산 아이파크몰과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을 찾았다. 이들은 모두 합쳐 총 25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파워 블로거들이다.

이들 왕홍은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쇼핑몰과 면세점을 둘러보는 모습을 중국 현지에 생방송으로 중계했다. 용산역을 통해 아이파크몰로 들어선 쑤진무어 등은 중국에는 아직 생소한 키덜트 문화를 소개하며 아이파크몰의 키덜트 테마숍 ‘토이앤하비’를 촬영했다. 신라아이파크면세점에서는 ‘K-뷰티 스타일링’을 주제로 패션 브랜드 ‘한섬’과 색조 화장품 ‘쓰리컨셉아이즈’ 매장을 찾았다.

HDC현대아이파크몰 최석환 마케팅 팀장은 “이날 왕홍들이 방영한 홍보 영상은 일주일 동안 누적 조회수 500만 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왕홍 초청 투어를 통해 뷰티, 미식, 체험 등에 관심이 많은 중국 관광객들의 유입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한국관광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믿음이 있어
든든한 금융

공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던지는 공에
승리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과
동료의 믿음을 싣는 것
오늘도 나는
믿음의 힘으로 공을 던진다



고객의 믿음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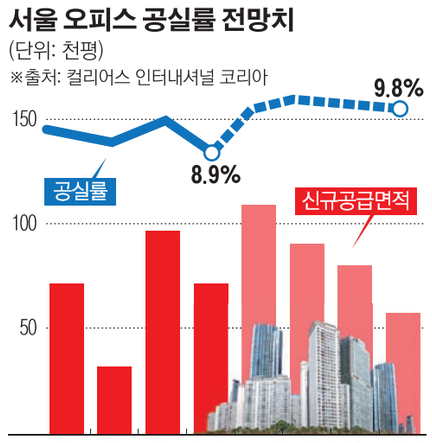
믿음이 금융의 힘이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선물 NH농협카드

空·空…먹구름 낀 서울 오피스시장

아모레퍼시픽·SK건설 등 사옥 이전
제2롯데월드타워 등 신규빌딩 봇물
수요 부진…올들어 공실률 10% 육박
전반적 불경기로 회복세 전환 힘들 듯



올해 서울 오피스 시장이 위축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데다 도심지역 주요 기업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공급을 수요가 흡수하지 못하면서 오피스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글로벌 부동산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임차 중인 시그니처타워에서 용산 신규 사옥으로 올해 하반기 이전한다. 아모레퍼시픽이 전체 면적의 70%를 사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PWC 삼일회계법인이 임차를 결정했다. 파인애비뉴 A빌딩의 전체 면적을 사용 중인 SK건설은 수송타워로 자리를 옮기고, 하나은행 역시 올해 하반기 그랑서울에서 신규 사옥으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다. LG그룹 주요 계열사도 신규 매입한 STX남산타워(LG서울역타워)로 이전한다.

이창준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상무는 "올해 일부 대기업들이 완공된 신사옥 이전을 앞두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 오피스의 공실 면적이 임대시장에 추가될 것"이라며 "신규 수요가 이 같은 추가 공실 면적을 바로 해결할 만큼 따라오지 못할 것으로 보여 올해에도 공실률 상승 추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종합부동산회사 컬리어스인터내셔널코리아 역시 올해 서울 오피스 공실률이 9.8%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봤다. 특히 상반기 서울지역 신규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은 9.9%까지 상승할 것으로 이 회사는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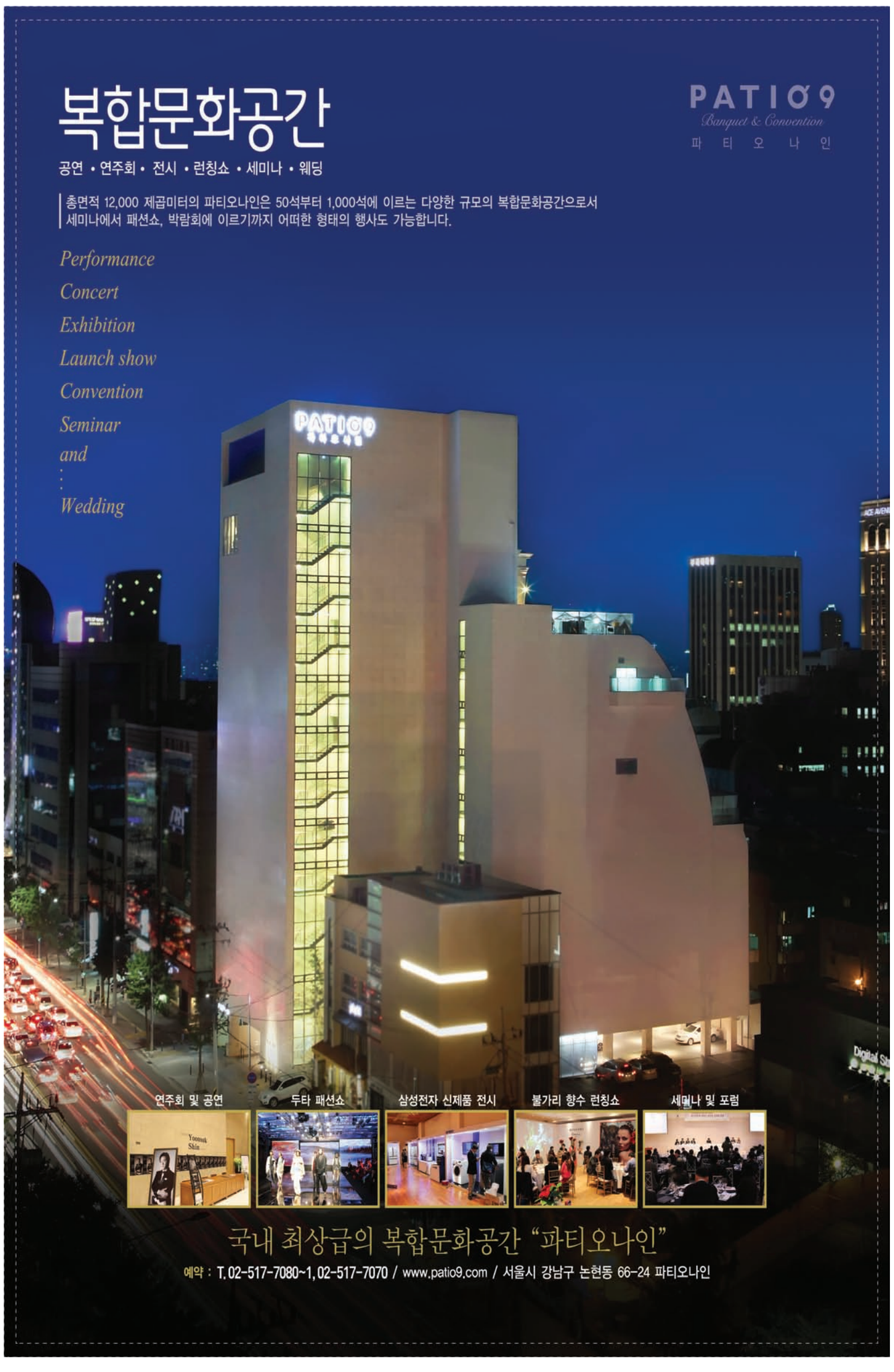
지난해에도 서울 A등급 오피스는 경기 악화로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기업들의 매입·매각이나, 합병, 구조조정 등의 전략적인 이슈로 인한 임차인의 이동은 활발했지만, 수요 회복은 보이지 않았다.

특히 올해에는 잠실 제2롯데월드타워 오피스의 공급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남권 주요 지역에서 떨어져 있고, 오피스 면적 일부가 롯데그룹 계열사에 임대되지만 123층인 최고층 건물이 강남권역 오피스 시장에 만만치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다 서초동 마제스타시티, 여의도 K타워, 신영증권이 인수한 여의도 대신증권빌딩, 쿠팡 본사인력이 올해 완공되는 타워730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공실 등이 오피스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스타트업 붐과 함께 공유공간 임대 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작년 4분기 완공된 대신금융그룹빌딩의 경우 대신금융그룹이 절반만 사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공유공간 임대서비스 위워크가 임차했다. 이 빌딩의 임차율이 100%에 달하면서 도심지역 공실 리스크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이 상무는 "작년 4분기 수요가 공급을 어느 정도 흡수했지만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게 사실"이라며 "오피스 시장이 단기간 내에 온전한 회복세로 돌아서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올 주택 매매가 0.2% 내리고 전세가는 0.3% 소폭 오를 것"



채미옥 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장

올해 주택 매매가는 내리는 반면, 전세가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채미옥〈사진〉 원장은 서울사무소에서 '2016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17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처럼 밝혔다.

채 원장은 "2016년 주택 매매시장은 경기둔화와 여신심사 강화 등 대출규제 정책 영향으로 2015년도 주택시장에 비해 안정세를 보였다"면서 "11·3대책 영향으로 투기적 수요가 줄어 실수요 중심으로 안정화됐고, 지방은 일부 지역이 산업경기 침체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가능성, 경기둔화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지속과 주택담보대출 적정화 조치,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매매시장은 약보합세로 전환되고,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매매시장의 경우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 변화 가능성이 높아 주택시장의 매수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 시행, 입주물량 증가 등의 요인이 매매시장의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해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0.2% 하락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시장은 국지적 입주물량 증가로 수급 불균형 지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매매시장 약보합세와 전세 신규 입주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올해도 큰 폭의 상승 없이 안정세를 유지해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0.3%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매매거래량은 구입을 당분간 보류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여지가 있어 전년 대비 7.5만 호(7.1%) 감소한 약 98만 호로 전망됐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중견사 상반기 주요 공급 물량 ※출처: 각 건설사 취합

건설사	지역	분양예정	총 가구수	일반분양	비고
우미건설	전주 효천지구 A1블록	2월	1125	1125	
	전주 효천지구 A2블록	5월	1131	1131	
	충주 호암지구 D2블록	3월	900	900	
	충북 서산시 성원면 Aa3블록	3월	551	551	
반도건설	강원도 원주기업도시 1-2블록	4월	548	548	
	강원도 원주기업도시 2-2블록	4월	794	794	
	舊 안양경찰서 부지	4월	361	361	O/T 131실
	대구국가산단 A-4블록	5월	527	527	
	고양관광문화단지 O1블록	5월	923	923	O/T
	경기 고양지축지구 B-3블록	6월	549	549	
중흥건설	광주광역시 효천 A1블록	3월	574		뉴스테이
	원주혁신도시 C-3블록	4월	551	551	
	서울시 구로구 향동지구 1블록	5월	419	419	
금성백조주택	대구 연경지구 C3블록	5월	419	419	
	경남 사천시 동금동 38-1	3월	617	227	
	충남 보령시 명천동 B3블록	2월	480	480	



상반기에만 1만여 가구 공급

중견 건설사 4인방 잘나가네

우미·반도·중흥·금성백조 전국구로 떠올라
고양지축·원주·전주 등 일반분양 물량 많아

최근 2~3년에 걸친 분양 시장 호조세와 맞물려 전국구 건설사로 떠오른 중견건설사들이 올 상반기(2~6월)에도 활발한 분양을 이어갈 전망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 우미건설, 중흥건설, 금성백조주택 등 중견건설사 4인방이 상반기 중 전국에서 선보일 아파트는 1만469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설사는 고양지축지구를 비롯해 원주기업도시, 전주 효천지구 등 수도권과 지방 택지지구에서 분양에 나서는 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건설사별로는 우미건설이 4개 사업장에서 3707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2월 전주효천지구 A1블록에서 1125가구를 분양하고, 이어 5월에는 A2블록에서도 113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건설은 6개 사업장에서 3702가구로 뒤를 이을 전망이다. 반도건설은 원주와 경기 고양, 안양, 대구 등에서 공급한다. 먼저 4월 원주기업도시 1-2블록과 2-2블록에서 총 1342가구를 분양한다. 이어 같은 달 안양경찰서 부지에서도 35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6월에는 고양지축지구에서 549가구를 분양한다.

또한 중흥과 금성백조주택도 각각 3개 사업장에서 1544가구와 151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중흥건설은 3월 뉴스테이 물량을 시작으로 공급에 나선다. 광주광역시 효천A1블록에서 뉴스테이 574가구를 공급한다. 이어 4월과 5월 원주혁신도시 C-3블록과 서울 구로 항동지구 1블록에서 각각 551가구와 419가구를 분양한다. 금성백조주택은 대구 연경지구와 경남 사천, 충남 보령 등에서 아파트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이들 중견건설사는 최근 몇 년 동안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며 급성장했다. 오너 중심 회사의 특성인 빠른 의사 결정으로 좋은 입지의 토지를 선점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브랜드 인지도를 특화된 설계로 극복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견건설사들은 대부분 주택만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만큼 특화 평면 개발과 소비자 니즈 반영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서 "올해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향후 회사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올 집들이 23% 늘어난 36만 가구
수도권 15만 가구…전체 43% 차지

올해 주택시장에 36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물량이 쏟아진다.

13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는 지난해(29만2041가구)보다 23% 증가한 35만9860가구의 입주물량이 나온다. 이 중 수도권에서만 15만6259채가 집들이에 나선다. 전체 입주 가구 중 무려 43%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11만7415가구 △경남 3만8551가구 △충남 2만4131가구 △경북 2만3903가구 △대구 2만2607가구 △서울 2만2154가구 △부산 1만8923가구 △인천 1만6690가구 △세종 1만5432가구 △광주 1만1494가구 △충북 1만1491가구 △울산 9892가구 △전남 7167가구 △전북 6175가구 △대전 6088가구 △강원 5249가구 △제주 2498가구 순이다.

특히 지난해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동탄2와 다산, 하남미사 등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 등에서 입주가 시작돼 세입자나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층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세입자들은 입주물량이 많아지면 전셋값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실수요층은 완성된 상품을 보고 살 수 있는 데다 입주도 바로 가능하다.

이달에는 GS건설이 서울 성북구 보문동6가에 지은 '보문파크뷰자이'가 집들이에 나선다. 2월과 3월에는 반도건설이 김포한강신도시에 짓는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3차'와 '대구국가산단 유보라 아이비파크', 경기 하남시 풍산동 미사강변도시 '미사강변센트럴자이' 등이 각각 나온다. 하반기에는 대우건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1번지 일대 삼호1차를 재건축한 '서초푸르지오써밋',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5.0과 6.0' 등이 쏟아진다. 연말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다산신도시에서 '다산신도시 아이파크'가 입주물량으로 나온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美, 중국 알루미늄 보조금 WTO에 정식 제소

떠나는 오바마, 트럼프에 '마지막 선물'

"中정부 저금리 대출로 부당이익 줘… 세계적 과잉공급 유발"
8년간 생산 4배 증가 가격 46% 뚝… 재임기간 中 16회 제소
승소 땐 트럼프 무역정책 힘실려… 중국, 주정박 관세로 맞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퇴임 일주일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기름을 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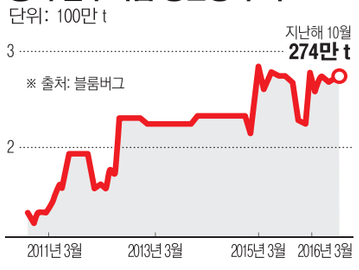
미국은 12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알루미늄 업체들에 보조금을 지원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됐다며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낮은 가격에 알루미늄과 철강, 기타 제품을 세계 시장에 범람시켜 자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공세를 강화해왔다. 미국 관리들은 특히 이번 제소에 대해, 중국 금융부문이 인위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제조업체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저금리 대출과 기타 불법 정부 보조금을 통해 알루미늄 산업에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있다"며 "이런 정책은 미국 제조업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세계적인 과잉공급을 유발했다. 우리는 이 정책으로 매일 상처를 받는 미국과 전 세계 근로자들을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는 내가 임기 첫날부터 해왔던 것"이라고 역설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알루미늄 생산능력이 2007~2015년 네 배 이상 증가하면서 글로벌 가격은 약 46% 떨어졌다"며 "중국은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간 미국의 전체 알루미늄 생산량은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37% 감소했으며 14개 알루미늄 제련소 중 9곳이 2011년 이후 생산을 중단하고 다른 한 곳은 전체 생산능력에 못 미치는 양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알루미늄 생산량 추이
단위: 100만 t



런던금속거래소(LME) 알루미늄 3개월물 가격 추이 단위: t당 달러



FT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풀이했다. WTO 제소를 통해 승리를 거두면 트럼프의 무역정책에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도 중국의 무역 불공정 관행을 고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일본, 멕시코를 미국의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 유발국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외교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무역부문에 있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오바마는 이번까지 포함해 재임 기간 무려 16차례나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중국도 미국에 대해 맞불을 놓고 있다. 중국은 전날 동물사료로 쓰이는 미국산 옥수수 주정박(곡물 찌꺼기)에 42.2~53.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예비판정의 33.8%에서 크게 높아진 것이다. 또 11.2~12.0%에 이르는 상계관세도 물리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달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거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을 WTO에 제소했다.

최근에는 제너럴모터스(GM)와 의료기술업체 메드트로닉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트럼프 충성 경쟁 합류한 아마존

"18개월간 美일자리 10만개 창출"

대선 내내 대립 베조스 CEO
당선후 태도 바꿔 공약에 화답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18개월 내에 미국에서 정규직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앙숙 관계였던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일자리 공약에 화답하며 산업계의 충성 경쟁에 합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마존의 미국 내 정규직 수는 2011년 3만 명에서 2016년에는 18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날 발표대로라면 2018년까지 정규 직원 수는 28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직군은 물류 창고 배송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은 작년 3분기에 약 20개의 새 물류 창고를 열어 현재 전 세계에 150여 개의 물류 창고를 갖고 있다. 물류 컨설팅 기업인 MWPVL인터내셔널의 마크 울프라트 회장은 "올해 20개의 물류 창고가 더 생길 것이고, 창고마다 300~6000명까지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울프라트 회장은 작년 말 쇼핑 성수기에 12만 명의 임시직을 고용한 아마존이 이 중 일부를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 직후 트위터로 발 빠르게 당선을 축하하며 화해 의사를 밝힌 베조스 CEO가 이번을 계기로 완전히 태도를 바꿨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 미국 대선 당시만 해도 베조스 CEO와 트럼프는 앙숙 관계였다. 베조스가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를 소유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언론과의 전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베조스가 언론 권력을 이용해 탈세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내가 당선되면 WP는 없어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베조스도 물러서지 않았다. 베조스는 작년 5월 WP 기자 20명을 동원해 트럼프 검증팀을 가동하도록 지시했다. 또 작년 10월에는 "트럼프는 언론을 협박한다"며 "그는 민주주의를 주변부터 파괴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트럼프 당선 직후 이틀 동안 아마존닷컴의 주가가 6% 이상 떨어진 이유다.

이로써 베조스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 알리바바그룹의 마윈 회장과 함께 트럼프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인물로 떠오르게 됐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아마존닷컴 주가 추이
단위: 달러



트럼프 랠리 역베팅했다가…

소로스, 최근 10억달러 날려



'헤지펀드 대부' 조지 소로스〈사진〉가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증시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해 베팅했다가 수주 만에 10억 달러(약 1조18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소로스는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행동에 나섰다. 그러나 소로스의 베팅은 실수였다. 오히려 증시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에 대규모 재정적 부양책을 펼쳐 미국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에 랠리를 펼쳤다. 그 결과 소로스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소식통들은 소로스가 지난해 말 신속하게 약세 포지션을 정리하고 장기 투자에서도 금융과 제조업 부문에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과거 소로스펀드매니지먼트 수석 투자전략가로 '소로스의 오른팔'로 알려진 스탠리 드러켄밀러 등 다른 억만장자 투자자들은 미국 대선 이후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소로스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이날 금융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금융주를 많이 보유한 버핏이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지금까지 67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WSJ는 드러켄밀러의 자산운용업체인 뒤켄패밀리오피스의 지난해 투자수익률이 10% 이상이었다고 전했다. 미국 대선에서 소로스와 드러켄밀러는 정반대 입장을 취했다. 드러켄밀러는 선거 당일 공개적으로 증시와 미국 달러화 강세에 베팅했다고 밝혔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대통령 자유 메달' 받고 눈물 흘리는 바이든 부통령



퇴임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8년간 러닝 메이트로 호흡을 맞춰온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걸어주고 있다. 오바마는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선택한 건 국민을 위해서도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74세가 된 노장 바이든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도 10일 시카고 고별연설에서 눈물을 보였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경제정책 현실성 없다" vs "성장으로 이어질 것"

연준 비둘기파-매파 새 정부 앞두고 이견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 사이에 트럼프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는 반면 정책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져 불확실성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연준 내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사진 왼쪽**) 총재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경제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에반스 총재는 이날 플로리다 주에서 열린 미국 생명보험협의회 회의에 패널로 참석해 "공격적 재정정책이 단기적으로 1년 정도 미국 경제성장률을 4%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20대의 노동력을 갑자기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격적 재정 확대 정책이 성장률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노동생산성을 높이거나 노동시장을 확장시킬 전략이 없으면 인플레이션 위험성만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비둘기파 인사인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트럼프 경제정책 효과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불라드 총재는 이날 경제전문방송 CNBC에 출연해 시장에서는 트럼프 새 행정부가 즉각 행동에 나서는 것을 원하지만 올해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적어도 2017년에는 기준금리가 특히 낮게 유지돼야 한다"면서 "새 행정부의 정책효과는 2018~2019년이 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매파 인사인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사진 오른쪽**) 연은 총재는 트럼프가 제시한 규제완화와 개혁은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과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타운홀미팅 연설에 나선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트럼프 정책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그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미국) 경제가 견고해지길 원한다"면서 "우리는 실업률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일자리 기회가 충만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안정적 모습을 유지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피아트크라이슬러 '제2 폴크스바겐' 되나

美,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의혹
FCA "규제 요건 충족" 부인

미국 환경당국이 폴크스바겐에 이어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스(FCA)가 배기가스 유출 조작을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면서 제2의 폴크스바겐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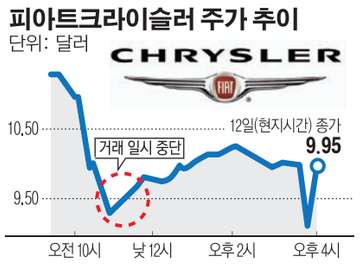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2일(현지시간) FCA가 미국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EPA는 FCA의 디젤차량 10만4000대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장착됐으며 이 차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 차종은 2014~2016년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지프그랜드체로키와 픽업트럭 닷지램1500으로 모두 3000cc 엔진을 탑재한 모델이다. 신시아 자일스 EPA 집행국 담당관은 "차량의 배기가스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탑재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EPA는 캘리포니아 주 대기자원위원회(CARB)와 함께 FCA의 배기가스 조작 의혹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미국 환경당국의 의혹 제기에 FCA 주가는 장중 한때 18% 급락해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는 피아트와 크라이슬러가 합병해 증시에 상장한 2014년 10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FCA는 해당 혐의를 즉각 부인했다. FCA 미국법인은 성명을 내고 자사의 디젤 차량이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한다"며 EPA의 판단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적극 협조해 디젤차량이 규제를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FCA 최고경영자(CEO)도 이날 긴급 콘퍼런스콜을 열고 EPA가 자사의 배기가스 조작 의혹을 제기한 시점이 "매우 이상하다"면서 "정말로 화가 난다"고 말했다.

자일스 EPA 담당관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FCA가 문제의 차량 1대당 4만4539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총 벌금액이 최고 46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피아트크라이슬러 주가 추이
단위: 달러



터키, 100만달러 부동산 구입 외인 시민권 부여

터키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12일(현지시간) 국가 기관지에 게재했다고 현지 도안뉴스통신이 보도했다. 새해 들어서도 리라화 가치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자본유출이 빨라지자 터키 정부가 고육책을 내놓은 것이다.

터키는 테러 공포와 정치 불안의 여파로 신음하고 있다. 터키 리라화 가치는 새해 들어 하락폭이 12%에 달하며 작년 7월 쿠데타 실패 이후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더해져 신흥국인 터키의 자본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를 막고자 터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약 100만 달러(약 11억7700만 원) 이상 터키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에게 3년 이상 이를 되팔지 않는 조건으로 시민권이 주어진다. 또 터키 은행에 잔고를 300만 달러 이상 3년 이상 유지한 자, 200만 달러 이상 투자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 등 외국인도 시민권을 얻게 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인터넷기업 광고시장 독식…규제안 검토"

4월 임기 마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네이버 작년 3조 육박… 지상파 방송사 1조6000억
"구체적 방안 연구해 차기 방통위에 의견 전달할 것"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을 열고 인터넷 규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제공 방통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을 포함한 전통 미디어를 제치고 막대한 광고수익을 올리는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등 인터넷 기업이 방송을 앞지르고 매우 큰 광고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터넷 기업은 자율 규제 정도만 있었지 거의 규제가 없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규제안을 연구해 차기(4기) 방통위에 의견을 넘겨주겠다"고 덧붙였다.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 규제안을 내놓기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최 위원장은 조심스럽게 관련 분야의 규제 필요성과 당위성을 내비쳤다. 그는 "인터넷 규제는 기업의 반발이 나올 수 있고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여러 측면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SNS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검색·동영상 서비스 등을 토대로 고효율 광고 상품을 선보이면서 국내외에서 전통 매체의 광고 실적을 훨씬 앞지른 상태다. 예컨대 네이버의 작년 광고 매출은 2조9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들의 작년 TV 광고 매출 1조6628억 원에 머물고 있다. 네이버가 약 1.8배 많은 셈이다.

최 위원장을 포함한 3기 방통위 위원들은 올해 3~6월에 임기를 마친다. 3월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 김석진 삼임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최성준 위원장은 4월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고삼석 상임위원은 6월에 임기를 마친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탄핵 정국 속 후임자 인선이 늦어질 공산도 존재한다. 자칫 정책 업무의 공백화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국회의 조치에 따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제도 개선의 큰 틀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며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등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불길속 일가족 5명 구해낸 원만규씨 'LG 의인상' 수여



LG복지재단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시 주택가 화재현장에서 본인의 크레인으로 화마 속 베란다에 갇힌 일가족 5명을 구한 원만규(51·사진) 씨에게 'LG 의인상'과 상금을 수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8시경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 주택가에 있는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4층에 거주하는 일가족 5명이 집 안의 불길과 연기를 피해 베란다로 대피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소방사다리차를 이용해 일가족 구조를 시도했으나, 건물 주변의 전선에 걸릴 위험이 있어 사다리를 올리지 못한 채 구조 작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퇴근길에 현장을 목격한 원 씨는 본인 소유의 크레인을 몰고 왔다. 원 씨는 크레인에 소방대원들을 태워 베란다로 올려 보내 베란다에 갇혀 있는 일가족을 구조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송영록 기자 syr@

원조 아이돌 S.E.S 바다 9살 연하 사업가와 결혼



1세대 걸그룹 S.E.S의 리더 바다(본명 최성희·사진)가 9살 연하 사업가와 3월 결혼한다.

12일 소속사 마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바다는 3월 23일 서울의 한 성당에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프랜차이즈 사업가와 웨딩마치를 울린다.

바다도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족들과 지인들의 응원 속에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남편으로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며 "저도 이제 가정이라는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더 좋은 노래를 들려 드리고 더 좋은 모습 보여 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적은 손 편지를 올렸다.

바다의 결혼으로 S.E.S는 슈와 유진에 이어 바다까지 모두 '품절녀'가 된다.

한편, S.E.S는 14년 만에 재결합해 지난달 공연을 펼치고 이달 새 앨범 '리멤버'를 발표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춘천지검 사무국장 정순철 △울산지검 〃 김성수 △제주지검 〃 권태균 △부산동부지청 〃 박천홍 〈전보〉 △법무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예정) 윤득영 △대구고검 사무국장 이영호 △부산고검 〃 김영창 △광주고검 〃 최상환 △서울동부지검 〃 유승준 △서울남부지검 〃 김정옥 △서울북부지검 〃 허웅 △의정부지검 〃 양흥수 △수원지검 〃 정연익 △대전지검 〃 임상원 △부산지검 〃 김진우 ◇검찰부이사관 〈승진〉 △대검찰청 집행과장 윤권호 △서울고검 총무과장 정동진 △대구고검 〃 김정호 △광주고검 〃 김영일 〈전보〉 △법무부(통일교육원 파견 예정) 김종일 △고양지청 사무국장 김붕회 △순천지청 〃 홍현기 △부산고검 총무과장 배종궐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용관 △법무부(세월호배상및보상지원단) 김재영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실(인천지검 인천공항분실) 김기성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강신광 △서울북부지검 〃 유동호 △서울서부지검 〃 한상임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김영규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이동희 △인천지검 사건과장 김성범 △인천지검 집행과장 조화익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마재익 △수원지검 〃 오장수 △춘천지검 총무과장 박희상 △원주지청 사무과장 강종식 △청주지검 사건과장 박시우 △울산지검 〃 이원태 △창원지검 수사과장 이종현 △전주지검 집행과장 한재영 〈전보〉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최대진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홍승모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성찬오 △〃 관리과장 이형봉 △〃 과학수사기획관실(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실) 조창희 △〃 디지털수사과 권영준 △〃 감찰1과 이인주 △서울고검 관리과장 유정우 △광주고검 사건과장 고이주 △서울중앙지검 집행제1과장 양우덕 △〃 집행제2과장 이연성 △〃 기록관리과장 조의곤 △〃 피해자지원과장 이제동 △〃 수사제1과장 전병렬 △〃 수사지원과장 강갑진 △〃 조사과장 오만옥 △〃 공판과장 김천규 △서울동부지검 수사과장 장병인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장동준 △〃 수사과장 박천섭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기성호 △〃 집행과장 이홍룡 △〃 조사과장 이상남 △〃 수사과장 오종희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박종철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김취관 △〃 수사과장 김용운 △〃 고양지청 총무과장 조현철 △인천지검 총무과장 이길재 △〃 조사과장 김동규 △수원지검 총무과장 노희동 △〃 사건과장 김웅용 △〃 검사직무대리 안동선 △〃 검사직무대리 장정호 △〃 성남지청 수사과장 서영종 △〃 여주지청 사무과장 김창수 △〃 안산지청 총무과장 김태현 △〃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문복남 △〃 안양지청 총무과장 전효수 △대전지검 총무과장 신정호 △〃 조사과장 박영규 △〃 검사직무대리 배을섭 △〃 홍성지청 사무과장 이영철 △청주지검 총무과장 김운상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신범수 △부산지검 집행과장 김문곤 △〃 수사지원과장(부산서부지청 개청준비단) 신종근 △〃 조사과장 국태홍 △〃 조직범죄수사과장 이상민 △〃 마약수사과장 임환용 △〃 검사직무대리 강균일 △〃 동부지청 총무과장 이철수 △〃 동부지청 수사과장 이이득 △울산지검 수사과장 이진만 △창원지검 마산지청 사무과장 안붕익 △광주지검 총무과장 김희곤 △〃 집행과장 김형관 △〃 검사직무대리 노상래 △전주지검 수사과장 이은묵 △〃 정읍지청 사무과장 은희견 △제주지검 총무과장 원응복 △〃 집행과장 김두길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대구지검 김영상 ◇보건연구관 〈승진〉 △대검찰청 과학수사2과 정재철 ◇검찰사무관 〈신규채용〉 △서울고검(대검찰청 수사지원과) 윤대석

◆KB금융지주 〈승진〉 △브랜드전략부장 문승철 △KB 이노베이션 HUB 유닛장 박종대 〈전보〉 △리스크관리부장 최철수 △미래금융부장 문영은 △보험유닛장 이강복

◆KB국민은행 〈부점장급 승진〉 ◇부장 △신탁운용 강금원 △자본시장 강민혁 △브랜드전략 김진영 △WM기획 김효동 △스마트전략 박형주 △상품혁신 송병철 △시스템운영 신광섭 △구조화금융 이갑섭 △프로세스혁신 이성준 △기술금융 최종수 ◇센터장 △영등포하이테크종합금융 김규영 △대출실행 김기엽 △방배PB 김성학 △달성공단 종합금융 김용석 △김포골드밸리종합금융 김용운 △ACS 김종수 △가락동종합금융 김한순 △구미공단종합금융 배정호 △여신관리 오만진 △목동PB 이송복 △청담PB 장명화 △업무지원 장지수 △가산IT종합금융 전홍철 △본리동종합금융 정한대 △오창종합금융 진익철 △송도PB 하예용 ◇수석심사역 △기업여신심사부 김난영 △기업여신심사부 박동업 △여신심사본부(CIB심사Unit) 양정필 △기업여신심사부 육창화 △기업여신심사부 임동규 ◇영업부장 △명동대기업금융센터 영업3부장 진기섭 ◇지점 개설준비위원장 △배곧신도시 한만준

부음

▲김태희(삼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태영(명성기전 대표)씨 부친상 =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02-3410-6909

▲김복일(전 우리은행 지점장)씨 별세, 치완(우정사업본부 근무)·민경(독수리약국 약국장)·수영(일산백병원 교수)씨 부친상, 정연창(베스타스자산운용 부대표)·함정욱(LH성형외과 원장)씨 장인상 = 1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5일, 02-2227-7587

▲이상욱(순천향부천병원 비뇨기과 교수)·지연(창문여고 교사)씨 부친상, 한언덕(AD 애니메이션 디렉터)·성주현(뉴질랜드 거주·의사)씨 장인상 = 12일, 서울대병원, 발인 14일, 02-2072-2014

▲김성갑(프로야구 SK 와이번스 수석코치)씨 모친상 = 12일, 울산하늘공원, 발인 14일, 052-255-3800

▲정현희(서예가)·도현(한화건설 고문)·성하(고흥 금산초 교장)·은숙(광주시교육청 근무)·은희(신상계초 교사)·중호(경기 효양고 교사)씨 부친상, 이성원(서울신문 정책뉴스부 기자)씨 외조부상 = 12일,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발인 14일, 061-951-1004

▲정연학(경동엔지니어링 이사)·연웅(한화갤러리아 차장)씨 부친상 = 12일, 대전보훈병원, 발인 14일, 042-935-0444

▲박광규(괴산군 농업정책실 유기농산업팀장)씨 모친상 = 12일, 충주의료원, 발인 14일, 043-871-0780

▲김동화(충북도 공보관실 주무관)씨 부친상 = 12일, 강원 양양장례문화원, 발인 14일, 033-671-0404

▲손원일(미국 거주·자영업)·원천(서울신문 문화부 전문기자)씨 모친상, 이길원(자영업)·이수연(자영업)씨 장모상 = 1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02-2227-7566

"마지막 바람은… 여러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굿바이 오바마, '트윗 대통령' 올랐다

리트윗 74만회로 역대 최다
기존 '트윗대장' 트럼프 눌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가진 고별연설 중 눈물을 닦아내고 있다. 시카고/AF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고별 연설 후 올린 트윗이 역대 최다 리트윗 횟수를 기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퇴임 전 고별 연설을 한 직후 대통령 공식 트위터 계정인 @POTUS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내 마지막 바람은 처음 바람과 같습니다. 믿어 주세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을"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트윗은 11일 정오 시점에 50만 회 이상 리트윗됐고, 12일 시점에는 74만 회 넘게 리트윗됐다. 트위터의 닉 파실리오 대변인은 "이런 리트윗 수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그동안의 모든 트윗을 웃도는 리트윗 수"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2015년 6월 미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올린 메시지가 최다 리트윗 기록이었다.

현재 @POTUS 계정의 팔로워 수는 1300만 명 이상이며,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 계정인 @BarackObama는 8000만 명이 넘는다. 이 계정은 지난 2012년 오바마의 재선 성공 이후 리트윗 회수가 거의 100만 회에 이른다. 대통령 공식 트위터 계정인 @POTUS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게 인계된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내털리 포트먼, 남녀배우 출연료 차별 폭로

"영화 '친구와 연인사이' 찍을 때 상대 배우가 나보다 3배나 많아 할리우드, 여성에 주는 기회 적어"



'레옹'으로 유명한 미국 여배우 나탈리 포트먼〈사진〉이 할리우드의 남녀 출연료 차별 관행에 불만을 토로했다.

포트먼은 11일(현지시간) 공개된 패션지 '마리클레르' 영국판 인터뷰에서 과거 공동 주연을 맡았던 남자 배우의 출연료가 자신보다 3배 더 많았다고 폭로했다.

마르클레르에 따르면 포트먼은 2011년 영화 '친구와 연인사이(No Strings Attached)'에 함께 출연했던 애슈턴 쿠처의 출연료가 자신보다 3배 많았다고 말했다. 포트먼은 영화를 제작할 당시 이러한 출연료 차이를 알았으나 당시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했다. 포트먼은 "화를 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우리는 돈을 많이 받아서 항의하기 어렵지만 (출연료) 차이는 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이 각각 더 또는 덜 유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할리우드에서 남녀 출연료 차별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스타급 여배우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공론화하고 있다. 2015년에는 배우 제니퍼 로런스가 여배우의 출연료가 남자 배우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했다.

당시 로런스는 2013년에 개봉한 영화 '아메리칸 허슬'에 출연하며 영화 수익의 7%를 출연료로 받았지만, 그와 비슷한 분량으로 출연한 브래들리 쿠퍼, 크리스찬 베일, 제레미 레너 등 남자 배우들은 이익의 9%를 받았다며 자책하는 글을 공개했다. 그는 주변 시선을 의식해 남성 동료처럼 공격적으로 협상하지 않아 자신의 수입이 적었다고 털어놨다.

배수경 기자 sue6870@

中상하이서 배우는 'KB 경제교실'



KB국민은행은 이달 9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어린이·청소년 100여 명이 참석한 'KB글로벌리더 대장정' 경제캠프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KB글로벌리더 대장정 경제캠프는 2006년부터 11년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함께 진행해온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펀드에 가입한 어린이·청소년이 참여 대상이다. 이번 100명을 포함해 그간 총 3774명이 상하이 경제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현지의 대학 및 과학기술관, 동방명주, 예원 등을 탐방해 중국 경제와 문화를 배웠으며, 외국인과의 소통을 통한 소비 체험과 물가 체험을 통해 경제 논리를 학습했다. 사진제공 KB국민은행

잉글랜드 前축구대표팀 감독 그레이엄 테일러 심장마비 별세



그레이엄 테일러 전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감독이 12일(현지시간)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테일러 감독은 1944년 영국 노팅엄셔 워크솝에서 스포츠 기자인 토머스 테일러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축구를 시작한 그는 1962년부터 1972년까지 하위 리그 팀인 그림즈비 타운 FC와 링컨 시티 FC에서 수비수로 뛴 뒤 이른 나이에 은퇴했다.

테일러 감독은 선수 은퇴 후 28세의 어린 나이에 링컨 시티 FC의 감독으로 부임하며 5년간 팀을 이끌었다. 이후 1977년 4부리그 팀 왓포드의 감독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왓포드를 4부리그에서 1부리그로 이끌며 명장 반열에 올랐다. 1984년엔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결승전에 진출하기도 했다.

왓포드에서 성공적인 나날을 보낸 테일러는 1987년 아스톤 빌라의 감독으로 취임해 1990년까지 활약했고, 1990년부터 1993년에는 잉글랜드 국가대표 지휘봉을 잡기도 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영웅은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 〈10년 만에 감독 복귀한 멜 깁슨〉

할리우드 통신



박 흥 진
영화평론가
할리우드 외신기자
협회 회원

배우이자 감독인 멜 깁슨(60)은 술에 취해 유대인을 욕하고 동성애자 혐오 발언을 하고 애인을 폭행해 할리우드의 '페르소나 논 그라타'(기피인물)가 되다시피 했지만 영화 하나는 잘 만든다. '아포칼립토' 이후 10년 만에 다시 메가폰을 잡은 전쟁영화 '핵소 고지'(Hacksaw Ridge-2월 한국 개봉 예정)가 그 좋은 예이다. '핵소 고지'는 제7일 안식일 교회 소속이어서 신앙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고 의무병으로 태평양전쟁에 참전한 미군 데스몬드 T. 도스의 혁혁한 무공실화이다. 필자가 본 전쟁영화 중 가장 치열하고 참혹하고 사실적이다.

깁슨과의 몇 차례 인터뷰 때마다 느끼는 점은 그의 정서가 불안정하다는 것. 좌불안석에 황소 눈알을 굴려가면서 고함을 지르다시피 하며 답하는 것을 보면 겁이 날 지경이다. 그러나 최근 베벌리 힐스의 포시즌스 호텔에서 만난 깁슨은 세월 탓인지 정서가 많이 안정된 것 같았다. 그는 인도 도사 같은 수염을 계속해 쓰다 듬고 몸과 손으로 큰 제스처를 하면서 시치미를 뚝 뗀 유머까지 섞어 힘차게 대답했다. 체격만큼이나 안으로도 매우 건장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영화의 어느 점이 마음에 들어 감독하기로 결심했는가.

"나는 이 영화를 전쟁영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이 필히 가져야 할 사랑의 얘기이자 형제를 결코 해치지 않겠다는 사랑의 얘기다. 또 자기 목숨을 남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의 얘기다. 비폭력주의자인 데스몬드 도스는 지상의 지옥인 전장에서 폭력과 핍박과 차별의 물결을 거슬러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사랑을 보여준 선험적이요 순수한 사람이다. 이것이야말로 영웅정신의 절정이라고 하겠다. 각본을 읽었을 때 이런 얘기가 내 심장을 꿰뚫고 들어왔다."

△이런 훌륭한 얘기가 왜 이제야 만들어졌나.

"데스몬드가 지극히 사적인 사람이어서 자기 얘기를 영화로 만들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평생 한 번도 영화관에 가지 않은 사람이다. 1948년부터 영화인들이 이 얘기를 영화로 만들려고 접촉했으나 그는 거절해왔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자 마음이 누그러져 영화화 판권을 다니는 교회에 넘겼고 교회는 조건을 달아 영화화를 허락했다. 데스몬드는 자기 얘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 **태평양 전쟁 실화 바탕 '핵소 고지' 전장에서 폭력·핍박·차별을 거슬러 영혼을 아름답게 가꾼 사랑 이야기**
>
> **영화의 임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또한 교육하며 정신을 고양하는 것 이 영화가 그런 일을 할 것이라 믿어**



인도 도사 같은 수염을 기른 멜 깁슨. 10년 만의 감독 복귀작이지만 "한 번 배우면 잊지 않는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서 다시 타니 편하고 기분 좋다"고 말한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 세상에 이 영화가 무엇인가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그렇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영화는 전쟁을 둘러싼 작품이지만 사랑의 얘기이기 때문이다. 내가 전쟁의 참상을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까닭은 전쟁에서 싸운 사람들을 치하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관객들에게 전쟁의 참혹상을 알려주고, 전쟁의 공포를 초월하기 위해선 영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싶었다. 모든 것을 견디고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지닌 영화다."

△영화가 다룬 것은 오키나와 전투인데, 어디에서 찍었나.

"오키나와는 너무 멀어 못 갔고 호주에서 찍었다.

△데스몬드는 부상한 일본군도 구출했는데 사실인가.

"그렇다. 그가 고지에서 일본군을 들것에 실어 아래로 내릴 때 미군들은 중지하라고 했으나 그는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터널에서 심하게 부상한 일본군을 만나자 모르핀을 놔줘 고통을 덜어주었다. 이런 것이야말로 영화의 본질이다."

△감독은 데스몬드같이 용감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난 비겁자다. 나도 가끔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을 하긴 하나 또 때론 그렇지 못하다. 내가 이 얘기를 좋아하게 된 까닭도 데스몬드의 용기에 감복했기 때문이다. 난 상상 속에서도 그가 간 길을 가지 못할 것이다. 그의 용기야말로 얘기할 만한 게 아닌가."

△비폭력주의자인 데스몬드가 왜 전쟁에 지원해 나갔다고 보는가.

"그는 전쟁은 증오했지만 그의 형제들을 사랑했다. 우린 전쟁을 증오해야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사실이다. 불행하게도 전쟁은 늘 있어왔고 또 늘 있을 것이며 인류는 아마도 전쟁으로 멸망할지도 모른다. 전쟁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30~40년마다 일어나 우리의 귀싸대기를 때리곤 한다. 그리고 한두 세대 동안 쉬었다가 또 일어난다."

△한때 할리우드의 스타로 명성을 날렸는데 그것이 그립기라도 한가.

"그럼 내가 지금은 아니란 말인가. 명성이란 사라지게 마련이고 난 과거에도 그것을 그렇게 즐긴 편은 아니다. 그것 말고도 내게는 다른 삶이 있다. 아이들과 로맨틱한 일들이 내겐 아직도 제대로 있다."

△데스몬드는 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상징적으로 영화는 감독의 삶의 무기인가.

"영화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영감을 불러일으켜주고 그들을 행복하게도, 슬프게도 만들 수 있다. 난 영화의 임무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교육하며 정신을 고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늘 이 이론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 영화가 그런 일을 해냈다."

△할리우드를 떠나 있을 때 무엇이 가장 그리웠나.

"영화로 얘기하는 것이었다. 그러지 못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하곤 한다. 글을 쓰고 요리를 하는데, 요리란 그 자체가 남과 공유할 수 있는 얘기이다. 가능한 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창조적 필요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당신은 젊은 여자로부터 행복과 사랑을 찾는 것 같은데 그들이 삶에서 잃은 것이라도 채워주는가.

"나이란 숫자일 뿐이다. 내 애인(24세의 로잘린드 로스-승마선수로 현재 깁슨의 아이를 임신)은 어른이고 우린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있다. 그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다."

△삶에서 무엇이 가장 자랑스러운가.

"내 일이다. 다음은 내 아이들."

△영웅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자기를 버리는 희생이다. 성공적인 결혼을 한 사람들은 영웅이다. 그들은 희생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영웅적인 것은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블로그:hjpark1230.blogspot.com



제7일 안식일교회 집총거부자가 자원입대하여…

참혹하고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가 강처럼 흐르는 전쟁영화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장에 있는 것 같은 사실감을 느끼게 한다. 묘하게도 이런 피와 고통의 영화 주인공은 종교 때문에 집총을 거부한 실제 인물인 의무병 데스몬드 T. 도스(1919~2006). 그는 양심적 집총 거부자로, 최초로 명예무공훈장을 받았다.

버지니아 주 시골 태생인 도스의 민간인으로서의 삶과, 태평양전쟁에 나가 오키나와 전투에서 전우들의 생명을 구하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운 얘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원제 Hacksaw Ridge는 오키나와 전투 중 가장 치열했던 곳인 핵소 리지로, 우라소에 근처의 큰 언덕 이름이다.

도스는 조국을 위해 1942년 자원 입대하지만 믿음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고 의무병을 자원해 차별과 배척을 당한다. 결국 의무병으로 오키나와 전투에 투입된 도스는 아군이 철수한 핵소 고지에 혼자 남아 부상한 아군과 일본군 등 모두 50여 명을 구출한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앤드루 가필드, 샘 워싱턴 등 출연.

한국여성 인물사전 〈32〉박어우동

조선 성종 때 나라를 뒤흔든 스캔들 뜯어보면 엄격한 유교 윤리의 희생자

박어우동(朴於宇同, ?~1480)은 오늘날 '자유부인'의 표상이다. 여러 차례 영화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는 여성이다. 15세기 중반 양반인 아버지 박윤창과 어머니 정씨(鄭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남편은 효령대군의 손자인 태강수 이동이었다. 즉, 어우동은 양반 집안 출신으로, 왕실의 사람을 남편으로 둔 지체 높은 여성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일하는 젊은 은장이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이후 어우동은 여종 차림으로 은장이에게 다가갔고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 이 사실을 안 남편은 어우동을 친정으로 내쫓았다. 이때부터 어우동은 여종의 도움으로 많은 남성들과 간통했다. 때론 첩이나 기생 또는 여종으로 행세하면서 남성들을 만났고, 종친에서부터 관료, 생원, 서리, 남자 종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성종실록'에 실린 어우동 사건의 전말이다. 하지만 어우동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속내를 들춰보면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다. 남편이 기생 연경비를 사랑한 나머지 어우동을 제멋대로 내친 것이었다. 1476년 종부시가 국왕에게 "종친으로서 첩을 사랑하다가 아내 허물을 들추어 제멋대로 버렸습니다" 하고 고발했다. 남편은 이 일로 고신(품계 또는 관직 임명장)을 빼앗기고 어우동과 재결합하라는 왕명을 받았다. 하지만 3개월이 채 못 되어 남편은 고신을 돌려받았고, 4년 뒤인 1480년엔 어우동이 죄인이 되어 있었다.

어우동은 본인 스캔들이 국왕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음란한 여성으로 낙인찍혔다. 오랜 논의 끝에 성종은 후세의 본보기를 위해 사형을 선고했다. 성종은 양반 여성의 재혼을 막기 위해 재가한 여성의 아들 및 손자는 벼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든 왕이었다. 어우동을 극형에 처한 것도 여성에 대한 통제의 일환이었다. 1480년(성종11) 어우동은 목매달아 죽이는 형벌인 교형에 처해졌고 조선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서도 이름이 지워졌다. 어우동이 교형을 받은 뒤 어우동과 관련된 양반 남성들은 대부분 풀려나왔다. 천한 기생처럼 행동한 어우동 때문에 오히려 많은 남성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이 났다.

역사 속 인물의 삶은 그 사회를 읽어내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어우동은 한 시대가 추구한 이데올로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 유배형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형벌이 죽음까지 간 데에는 성종의 의지가 컸다. 이런 측면에서 어우동에 대한 재조명은 역사적 맥락 안에서 그녀의 생애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투데이 역사·여성·미래 여성사박물관 건립추진협의회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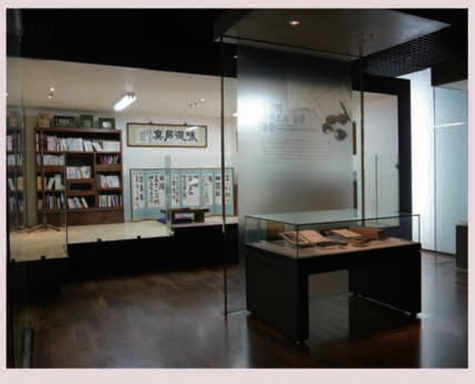


COVER STORY 무엇으로 살까?
PART1. 별거 부부 vs 별난 부부 "따로 또 같이 사는 것은 우리의 축복"
PART2. 시니어타운 부부 "커뮤니티가 건강한 삶을 만들어요"
PART3. 탐나는 인생 무대 위 부러움은 찰나, 나만의 행복은 오래오래
PART4. 결혼 2막 "아내는 제 인생의 큰 선물"
PART5. 백년해로 부부 "아직 끌어안고 자요"



창간 2주년 특별기획
대한민국 액티브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설문조사

문학관 답사기 | 황순원 문학관
소년, 소녀의 아련한 기억 속으로…
어린 시절, 소설을 읽다 사랑에 빠져버린 첫 작품이 바로 〈소나기〉다. 푸르른 무밭하며 실개천 돌다리길, 소년과 소녀의 사랑 이야기는 소나기처럼 온몸에 녹아들었다. 애잔하지만 환상적인 사랑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 소설 〈소나기〉.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의 따뜻함을 간직한 그곳에 찾아갔다.



브라보가 만난 사람

철저한 '합리주의자' 함익병의 문제적 발언과 만나다
대한민국은 뇌수술이 필요한 상태

이 풍진세상 희망가를 부르는 소리꾼 장사익
인생, 3할대만 쳐도 성공하는 거예요

파독광부 민석기씨
수천m 땅 밑에서 내가 파낸 것은 자긍심

맞춤형 건강 도시락으로 새해 식단 관리하기
그저 가볍게 한 끼 때우기 식사가 아닌 내 건강상태까지 고려한 맞춤 도시락이라면 어떨까? 물론 가장 중요한 '맛'을 빼놓을 수는 없다. 프리미엄 도시락 전문점 '바빈더박스'에서 찾은 맛과 건강, 그리고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계기로 본지 제작에 참여한 김홍관 시니어 인턴기자가 직접 체험하며 맛본 도시락 후기까지 담아봤다.





이봉규 心治 데이트
70대가 되어도 최강 동안 소리를 듣고 싶다
자기애로 똘똘 뭉친 장은숙은 고독한 생활을 즐겼다. 고독했기에 행복했고 그래서 늙지 않는 것일까. 올해로 60세인 장은숙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최강 동안을 자랑하며 '함께 춤을 추어요'와 '당신의 첫사랑' 등 여전히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동년기자의 페이지
강신영·백외섭·박종섭·정원일·박혜경 동년기자

우리 세대 이야기
성경애·김종억·이경숙·신용재·조왕래 동년기자

박원식이 만난 귀촌
경북 예천군 풍양면 시골에 사는 전용숙씨 부부
가급적 소박하게, 가급적 고요하게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임철순의 **즐거운 세상**

피로는 회복하는 게 아니올시다

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른하고 피곤한 걸까? 밤에는 1~2시간마다 잠에서 깨고, 회사에 출근하면 그때부터 졸리고, 낮이든 밤이든 술 마시면 취하고(!), 설단(舌端) 현상이라나 뭐라나, 아는 말인데도 혀끝에서만 맴돌다 누군가 작은 힌트라도 줘야 기억나고…이거 뭔가 크게 잘못돼 가는 게 아닐까?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생각났다. 1월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 이거 내가 잘못된 건가 그렇게 할 일은 안 하는데 그런 거를 일일이 이런 병이 있으니까 이렇게 치료했지, 이건 이런 식으로 했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 (중략) 그리고 또 피곤해가지고, 특히 순방하고 이럴 때는 시차 적응을 못하면서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원래 박 대통령의 말은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야 알아들을 수 있다지만 골자는 심신이 피곤하다는 것이다. 근데 나는 해외 순방도 하지 않았고 시차 적응도 필요 없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결국 박 대통령의 다음 말에서 답을 찾기에 이르렀다.

"그러면 피곤하니까 또 다음 날 일찍 일을 해야 되니까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영양주사도 놔줄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큰 죄가 되는 것같이 한다면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뭐냐, 제가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다 기록을 해가지고, 주사를 무슨 영양주사나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할 때에도 그건 의사가 알아서 처방하는 거지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환자가 알겠습니까?"

맞다. 나는 영양주사는 맞지 않았지만 피로가 바로 회복되곤 했기 때문에 계속 피로한 것이다. 도대체 피로를 왜 회복하나? 해소하거나 제거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박카스가 나온 이후 한결같고 줄기차게 피로를 회복하고 있다.

말도 안 돼. 또 혼자서 지적질을 하다가 피로 회복을 영어로는 뭐라 하는지 궁금해 찾아보니 'fatigue recovery'였다. 제대로 된 영어로는 'fatigue solution'이나 'fatigue settlement'일 텐데 우리말 표현이 틀리니 번역도 엉터리일 수밖에. 물리학에서는 고체 재료가 작은 힘을 반복해서 받는 바람에 틈, 균열이 생겨 마침내 파괴되는 현상이 피로다. 천자문에는 마음이 불안하면 신기가 불편하다는 심동신피(心動身疲)가 나온다.

최순실은 최순실대로 국정농단을 하느라 피로가 누적됐던지 공황장애를 '공항장애'라고 하더니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심신이 회폐하다'고 썼다.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피폐를 말한 건지도 모른다. 아니면 훼손돼 없어지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훼폐(毁廢)인가?(이 말을 쓰려다가 잠깐 잘못 표기한 거라면 언어 수준이 대단하다고 봐야 한다.)

에이 시시해. 겨우 '피로 회복' 이런 거나 시비 걸어 글을 쓰다니. 그런데 이 글을 쓰다가 피마불외편추(疲馬不畏鞭箠)라는 말을 알게 됐다. 지친 말은 채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궁지에 빠지면 엄벌을 각오하고라도 범죄를 저지른다는 뜻이라니 아아, 절묘하구나. 박 대통령은 역시 지친 말인가 보다.

우리는 지금 박 대통령 때문에 피로가 심하다. '대통령 피로현상'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듯이 피로는 피로할 때 바로 해소해야 한다. 회복하지 말고!

주필 fusedtree@

이필상 칼럼



서울대 겸임교수·전 고려대 총장

영혼 없는 경제정책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란이 많다. 정부는 경제운영의 초점을 위기관리에 맞춰 재정지출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정부 예산의 조기 집행 6조 원,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 7조 원,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8조 원 등의 재정 보강을 1분기에 추진하여 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서둘러 막을 방침이다. 가계부채 부도, 보호무역 강화 등 대내외 악재가 연초에 집중하여 경제불안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정책방향은 옳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보강 정책이 경제위기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위기는 경기순환적인 위기가 아니라 주력 산업들이 무너져 공급체제가 와해하고 동시에 수출과 내수가 감소하여 수요기반이 추락하는 구조적 붕괴 위기이다. 따라서 자금 흐름이 기업 투자와 창업 그리고 소비로 흐르는 경제구조 개혁이 없으면 정부의 팽창정책은 경제를 더 부실하게 만들어 부도를 재촉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재정보강 정책의 주요 내용은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세제 지원, 농수축산 소비 촉진, 부부에 대한 세금 감면, 신혼가정 전세자금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등이다. 이러한 임기응변적 경기부양책은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펴온 단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산업 전반이 국제경쟁력을 잃어 붕괴 위기를 맞았는데 정부는 자금을 계속 투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 4년 연속 추경을 편성하는 기록까지 낳았다. 펌프 자체가 고장 난 상태에서 마중물만 퍼붓는 격이다.

그 결과 국가 부채를 늘려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부실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동반 부도의 재앙을 겪을 위험성이 크다. 2015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2.6%를 기록했다. 2016년 경제성장률은 2.7%로 추정된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낮춰 잡아 3년 연속 2%의 저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사상 최악의 결과이다. 보통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

대외 악재의 쓰나미에 휩쓸려 경제가 머지않아 파국의 위기에 휩싸일 수 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중국 기업들의 위협이다. 기술, 가격 등의 경쟁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목을 죄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하던 대기업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다. 여기에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로 경제 보복을 확대하고 있어 설상가상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우리나라 산업 붕괴의 뇌관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 경제를 해치는 일은 무조건 막겠다는 것이다.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드, 지엠 등 미국 주요 자동차 회사의 멕시코 공장 건설과 이전을 막았다. 심지어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 대해 멕시코 대신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같은 차원의 통상 압력을 가할 경우 우리 경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이 경제패권을 놓고 무역전쟁을 벌일 경우 우리나라 산업은 진퇴양난의 덫에 걸린다. 이와 함께 브렉시트, 환율전쟁 등으로 외국 자본이 나가고 금리가 오를 경우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의 부도, 부실 기업의 붕괴로 금융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최순실 사태가 빚은 정국 불안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대통령 탄핵, 정권 교체 등의 정치 소용돌이에 빠져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문제는 경제의 중심을 잡아야 할 정부가 시한부의 운명에 처해 영혼이 없는 정책만 되뇌고 있는 것이다. 백척간두의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올해 정책방향은 경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위기를 오히려 부추기는 정책을 다시 내놓았다.

국민이 촛불을 든 이유는 국정농단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정부가 정국혼란을 이유로 올바른 경제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이 크다. 경제위기는 대통령 본인이건 대통령 권한대행이건 관계 없이 찾아온다.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경제의 중심을 잡고 산업 구조조정과 성장동력 창출 등 근본적인 경제 정책부터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늘의 인물 1월 13일 정몽주

역성혁명에 맞서 고려를 지키려 한 성리학자

정치는 명분 싸움이다. 하물며 '역성혁명(易姓革命)'에선 말해 무엇 하랴.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1338.1.13~1392.4.26)는 역성혁명을 꿈꾸는 정도전과 목숨을 건 명분 싸움을 벌인다.

원래 둘은 부패한 고려 조정을 개혁하려는 정치적 동지였다. 당시 백성의 현실은 비참했다. 밖으로는 왜구의 침입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안으로는 권문세족의 횡포로 가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 이런 고려를 바꾸기 위해 이들은 발 벗고 나선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거센 반발에 한계를 깨닫고 신진무력 세력의 수장 이성계와 손을 잡는다. 이들은 기득권 세력을 무력화하며 고려를 되살리는 데 진력한다. 우왕과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세우는 것까지도 이들은 함께한다.

하지만 정도전이 역성혁명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알아챈 정몽주는 정도전과 정치적 대척점에 선다. 사실 조선 건국 이후 정도전이 펼친 재상중심 통치, 과전법 이행 등은 정몽주가 주장했던 것이었다. 이들 사이에 정책적 이견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면 정도전은 왜 역성혁명을 꿈꿨을까. 정도전은 고려 말 9년여의 유배 생활에서 당시 고통 받던 백성들과 삶을 함께하며 민심이 고려 조정을 떠난 것을 목격한다. 그에게 민심이 떠난 고려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은 절체절명의 명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충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던 철저한 성리학자 정몽주는 정도전의 명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정몽주는 개혁만으로도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왕을 죽이면 불충이 되므로 오히려 민심이 떠날 수 있고, 하루아침에 고려가 멸망하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명분을 앞세운다. 정도전의 어떤 회유에도 뜻을 굽히지 않던 정몽주는 1392년 정도전을 따랐던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게 죽임을 당한다.

김대환 편집위원 daehoan3000@

온라인 와글와글



영화 티켓 평균가격 8000원대 "불법다운 받아 볼 수도 없고…"

영화 티켓 평균 가격이 8000원을 넘어섰다. 12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극장 총 관객 수는 2억1702만 명으로, 전년(2억1729만 명)보다 27만 명(0.1%) 감소했다. 하지만 극장 매출은 전년보다 277억 원(1.6%) 늘어난 1조7432억 원을 기록했다. 영진위 측은 관객 수가 줄었음에도 매출액이 늘어난 것은 1인당 평균 영화 관람 요금이 2015년 7895원에서 지난해 8032원으로 1.7%가량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네티즌은 "결국 관객들만 봉인가?", "할인 안 받으면 1만~1만1000원을 내야 영화 한 편을 보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영화 티켓도 비싸고 팝콘도 비싸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카드로 보는 세상



"나는 열일곱 살이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려 숨진 채 2월의 차가운 강바닥에 버려졌습니다." 16년 전 꽃다운 여고생의 목숨을 앗아간 '나주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이 11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칫 영구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했습니다. 그러나 황산 테러로 숨진 여섯 살 태완이로 인해 만들어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라는 '태완이법', 그리고 많은 이들의 관심과 검경의 재수사가 소녀의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XgZuyX



이슈&인물

한국사회, 망한 사람 찍어누르는 시스템 너무 견고하더라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조봉구 회장

승승장구하던 수출강소기업
2008년 키코사태로 법정관리
"기업 안전망 스스로 구축"
협회 만들고 초대 회장 맡아

현재의 기업회생 시스템은
채무조정만 하고 방치하는 것
고정자산 고집하는 금융관행
회생하다 죽는 게 中企 현실



조봉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장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수많은 기업이 타살됐다"며 "기업 회생 시스템은 한 번 실패한 사람을 다시 뛸 수 있도록 일으켜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법정관리 1년만에 조기졸업

조봉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장은 그 자신이 법정관리까지 갔던 중소기업 코막중공업의 대표이기도 하다. 1997년 설립된 코막중공업은 10년 만에 전 세계에 50개국 이상의 거래처를 둔 강소 수출기업으로 부상했다. 승승장구하던 회사는 2007년 말 거래은행의 권유로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 2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내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1년이라는 전례 없이 짧은 기간에 법정관리를 졸업한 조 회장은 같은 회생 위기의 기업들을 돕고자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를 만들어 초대 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코막중공업 대표실에 들어서자 커다란 책상 맞은편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빼곡히 적힌 월별 출하·선적 현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조봉구 회장이 활짝 웃으며 나왔다. 인터뷰는 재기에 성공한 중공업 장비 수출기업의 대표가 아니라, 기업들의 재기를 내 일처럼 돕는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이하 협회)'의 회장으로서 그의 얘기를 들어봤다.

"이제 기업의 안전망은 기업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조 회장은 한국에서 중소기업인으로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분노와 아쉬움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봉구 회장은 "정부가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회생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회를 직접 만들었다"고 밝혔다.

은행이 팔아 놓고 '환투기' 몰아

2000년대 코막중공업은 자사 기술력으로만 전 세계 11개국에 사업장을 운영하던 '잘나가는' 건설용 중장비 업체였다. 그러나 2008년 키코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10개의 사업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인 키코에 대해 은행이 안내하는 대로 환헤지되는 좋은 상품으로 알고 가입했다고 한다.

"은행에서 그런 상품을 팔면 안 된다"며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그가 말했다. "기업을 위한 좋은 상품이고 환율도 쳐준다고 안내해 기업들이 줄줄이 가입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환율이 급등하자 건실한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경영진은 구속됐다. 코막중공업도 2012년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이듬해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조 회장은 당시를 '필사의 탈출'이었다고 회상했다. "날마다 칠판에 오늘의 목표를 쓰고 자산을 처분해 밀린 세금을 내고 결제 대금을 청산했다"는 그는 "결국 어떤 도움도 못 받았지만 필사의 노력으로 회생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당시 은행연합회에서 보도자료를 돌려 '기업이 환투기를 했다'고 몰아갔다. 이를 본 국민은 '저런 기업들은 망해도 싸다'며 싸늘해졌다"며, "그렇게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는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업들은 그 와중에도 계속 망해갔다"고 회상했다. 2010년 금감원 발표에 의하면 키코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규모는 738개사, 금액 3조2247억 원인 반면, 조 회장이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키코피해대책위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1000여 개 기업, 10조 원 규모다.

"그때 다짐했다. 키코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나는 이 비정상적인 사회 흐름을 바꾸는 데 헌신하겠다고 말이다"고 조 회장은 힘주어 말했다.

'두 번째 기회' 주는 사회를 위해

조 회장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2013년 4월 법정관리에서 졸업하자마자 12월, 회생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중소기업들을 돕고자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를 개소한 것. 2014년 10월에는 법무부 인가도 받았다. 코막중공업이 법정관리하에 있을 때 알게 된 변호사, 회생 관련 법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과 비슷한 경험과 의지를 가진 기업인들을 조 회장이 직접 발로 뛰며 규합했다.

그는 "한 번 망해 보니까 망한 사람 찍어 누르는 시스템이 너무 견고하더라"며 "집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부도를 겪은 기업인들은 실의에 빠져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 눈에 잘 안 보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IMF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 시기 수많은 사업체가 '타살됐다'고 표현했다. 지난해 개성공단 사태를 언급할 때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키코 사태 이후 8년이 지났지만 개성공단을 보면 바뀐 게 없다. 국가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아마 그쪽 기업인들은 거의 졸도 상태에 있을 것이다."

현 회생 제도에 대해 그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채무 조정만 하고 방치하기 일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회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기에 처한 기업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을 낙오자로 낙인찍고 제쳐버리는 대신, 부족한 부분을 분석해 다시 뛸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는 시스템인 것이다.

자금·금융…'회생 선배들'의 컨설팅

협회의 시도는 전방위적이었다. 공청회나 포럼 개최를 비롯해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벌이고, 회생 기업에 파견돼 멘토링을 제공하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국책연구소나 대학의 기술을 회생 기업에 중개하는 역할도 한다. 회생 절차에 있는 기업이 가장 먼저 희생시키는 부문이 R&D이기 때문이다.

"회생 절차에 있는 기업은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기술이나 마케팅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한 그는 "협회는 이 부분을 진단하고 해당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다른 기관이나 제도를 발굴해 연결해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재기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선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 기초는 기술"이라고 말하며 '유한기술' 기업의 사례를 소개했다. "기초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회생을 하면서 기술에 투자를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협회는 유한기술이 필요로 하는 로봇 관련 기술을 보유한 성균관대학교를 발굴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협업해 대학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까지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준정부기관인데, 정부 기관이 회생 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것이 그의 설명이다. 단순히 기업의 수요와 제도의 공급을 발굴해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협회가 유관 기관을 설득하고 앞장서서 제도를 만들어 나간 것이다.

금융 지원도 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말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회원사 두 곳에 유암코로부터 82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법정관리 위기에 처한 갑산메탈은 지난해 3월 처음 협회를 통해 3000만 원의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했다. 큰돈은 아니었지만 이 과정을 본 엔젤투자자들로부터 1억 원, 1억5000만 원 단위의 투자가 이어졌다. 같은 시기 유암코가 1000억 원 규모 법정관리 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있음을 알게 된 조 회장은 유암코와 접촉을 시도했다. "갑산메탈이 점점 살아나 수익률이 좋아 유암코에 갔는데, 처음엔 규모가 너무 작아 거절됐다"며 "그런데 유암코의 기업 규모가 작아서 운영 비용이 많이 들면 금리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설득해서 유치를 성공시켰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무렵 유암코의 자금을 수혈받은 갑산메탈은 빚을 청산하고 회생에 성공했다.

자산유동성 지원이 기업회생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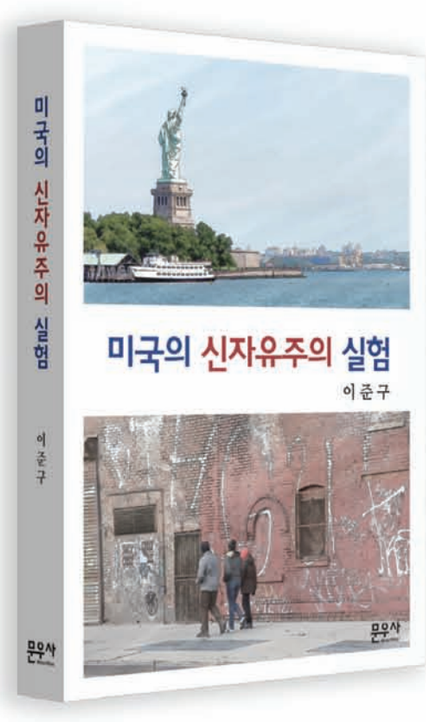
그는 특히 "회생시스템은 금융 관행에서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업이 고정자산이 있고 유동자산이 있는데 국내 은행은 대부분 고정자산만 담보로 인정하고 대출한다"며 "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해외 사업장을 운영할 때, 현지에서 사업계획서를 짜서 캐시플로(현금유동성)를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 사업자금을 마련했다. 이들은 신용과 캐시플로를 기반으로 철두철미하게 위험을 분석한 후 대출을 해줘서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말에 따르면 고정자산만 고집하는 '전근대적' 금융 관행은 기업 회생에 큰 걸림돌이 된다. "보통 기업은 유동자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회생에 들어간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은 은행의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정자산의 비율을 지나치게 크게 유지한다. 묶인 자산을 유동화해야 재기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라며 "경매로 넘어가면 처분 과정만 2년 넘게 걸린다"고 설명했다. "회생하다가 죽는 것이 국내 중소기업"이라며 씁쓸하게 웃는다.

300명 정도의 개인과 사업체 회원으로 구성된 협회는 이제 운동화 끈을 묶고 출발하는 단계다. 조 회장은 "회원사의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 기업들의 회생 방안을 짜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 100개의 회사를 살리는 것이 목표"라는 조 회장은 "우리 협회가 해산하고 재기에 성공한 사장님들과 골프나 치러 다니고 싶다. 그날까지 우리는 음지에서 열심히 움직이겠다"며 싱긋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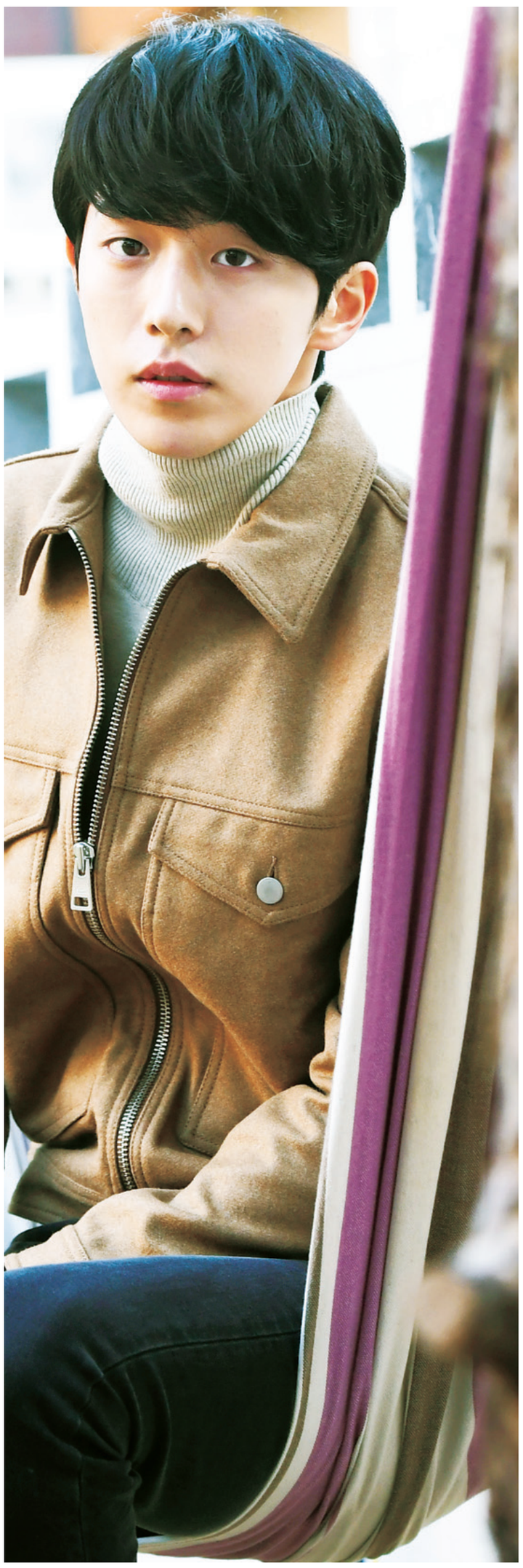
전효점 기자 gradually@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편집인 김상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정치경제부 (02)799-2665 정책사회부 (02)799-2663 자본시장부 (02)799-2658
기업금융부 (02)799-2648 산업1부 (02)799-2664 산업2부 (02)799-2641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미국의 대대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의 환상은 여전히 유효한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의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미국의 감세정책 실험은 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는가?
한국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정책들의 배경에 도사리고 있는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의 분별없는 '미국 따라 하기'에 울리는 경종
정부는 악덕(vice)이며 시장은 미덕(virtue)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념의 광풍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거세게 휩쓸고 지나갔다. 특히 지지부진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분출되어 나오는 곳일수록 신자유주의의 마력은 더욱 큰 힘을 발휘했다. 하지만 시장에 모든 일을 내맡기는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믿음은 마치 진공상태처럼 모든 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가공의 신념일 뿐이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함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환상은 어느 정도 깨져버린 상태가 되었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규제 철폐와 세금 감면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진실을 서서히 깨달아 가고 있다. 그러나 보수층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아직도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미련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한 예로 감세는 미덕이고 증세는 악덕이라는 단순하고 맹목적인 논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 책은 보수세력이 정치와 사회의 헤게모니를 잡으면서 최상위 1%에 속하는 '가진 자의 천국'이 된 결코 닮지 말아야할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담고 있으며 성숙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문의 : 031-901-6542


이준구 지음 | 288쪽 | 문우사 | 값 18,000원

“친엄마 재회신 갑자기 눈물 왈칵… 그런 감정 처음”



인 터 뷰 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끝낸 **남주혁**

남주혁은 MBC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를 통해 여심(女心)을 사로잡는 사랑 표현법을 선보이며,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시켰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성 넘치는 수영선수 정준형 역으로 분해 건강하고 풋풋한 이미지를 내세웠고, 청춘물의 남자주인공으로 우뚝섰다. 그는 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작품에서 확인시켜줬다. 능청스러운 연기는 자연스러웠고, 김복주(이성경 분)를 향한 사랑의 감정에는 충실했다. 최근 배우로 한 단계 성장한 남주혁을 만나 연기와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시청자들 “대리 설렘 느낀다”는 말 가장 좋아
작품 몰입하는 집중력 생겨 첫 주연작 큰 소득
신인상 욕심 났죠…가장 잘보이는 곳에 전시

△작품이 끝난 후 기분은 어떤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크다. 주연작이었는데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재밌게 만들고 싶었고, 오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한 작품이 ‘역도요정 김복주’였다.”

△마지막 촬영 후 이성경과는 어땠나.

“이성경도 많이 아쉬워했다. 애착이 많았던 작품이다. 서로를 격려했던 순간들이 많아서 행복하고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다. 같이 의지하고 상의하며 만든 장면들이 많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여성 시청자들이 유독 좋아했다. 시청자 반응을 체감했나.

“SNS 등을 보면서 체감했다. 시청자들이 준형과 복주를 보고 ‘설렘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해줘서, 연기를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라서 참 좋았다. 시청자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웃음).”

△친어머니를 만나 오열하는 장면에서 인생 연기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작품에서 친엄마가 어릴 때 준형이를 두고 캐나다로 떠났다. 그 감정을 15회 대본이 나올 때까지 가슴 한 편에 묻어뒀다. 감정을 쌓아오다 보니 리허설인데도 눈물이 났다. 친엄마로 나온 윤유선 선배님의 눈을 보자마자 울었다. 기분이 이상했다. 겪어보지 못한 감정이었고, 연기하면서 손발이 떨리더라.”

△이번 드라마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스스로 평가해본다면.

“작품에 몰입하는 집중력이 생긴 것 같다. 캐릭터에 푹 빠지게 되니까 감정에 몰입하게 되더라.”

△5%대 시청률이 아쉽지는 않나.

“배우 스태프 모두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고 기억에 남는 재밌는 작품을 만들자고 했다. 시청률은 높지 않아 아쉽지만, 시청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냥 작품 자체에 몰입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

△시청률은 아쉬워도 화제성 순위는 늘 상위권이었다. 드라마가 사랑 받은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나.

“작가님과 감독님의 힘이 컸다. 대본이 말도 안 될 정도로 입에 착착 달라붙었다. 감독님은 애드리브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셨다. 15회 때, 운동장 뽀뽀신도 내 아이디어다.”

△지난해 MBC ‘연기대상’ 신인상을 수상했다. 연기 인생에 변화가 있다면

“사실 신인상을 타야겠다는 욕심은 있었다. 잘해서 꼭 받아보고 싶었는데 진짜 받게 되니 기분이 좋았다. 한 편으로는 부담감도 생기더라. ‘더 열심히 하자’는 마음을 먹게 해준 상이 신인상이었다. 향후 연기 인생에도 좋은 동기 부여가 될 것 같다.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트로피를 뒀다(웃음).”

글/서현진·사진/윤예진 기자 sssw@

인기는 시청률 순이 아니에요… 풋풋한 스토리로 대중에 힐링

5%대 저조한 시청률 불구 화제성 매주 상위권
체대생들의 20대 성장통 시청자 공감 이끌어내

‘역도요정 김복주’는 밝고 건강했다. 이성경, 남주혁, 경수진 등이 그려낸 청춘의 사랑은 풋풋했고, 꿈을 향한 성장 스토리는 따뜻했다. 비록 시청률은 부진했지만 ‘역도요정 김복주’만의 매력으로 대중에게 힐링을 안겨줬다.

다만, 대진운이 아쉬웠다. ‘역도요정 김복주’는 지난해 11월 16일 전지현, 이민호 주연의 SBS ‘푸른 바다의 전설’과 아동치매라는 독특한 소재를 선보인 KBS2 ‘오 나의 금비’와 동시간대 나란히 첫 방송됐다. ‘역도요정 김복주’는 종영까지 한 자릿수 시청률에 그쳤고, 지난 11일 방송된 마지막회의 시청률 역시 5.2%(닐슨코리아, 전국기준)로 큰 반등 없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시청률로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역도요정 김복주’는 매주 화제성으로 타사 경쟁작들보다 우위를 선점했고, ‘청춘’들의 다양한 매력이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다. 온라인 뉴스, 동영상 조회수, 트위터 버즈량, 블로그 등으로 분석한 프로그램 화제성 지수에서 매주 3~5위권에 랭크되며 온라인상의 뜨거운 이슈 몰이를 입증했다. 이는 각 방송사 드라마를 총망라해 집계된 수치인 만큼 인기는 시청률 순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역도요정 김복주’는 서사가 강한 이야기나 장르물 소재들이 각광받고 있는 최근 드라마와 비교해 가벼운 소재, 유쾌한 흐름으로 편안한 시청의 재미를 안겨줬다. 특히 밝고 명랑한 한얼체대 역도부 유망주 김복주(이성경 분)와 훈훈한 외모에 귀여운 매력까지 겸비한 수영부 에이스 정준형(남주혁 분)이 보여준 일상적인 티격태격 로맨스는 우울하고 웃을 일 없는 현 시대에서 오히려 특별하게 다가왔다.

무엇보다 극 중 캐릭터와 꼭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배우들의 활약은 시청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스무 살을 갓 넘긴 나이지만 또래의 다른 학생들보다 분명한 꿈을 가진, 그래서 조금은 더 치열한 인생을 살고 있는 체대생들의 모습은 20대의 성장통을 담아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서현진 기자 sssw@

‘공조’ VS ‘더킹’… 설 연휴 어떤 영화 보실래요?

공조, 현빈·유해진 남·북 형사로… 따뜻한 웃음 장전
더킹, 검찰·조폭·정치권 유착… 시국과 맞물린 스토리

정면대결이다. 제작 단계에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두 영화가 신년 벽두부터 스크린에서 뜨겁게 만난다. CJ엔터테인먼트와 JK필름이 내놓는 ‘공조’와 지난해 ‘부산행’으로 1000만 관객의 기쁨을 맛 본 NEW가 준비한 ‘더 킹’이 그 주인공. 최상의 배급 날짜를 만지작거리던 두 영화는 18일 동시 출격을 결정하며, 관객들에게 선택의 즐거움·어려움을 예고했다. 인기 배우들이 ‘공조’한 두 영화 중, 설 연휴 ‘더 킹’이 될 작품은 어느 쪽일까.

◇ ‘공조’, ‘의형제’의 그림자를 넘어서라 = 먼저 현빈-유해진 주연의 ‘공조’. 남한으로 숨어든 북한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 남북 최초의 공조수사가 시작되고, 임무를 완수해야만 하는 특수부대 북한형사(현빈)와 임무를 막아야만 하는 생계형 남한형사(유해진)의 예측할 수 없는 팀플레이가 이 영화의 줄거리다.

‘역린’ 이후 스크린 차기작 선택에 고심하던 현빈이 북한 특수부대 출신 형사를 맡아 절도 있는 액션을 선보인다. 실제로 지난 10일 공개된 시사회에서 현빈의 절도 있는 액션이 시종일관 흥미를 자아냈다. 지난해 697만 명을 모은 ‘럭키’로 흥행력을 입증한 유해진 특유의 유들유들한 연기력은 ‘공조’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다. 자칫 민망할 법한 장면들이 유해진을 통과하며 유머로 승화됐다.


공조


더킹

송강호-강동원이 일찍이 공조했던 영화 ‘의형제’의 그림자가 엿보이는 것이 ‘공조’가 넘어야 할 산. 이러한 허들을 ‘공조’는 따뜻한 웃음으로 넘겠다는 각오다. 이는 이 영화의 제작을 맡은 JK필름을 통해서도 짐작 가능하다. 평단으로부터는 그리 환호 받지 못했지만, 관객들에게만큼은 탄탄한 지지를 받아 온 JK필름이다. 대중이 원하는 바를 짚는 것은 분명 귀한 재능이다.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웃음과 감동으로 관객을 빨아들이겠다는 각오다.

◇ ‘더 킹’ 영화보다 영화같은 현실, 악재일까 호재일까 = 이에 맞서는 ‘더 킹’의 면면도 화려하다. 일단 출연 배우들의 이름에서부터 예매 욕구를 자극한다. 조인성과 정우성, 두 ‘조각’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일단 시각적인 즐거움은 채워질 것이란 예측이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로 충무로 블루칩으로 떠오른 류준열이란 변수도 있다. 조인성-정우성과는 다른 팬덤을 ‘더 킹’으로 이끌 것으로 보인다.

‘더 킹’을 기대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감독 한재림이다. ‘연애의 목적’, ‘우아한 세계’, ‘관상’을 본 이들이라면 한재림 감독이 만들어 갈 또 하나의 세계에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다. 김우형 촬영감독의 가세는 ‘더 킹’의 작품성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린다. 1970년대 당시 화면의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 김우형 촬영감독은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아나몰픽 렌즈를 풀세트로 사용했다는 후문. ‘만추’, ‘암살’ 등에서 증명된 그의 감각을 지켜보자. 근현대사를 오갈 영화는 검찰-조직폭력배의 유착, 정치권과의 연계 등으로 현 시국에 묵직한 한 방을 던질 예정이다. 영화보다 영화 같은 현실이 ‘더 킹’에게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지점이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



새 드라마 주연 꿰찬 아줌마들

‘사임당’ ‘완벽한 아내’ ‘마더’…
6편 예정 ‘아줌마’ 활약 기대
탐정물·시간여행 소재도 다양

예술가 아줌마부터 복수의 화신이 된 아줌마, 탐정 아줌마에 인생 역전 아줌마까지 각양각색 남다른 사연을 가진 아줌마들이 안방 극장을 찾는다.

2017년 드라마 시장의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는 ‘아줌마’다. 주인공의 엄마, 드라마의 배경에서 나아가 극을 이끌어가는 중심 축의 아줌마 작품들이 대거 편성된 것. 주말드라마, 일일드라마 등 가족 시청층이 많은 시간대뿐 아니라 평일 미니시리즈에서도 아줌마들의 활약이 예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면 위로 드러난 작품만 SBS 수목드라마 ‘사임당 빛의일기’, KBS2 ‘완벽한 아내’, tvN ‘내일 그대와’·‘마더’, 사전제작 드라마 ‘품위있는 그녀’, 최근 캐스팅이 진행 중인 ‘열혈주부 명탐정’ 등 6편이다. 오는 26일 ‘사임당 빛의 일기’를 시작으로 2월 ‘완벽한 아내’, ‘내일 그대와’가 방송된 후 매달 아줌마가 주인공인 작품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vN ‘내일 그대와’


KBS2 ‘완벽한 아내’

그렇지만 아줌마들이 극 안에서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작품별 색깔은 전혀 다르다.

‘사임당 빛의 일기’는 현재와 과거를 오가며 현모양처의 상징으로 불린 사임당 신 씨의 삶을 재해석하고, 예술가로서의 삶과 사랑을 그린다. ‘완벽한 아내’는 남편과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슈퍼우먼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통쾌한 복수를 펼치는 과정을 담고, ‘내일 그대와’는 시간여행자 남편의 은밀한 사생활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 초짜 아줌마의 추적기와 알콩달콩 로맨스가 메인 콘셉트다. ‘품위있는 그녀’는 준재벌가 미모의 전업주부가 미스터리한 요양사와 만남을 통해 상류사회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드라마평론가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과거에도 엄마, 아줌마는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지만 지금은 그 느낌이 다르다”면서 “가족의 해체, 그 중심에 엄마, 주부의 역할이 커지다 보니 이런 작품들이 더욱 늘어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최근 등장한 드라마들을 보면 20대 초반 젊은 여성을 내세웠을 때보다는 주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들이 시청률이 높았다”면서 “주부들의 로맨스, 복수 등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

“23년산 찰떡 팀워크로 낮 2시 청취자 싹쓸이한~거죠~”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 10주년 맞은 개그그룹 컬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우리 주위엔 그렇지 않은 것들도 꽤나 있다. ‘컬투쇼’도 그중 하나다. 정찬우, 김태균으로 구성된 개그그룹 컬투는 10년 동안 매일같이 SBS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이하 컬투쇼)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안겨왔다. 수많은 레전드 사연들을 배출하는 데에는 개그맨 출신인 이들의 입담이 주효했다. 남녀노소 모두를 포용하는 정찬우, 김태균의 탁월한 모사 능력과 사연을 차지게 읽어주는 말솜씨는 사연들의 재미를 배가시켰다.

◇컬투, ‘컬투쇼’로 ‘웃찾사’ 미친소를 뛰어넘다 = 정찬우, 김태균은 MBC 5기 공채 개그맨으로 1994년 연예계에 데뷔했다. 팀으로서 활동을 계속해온 이들은 SBS ‘웃찾사’에서 2004년 첫선을 보였던 ‘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코

MBC 공채 동기… 1994년 11월 결성
‘미친소’ 흥행 이후 라디오로 활로 모색
맛깔나는 입담 10년 연속 ‘청취율 1위’

너에서 미친소 캐릭터로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런 만큼 컬투는 ‘미친소’를 뛰어넘는 흥행작을 쉽게 만들지 못했다. 이에 컬투는 새로운 분야에서 활로를 모색했다. 바로 라디오였다. 2006년 5월 1일 첫 방송된 ‘컬투쇼’는 라디오 프로그램 사상 처음으로 매 회마다 방청객 다수를 두고 방송을 진행하는 독특한 포맷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다수의 라디오 방송이 감성적이고 사연자와 감정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과 다르게 ‘컬투쇼’는 청취자의 사연을 개그맨다운 맛깔나는 입담으로 소개하며 주목받았고, 그해 곧바로 동시간대 청취율 1위로 올라섰다.

◇10살 ‘컬투쇼’의 힘, 23년산 컬투 팀워크 = ‘컬투쇼’가 방송되는 동안 우리나라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즐비했다. 노무현·김대중 등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으며, 메르스 사태가 터지고 세월호 참사가 빚어졌다. 최근에는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그러는 동안 ‘컬투쇼’를 ‘컬투쇼’답게 유지시킨 건 컬투의 23년차 팀워크였다. 정찬우는 “김태균과는 1994년 11월달부터 계속해왔다. 부부보다도 같이 있는 시간이 길다”고 말했고, 김태균은 “라디오뿐만 아니라 공연도 함께한다. 23년 동안 팀으로 생활하며 몸에 팀워크가 뱄다”고 짚어냈다. 그는 또 “우리만의 호흡이 대중의 귀와 눈에 보이는 것 같다”며 ‘컬투쇼’의 인기요인을 분석했다.

◇UCC·단편영화… 11살 ‘컬투쇼가 그릴 미래는? = ‘컬투쇼’는 지금까지 총 5차에 걸친 UCC콘테스트를 개최해왔다. 청취자들의 사연으로 만든 기발하고 재미있는 UCC는 온라인상에서 많은 화제를 낳았다.

지난해 10년을 맞은 ‘컬투쇼’는 ‘단편영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청취자 사연을 바탕으로 영화화를 진행했고, 영화감독 우문기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시나리오를 다듬어 배우 오정세 박지영 지수 주연으로 영화 ‘돌고돌고돌고’를 완성했다.

‘돌고돌고돌고’는 두시탈출 컬투쇼 사연 중 운전을 좋아하는 어머니가 중고차를 구입한 뒤 운전하다 차가 멈추지 않아 생긴 에피소드를 재미나게 각색한 10분

10돌 맞아 사연 각색 단편영화 도전
‘돌고돌고…’ 단편영화제서 최우수상
올해엔 ‘OSMU’ TV프로그램 도전

분량의 단편영화다. 운전하는 어머니와 차를 세우기 위한 카센터 직원들의 노력이 익살스럽게 표현됐다. 지난해 10월 ‘대단한 단편영화제’에 출품돼 최우수상 격인 ‘금관상’을 수상하는 저력을 보였다.

다양한 콘텐츠 활용법을 보여온 ‘컬투쇼’는 11주년을 맞아 또 다른 변화를 꿈꾸고 있다. 김태균은 “‘컬투쇼’ 사연을 TV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등 원 소스 멀티 유즈(OSMU; One Source Multi Use)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TV쇼와 라디오가 연결된다면 그것 또한 형식의 파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UCC 동영상이 ‘컬투쇼’의 화제몰이에 큰 도움이 됐다”며 콘텐츠 재생산이 가진 힘을 높이 평가했다.

‘컬투쇼’는 2006년 동시간대 청취율 1위, 2007년 FM 전체 청취율 1위, 2008년 라디오 전체 청취율 1위를 달성했다. 현재도 독보적인 수치로 10년 연속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 중이다. 어느새 10주년을 맞았고, ‘컬투쇼’와 함께 청취자들도 자라왔다. 앞서 진행된 1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정찬우는 “청취율 2위가 되면 관두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는 아직까마득하게 먼 일인 듯하다.

김예슬 기자 yeye@

살아있는 헤비메탈 전설… 폭발적 무대

메탈리카 ‘하드와이어드…’ 음반 발매 기념 내한공연… 고척 스카이돔, 떼창의 도가니

“메탈은 자유야. 8비트만 계속 들으면 솔직히 지루하거든.” 밴드 메탈리카의 내한 공연 현장. 뒷좌석 남성 관객들로부터 록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 소리가 들려 왔다. 옆 구역에 자리 잡은 외국인 관객들은 일찌감치 새우깡을 뜯어놓고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취재진 사이에서는 들뜬 인사가 오고 갔다. 묘한 긴장과 설렘이 한 데 어우러졌다.

11일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헤비메탈의 살아있는 전설 메탈리카의 내한 공연이 열렸다. 1998년 첫 내한 이후 벌써 네 번째로 한국 팬들과 조우하게 된 메탈리카는 “우리가 서울에 왔다. 다시 만나 반갑다”는 말로 관객들을 반겼다.

이번 공연은 메탈리카의 열 번째 스튜디오 음반 ‘하드와이어드…투 셀프 디스트럭트(Hardwired…To Self-Destruct)’ 발매를 기념해 열린 것이다. 메탈리카는 새 음반 수록곡 ‘하드와이어드’와 ‘아틀라스 라이즈(Atlas, Rise)!’를 시작으로 ‘새드 벗 트루(Sad But True)’, ‘웨어 에버 아이 메이 룸(Wherever I May Room)’, ‘언포기븐(Unforgiven)’ 등 신구 히트곡을 아우른 세트리스트로 열기를 고조시켰다.

모두가 자유로웠다. 지정석 곳곳에서 흥을 참지 못한 관객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광경이 포착됐다. 옆자리 관객들은 연신 “퍼킹 어섬(Fucking Awesome)”, “퍼킹 원더풀(Fucking Wonderful)”을 외쳤다. 무대 위도 마찬가지였다. 기타에 넋을 쏟아 부을 기세로 연주를 이어가던 커크 해밋은 급기야 기타를 밟아 누르고 카메라에 문질러대기까지 했다. 보컬 제임스 헷필드는 객석을 향해 “다들 살아 있나. 살아 있는 게 어떤 느낌인지 내게 말해 달라”고 외쳤다.

하이라이트는 단연 ‘마스터 오브 퍼페츠(Master of Puppets)’ 무대였다. 노래의 시작을 알리는 기타 연주가 시작되자 공기의 흐름이 달라졌다. 관객들의 기대와 열정과 동경이 한 데 어우러졌다. 시종 합창을 멈추지 않던 관객들은 심지어 기타 연주까지 허밍으로 따라 부르며 뜨거움을 보탰다. 무대에서 쏘아올린 레이저 불빛이 광활한 공연장을 가로지르며 장관을 연출했다.

앙코르곡 ‘배터리(Battery)’, ‘낫싱 엘스 매터스(Nothing Else Matters)’, ‘엔터 샌드맨(Enter Sandman)’을 끝으로 2시간 동안 펼쳐진 낙원이 막을 내렸다. 나이와 성별과 국적을 초월해 엉켜 놀던 관객들은 왁자지껄 떠들어대며 자리를 떴다. 공연장 앞에 잔뜩 줄지어선 택시들이 ‘자, 이제 놀이 끝’이라고 말하는 듯 했지만, 달아오른 열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제공 A.I.M

첫 번째 싱글 ‘나 너 좋아해?’ 발표한 걸그룹 소나무

‘유쾌·통쾌·상쾌’ 매력에 푹~ 빠져보실래요?

이번엔 ‘3쾌’다. 유쾌, 통쾌, 상쾌한 매력으로 중무장한 걸그룹 소나무가 대세 도약을 시작한다.

소나무는 9일 각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싱글 음반 ‘나 너 좋아해?’를 발표했다. 동명의 타이틀곡을 비롯해 ‘내 맘대로 해’, ‘오렌지 카푸치노’, ‘토크 어바웃 유(Talk about U)’까지 4곡의 신곡이 수록돼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신혁 프로듀서의 참여다. 신혁은 그룹 엑소 ‘으르렁’, 샤이니 ‘드림 걸(Dream girl)’, 빅스 ‘저주인형’ 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인물. 전체적인 콘셉트를 중심으로 현대적인 사운드를 더해 캐릭터를 완성시키는 것이 신혁의 주특기다.

지난 음반 ‘넘나 좋은 것’을 시작으로 팝의 색깔을 더하기 시작한 소나무는 신곡 ‘나 너 좋아해?’를 통해 당차고 도도한 여성상을 보여준다. “어딜 가나 나를 향한 시선 이젠 당연해. 걱정 마. 난 끄떡 안 해”와 같은 ‘자빡’ 가사가 통쾌함을 안긴다.

신혁이 주조한 트랙은 다채롭게 변주되며 유쾌한 매력으로 다가온다. 도입부의 경쾌한 기타 리드 사운드를 시작으로, 흐름에 따라 트랙이 바뀌면서 듣는 재미를 더한다. 반복되는 기타 리프가 텐션을 끌어올리면 팝 댄스 분위기의 후렴구는 중독성을 담보한다. 곳곳에 배치된 멤버들의 추임새는 소나무만의 에너지를 보여주기에 더없이 좋다.

마지막 상쾌함은 두 명의 메인 보컬 민재와 하이디의 목소리로 완성된다. 달콤한 음색 덕분에 팬들 사이에서 ‘허니버터 목소리’라는 별명을 얻은 민재는 ‘나 너 좋아해?’의 부드럽게 후렴구를 리드하며 남심을 녹인다. 그런가 하면 ‘알프스 고음’ 하이디는 시원한 애드리브로 감성 매력을 보탠다.

외모적인 변신도 눈에 띈다. 데뷔 초 ‘걸스 힙합’을 표방하며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줬던 소나무는 ‘넘나 좋은 것’ 음반을 시작으로 여성스러운 콘셉트를 시도, 변화의 폭을 넓히고 있다. ‘넘나 좋은 것’ 당시 바비 인형 콘셉트로 화제를 모았던 소나무는 ‘나 너 좋아해?’에서 전작의 사랑스러움을 유지하면서도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남심을 흔든다.

이 같은 변화는 뮤직비디오에서부터 감지된다. 소나무는 첫눈에 반한 남자 마네킹을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연기, 멤버 개개인의 개성을 뽐낸다. 가사 내용에 맞는 표정연기가 관람 포인트. 웹드라마 ‘더 미라클(The Miracle)’에 출

‘히트곡 제조기’ 신혁 프로듀서 참여 화제
중독성 팝 댄스에 뮤지컬 퍼포먼스 눈길



사진제공 TS엔터테인먼트

연해 연기 경력을 쌓은 나현은 “당시의 경험이 뮤직비디오 촬영에 도움이 됐다”면서 “덕분에 표정을 통해 가사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평했다.

그런가 하면 음악 방송 무대에서는 뮤지컬을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로 시선을 끈다. 속도감 있는 전개는 화려함을 더하고 캐치한 동작과 다채로운 표정 연기는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리더 수민은 “강력한 퍼포먼스와 흔들림 없는 가창력이 무기”라면서 라이브 무대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소나무는 지난 9일 열린 쇼케이스에서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 잠시나마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업그레이드된 음악성과 물오른 비주얼로 돌아온 소나무가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이은호 기자 wild37@

"경기·인천·강원 등 전국 30곳 명품골프장 편하게 이용하세요"

유명 배우 앞세워 홍보… 수십억 '먹튀'

'자본잠식' 애니골프 박기영 대표
400여명 가입… 총 피해액 80억
업체 '예약 중단' 문자 메시지 발송
삼성회원권·에스골프 사건 유사



유사 골프회원권 사고가 또 터졌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난 지 2개월 만이다. 이번에는 서울이다. 골프회원권 거래소 대표가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잠적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로길(도곡동)에 위치한 ㈜다인회원권 박기영(48) 대표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다인회원권 박대표는 '애니골프'를 통해 유사회원권을 모집했다.

유사회원권 사기혐의로 재판 중인 삼성회원권(대표 김창석)이 에스골프틀 통해 회원을 모집한 것과 비슷하다.

유사회원권으로 골프장 예약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들에 따르면 애니골프는 전날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표가 현재 연락 두절 상태이며 예약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통보했다.

박 대표는 이달 4일 휴가를 떠났고, 돌아오기로 한 10일까지 오지 않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업체 관계자는 전했다. 골프장 예약을 하려면 대표인 박 대표의 결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표가 잠적하면서 사실상 골프장 예약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유명배우를 앞세워 애니골프가 판매한 선불형 유사 회원권은 4인 무기명에 1700만 원으로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소멸성이다. 이 유사회원권은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일대 골프장 30여 곳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유사회원권을 구매하면 예약을 해주고, 그린피 면제 혹은 그린피 5만~10만 원으로 저렴하게 라운드를 할 수 있다.

현재 이 업체에 가입한 회원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300~400명 규모다. 1인당 피해액을 2000만 원으로 잡고 단순 계산할 경우 전체 피해액은 80여억 원에 달한다.

2006년 6월에 설립된 다인회원권은 일이 터지자마자 전국 회원권거래소 회원사 모임인 한국회원권경영인협회(회장 권규원)로부터 제명을 당했다.

이 업체 서비스를 이용해 온 한 법인 관계자는 "선불형 골프회원권 상품을 사면서 2년간 96차례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약하고서 3740만 원을 납부했는데 24차례밖에 이용하지 못했다"며 "아직 28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만큼 피해를 보게 될 상황이다. 대표를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인회원권 직원들은 '이번 사고는 애니골프 대표 개인적인 일'이라고 선을 긋고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

관련업계 L씨에 따르면 "애니골프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고, 최근 박 대표가 수도권 T골프장의 회원권 분양에 성공하면서 그 돈의 일부인 수십억 원을 빼돌려 잠적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경찰에 고소장이 속속 접수돼 경찰이 박 씨의 행방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대표 박 씨를 상대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유사회원권 사건이 발생했다. 골프회원권을 사면 골프장 그린피 18만 원을 환급해 준다고 속여 500여 명에게서 가입비 52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골프회원권 판매회사인 A사 대표 서모(58) 씨, 자금관리인 이모(57)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지부장 김모(4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지난해 삼성회원권거래소(대표 김창석)가 에스골프를 통해 수백 억원의 유사 회원권을 판매한 뒤 잠적했다가 구속됐다. 김 대표는 사기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돼 재판 중이다.

이준행 동부회원권 대표는 "유사회원권은 사기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언제든지 부도를 내고 대표가 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며 "예약이 어려운 명문 골프장의 원활한 주말 예약과 함께 그린피 할인까지 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이 회원들을 유인하는 '미끼'다. 여기게 회원권 판매자들에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해 판매가 수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골프회원권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등록된 정상 회원권인지, 중개해주는 거래소가 한국회원권경영인협회 회원사인지 꼭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래야만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체형·운동 습관·스윙 시 장단점… 맞춰드립니다

던롭 '뉴 젝시오 프라임 로열' 출시
2015년 기존 모델 고객 스윙 분석
여성 골퍼 '레이디스 버전'은 별도



프리미엄 골프브랜드 젝시오가 한국 고객 맞춤형을 갖고 국내 골프팬들을 만난다. 던롭스포츠코리아(대표이사 홍순성·www.dunlopkorea.co.kr)는 한국인의 체형, 운동 습관, 스윙 시 장·단점 등을 철저히 분석해 고객 맞춤형으로 개발된 '뉴 젝시오 프라임 로열에디션'을 선보인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컬러가 돋보이는 이 신제품은 2015년 출시된 기존 모델을 사용하는 골퍼들의 스윙을 분석해 그 성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클럽제품으로 드라이버, 페어웨이우드, 아이언의 라인업을 갖추고 출시된다. 또한 여성 골퍼들을 위해 개발된 '레이디스 버전'이 별도로 출시된다.

△**더욱 가볍고 길어진 드라이버** = 드라이버는 더욱 강력한 소재를 사용하여 샤프트와 그립의 중량을 각각 2g씩 줄이고 0.25인치 길어진 샤프트를 통해 더욱 편하고 빠른 스윙을 실현시켰다. 특히 구간별 강도와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팁의 충격 흡수력을 향상시켜 구간별로 최적화된 샤프트를 완성했다. 더욱 가볍고 길어진 46인치 샤프트는 헤드스피드를 향상시켜 편안한 스윙을 돕고 비거리를 늘렸다. 특히 샤프트의 팁과 버트 부분에 가볍고 유연하며 튼튼한 신소재 스트레치 필을 적용해 유연성과 강도가 향상되어 볼의 방향성을 향상시켰다. 토우와 힐 쪽의 페이스 폭을 넓힌 윙 컵 페이스를 적용해 새로운 페이스 두께로 스윗 스팟 확대, 새로워진 솔 채널 스트럭처 등 새로운 헤드 디자인으로 높아진 관용성을 경험할 수 있게 돼 그 결과 반발력이 커졌다.

△**샤프트는 가벼워지고, 헤드는 무거워져 편해진 우드** = 페어웨이우드 역시 가벼워진 샤프트와 그립, 더욱 부드러워진 버트, 여기에 더욱 무거워진 헤드가 더해져 더욱 편하고 빠른 스윙을 실현시켰다. 특히 드라이버와 동일한 페이스 두께 구조를 사용하고 페이스 높이를 0.5mm 높임으로써 스윗 스팟을 확대했다. 또한 페이스 전체를 티타늄 합금 소재로 제작한 풀 티타늄 컵 페이스 디자인으로 페이스 전면의 반발력이 눈에 띄게 증가돼 볼 스피드를 크게 늘렸다. 낮고 깊은 무게중심 설계의 샐로 백 디자인은 높은 발사각을 실현시켜 쉽게 볼을 띄우고 더 멀리 보낼 수 있게 했다.

△**무게중심 낮춰 볼을 잘 띄우기 쉬운 아이언** = 아이언은 내부의 텅스텐·니켈 웨이트를 통해 젝시오 프라임 아이언 중 가장 낮고 깊은 무게중심을 구현해 볼을 쉽게 띄울 수 있게 되었고 넓어진 스윗 스팟으로 비거리를 증가시켰다. 또한 가벼워진 샤프트와 더욱 부드러워진 버트, 반면 무거워진 헤드로 헤드스피드는 더욱 빨라졌다. 티타늄 페이스를 솔 쪽으로 확대, 페이스 하단의 반발 성능을 향상시키고 클럽페이스 아래 부분에 맞을 경우에도 비거리 손실을 줄일 수 있게 하였으며 향상된 볼 스피드를 실현했다. 이러한 기술력의 향상으로 아이언은 기존 모델 대비 평균 비거리가 1.6야드 증가했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설 연휴는 따뜻한 마닐라로 골프 투어

엑스골프, 항공권 포함 최저 81만원대 특가 패키지 출시

'설 연휴에 어디로 가지'하고 고민이라면 엑스골프(대표 조성준·www.xgolf.com)와 함께하면 된다.

국내 최대 골프부킹서비스 엑스골프는 설 연휴를 앞두고 동절기에 인기 있는 동남아권 해외 골프투어 상품 1월 특가를 선보였다.

시즌에 상관없이 가장 인기가 높은 필리핀 마닐라 지역의 말라라얏CC는 설 연휴 주간인 오는 23~30일까지 항공권을 제외한 골프투어 패키지(일 27홀, 전일정 조·석식) 예약 시 42만 원이다. 항공권을 포함해 5일 여행으로 진행할 경우 81만9000원부터 예약 가능하다.

태국 방콕 다이너스티CC 골프투어 패키지의 경우 항공 불포함 시 오는 23~31일까지 38만 원에 예약할 수 있다. 5성급 리조트 숙박 및 전일정 식사, 사은품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해외 골프여행으로서는 꽤 합리적인 가격인 셈이다.



필리핀 마닐라 지역의 말라라얏CC 전경.



백스윙 동작의 나쁜 자세(왼쪽)와 바른 자세.

몸을 잘 비틀어야… 파워가 전달돼요

김수현의 여성골프레슨

많은 골퍼들이 체중 이동을 하기 위해 백스윙 동작에서 체중을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동작을 할 때 잘못 이해하여 잘못된 사진과 같이 무릎이 옆으로 밀리면서 체중을 이동시키는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스윙의 어느 구간에서도 무릎이 양옆으로 밀리는 현상은 없어야 합니다. 스윙에서는 회전동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릎이 옆으로 밀리지 않고, 오른발 뒤꿈치에 체중이 실리며 올바른 사진동작과 같이 어깨, 허리, 무릎이 비틀어지는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세는 몸을 비틀어 줌으로써 체중을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몸은 제대로 꼬임을 주도록 하는 것이죠. 단순히 체중만 오른쪽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처럼 올바른 동작으로 체중이동을 해 주면 꼬임이 많은 스윙을 할 수도 있고 임팩트 순간에 많은 힘을 전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폴로스루 동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임팩트를 하기 위해 체중을 다시 왼쪽으로 가져오려고 무릎이 무너지면서 스윙이 이뤄지면 온전히 힘을 다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왼쪽 무릎이 확실하게 버텨주어야 임팩트 때 가장 많은 힘을 전달하게 되는데 만약 무릎이 옆으로 밀려버리면 몸의 축이 변하게 되어 방향성, 거리 모두 잃게 되는 것이죠. 스윙 중에 양쪽 무릎은 회전동작이 되어야 하고 좌·우로 밀리는 스웨이 현상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히프가 좌·우로 비틀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클럽을 허리에 대고 백스윙 동작을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샤프트가 옆으로 밀리지 않도록 합니다.

샤프트의 모양이 사선 모양으로 될 수 있도록 동작을 취해 보는 것이죠. 샤프트의 오른쪽 끝이 뒤를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피니시 동작에서는 왼쪽 샤프트 끝이 뒤를 보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반복적으로 좌·우로 회전하는 동작을 익혀주면 실제 스윙할 때에도 옆으로 밀리는 동작이 아닌 제대로 체중을 실어주고 회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1분 골프레슨교습가

라운딩 후 짠 음식… 눈에 안 좋아요



김부기의 골퍼와 눈건강



연초가 되면 새해 다짐을 지키기 위해 헬스클럽, 금연센터 등 다짐 산업이 활기를 띤다. 모두 건강과 관련한 것이 특징이다. 필자도 정유년(丁酉年)을 시작하며 가장 큰 소원으로 가족의 건강을 꼽았다. 바쁜 진료 틈틈이 자연을 찾고 가족들과 함께 운동량을 점차 늘려볼 계획이다. 하지만 건강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천할 것이 다름 아닌 '짜게 먹지 않기'다. 소금은 인체에 꼭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고혈압, 비만, 심장질환 등 중질환의 발병률을 높인다. 짠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은 눈 건강에도 해롭다.

나트륨이 체내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수분을 끌어당겨 혈액의 부피가 커진다. 결국 혈관 압력이 커지면서 신장, 간 등 몸 속 장기에 무리를 준다.

눈도 마찬가지다. 미세혈관이 분포한 눈의 혈압이 높아지면 안구 내 혈액순환과 안방수의 흐름을 방해한다. 또한 안압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이 눌리면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녹내장이 발병할 수 있다. 안압이 갑자기 커지는 급성 녹내장의 경우 두통이나 구역질 등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만성 녹내장의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어 병이 악화된 말기에나 발견되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질병이다.

또한 짠 음식은 안구 내부의 전해질 균형을 깨뜨린다. 눈에는 카메라의 렌즈처럼 빛을 굴절시켜 상을 맺는 수정체가 있다. 전해질이 불균형해지면 수정체의 대사활동에도 문제가 생겨 투명했던 수정체가 혼탁해져 백내장이 생길 수 있다. 주로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노년성 질환이지만 최근 스마트폰, PC 등 전자기기를 가까이 하는 생활습관과 자외선 등 영향으로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한번 뿌옇게 변성된 수정체는 다시 투명해지지 않는다.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이 많이 이뤄지는데, 이때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면 원거리뿐만 아니라 근거리까지 잘 볼 수 있다.

나트륨을 배출하는 음식을 더 많이 먹는 방법도 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등 녹황색 채소를 자주 섭취하면 좋다. 녹황색 채소에는 눈의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A와 루테인 또한 풍부하다. 특히 루테인은 눈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색소의 밀도를 높여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좋은 영양소다.

온누리스마일안과원장

그 봄 그 바다… 진실이 떠오를 날을 기다리며

잊지못할 잊어서도 안될 '그날의 기록'
단원고 아이들 시선으로 '엄마. 나야.'
문학소녀 지아의 마지막 편지 '사월의…'
정부는 왜 무능했나 '신자유주의와…'
1000일 지난 '세월호' 기억하려는 책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2014년 4월 16일. 그리고 2017년 1월 9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가 진도 앞 차가운 바다에 누워 있고, 많은 국민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출판업계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책을 꾸준히 출간하며 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하루 앞둔 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세월호, 그날의 기록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진실의힘/ 2만5000원


사월의 편지
정지아/ 서해문집/ 1만2000원


신자유주의와 세월호 이후 가야 할 나라
고희선 외 13명/ 앨피/ 1만6000원


엄마. 나야.
곽수인 외 33명/난다/ 5500원

특히 가장 화제가 된 책은 재단법인 '진실의 힘'의 세월호 기록팀이 쓴 '세월호, 그날의 기록'이다. 이 책은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이 10개월 동안 방대한 기록과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물을 담았다. 2014년 4월 15일 저녁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항한 순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49분~10시 30분 세월호가 침몰할 때까지 101분간 세월호 안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생하게 재현했다. 배가 급격히 기울어졌을 때 조타실 상황과 승객들의 모습, 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도주한 선원들의 대화, 해경 경비정에 옮겨 탄 선원과 해경의 대화 등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세월호 참사를 시민의 눈으로 기록한 이 책은 '왜 세월호 안의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나', '배는 왜 침몰했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배, 어떻게 태어났나', '자동위치식별장치(AIS)와 국정원'처럼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주제들도 들여다봤다.

"곳곳에서 꺽꺽거리는 여학생들의 비명 섞인 울음이 터져 나왔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설 모 학생은 자신이 빠져나온 비상구를 돌아봤다. 스무 명이 넘는 여학생들은 서로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한 학생은 진정하지 못하고 우는 친구를 끌어안았다. 누군가 울먹이며 말했다. '나만 나왔어!'"

세월호 참사는 누구에게나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런 기억을 이처럼 기록으로 남긴 것은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에 대한 진실을 찾고자 함일 것이다.

반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풀어낸 책 '신자유주의와 세월호 이후 가야 할 나라'는 세월호 참사를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낳은 참극으로 규정한 정치사회 연구서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세월호 참사를 통해 뼈아픈 성찰과 비판을 딛고 진정으로 사람 귀한 사회를 만들어갈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들은 1970년 남영호 침몰 사고 이후 최대의 해난 참사인 세월호 참사의 전개 과정을 분석하면서, 시민 생명과 생활의 위기를 담보로 독점자본과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신자유주의로 황폐화된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았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은 사건 자체의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대참사를 발생시킨 역사적 체계와 사회구조적 모순까지 파고들어야만 '그 이후'를 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커다란 사건·사고를 거치면서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처'로 비난받아왔다.

이 책은 이 같은 비극이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인간 중심의 가치 기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 주체의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엄마. 나야.'와 '사월의 편지'는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학생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엄마. 나야.'는 단원고 아이들의 시선으로 쓰인 육성 생일시를 모았다. 총 34명의 시인이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생일에 맞춰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회상 속 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토대로 그들의 목소리를 시라는 형식을 빌려 담아냈다.

"아빠 미안/ 2킬로그램 조금 넘게, 너무 조그맣게 태어나서 미안/ 스무 살도 못 되게, 너무 조금 곁에 머물러서 미안/ 엄마 미안/ 밤에 학원 갈 때 휴대폰 충전 안 해놓고 걱정시켜 미안/ 이번에 배에서 돌아올 때도 일주일이나 연락 못 해서 미안."

또 다른 책 '사월의 편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학생 정지아 양이 직접 쓴 글을 엮은 것이다. 책을 좋아하던 정지아 양은 그동안 많은 편지와 시와 소설 습작노트를 남긴 채 어머니의 곁을 떠났고, 놀이하듯 편지를 주고받은 아이를 기억하며 어머니 지영희 씨가 책으로 펴냈다. 정지아 양이 남긴 글에는 책을 좋아하던 평범한 아이가 살다간 짧은 인생이, 그렇지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2017년 1월 9일, 세월호 참사 1000일째 되는 날. 서울 광화문에는 수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한목소리로 외쳤다. "진실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고.

이재영 기자 ljy0403@


금요일엔 돌아오렴
416 세월호 참사 기록위원회 작가 기록단/ 창비/ 1만2000원

창비,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증언집 '금요일엔 돌아오렴' 전자책 무료 배포

출판사 창비가 세월호 참사 1000일을 기리며 추모의 뜻으로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을 담은 책 '금요일엔 돌아오렴'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한다.

창비는 "2017년 1월 9일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세월호 유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금요일엔 돌아오렴: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전자책을 15일까지 무료로 배포한다"며 "세월호 참사 1000일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데 동참해 준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 이 책을 읽은 분들이 더 많아질수록 진실에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이 생긴다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디 더 많은 독자가 이 책을 내려받아 우리의 뜻을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며 "우리도 함께 이 야만의 시대를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책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그해 12월까지 단원고 희생 학생 가족들과 동고동락하며, 희생자 부모 13명을 인터뷰해 엮은 증언록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 힘없는 개인이 느끼는 국가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 사건 이후 대다수 가족이 시달리는 극심한 트라우마 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번에 무료로 배포되는 '금요일엔 돌아오렴' 전자책은 예스24, 알라딘 등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15일까지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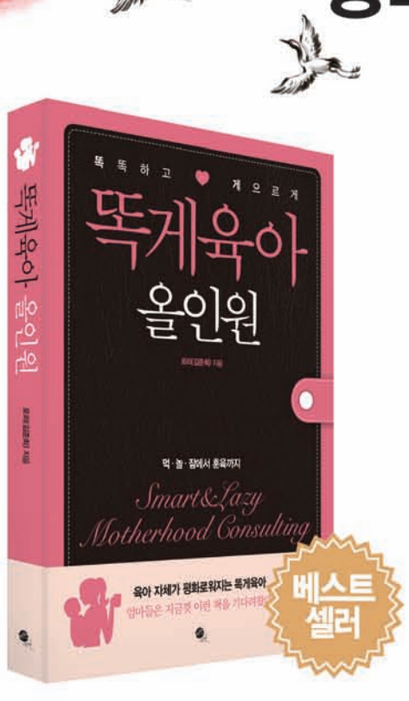

직장인의 한달 휴가
조민희 외 9명/ 엔자임/ 1만4800원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를 왜 회사 눈치를 봐가면서 써야 하는 겁니까?" 10명의 저자가 쓴 '직장인의 한달 휴가'는 회사로부터 한 달의 유급휴가를 받고 월급 걱정, 출근 부담, 업무 생각 없이 세계 곳곳으로 떠난 직장인들의 자유분방한 여행기다. 남미 코스타리카에서 북유럽까지, 스페인어 배우기, 윈드서핑 배우기, 영화 명소 찾아가기, 디자인 여행, 예술 여행, 가족 여행 등 여행지도 여행 목적도 제각각 다양하다. 이들은 총 60명 규모의 '엔자임헬스'라는 작지만 강한 회사의 직원들이다. 이 회사는 3년에 한 번씩 한 달의 유급휴가를 준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직장인이 스스로 보듬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한 달 동안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일과 미래에 대해 되짚어보는 시간이야말로 직장인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이 책이 다른 여행서와 다른 점은 행복한 여행의 기록 곳곳에 지치고 힘든 직장인들의 고단한 일상과 고민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말한다. "안식월이요? 다시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나의 중심을 채워주는 면역력, 3년형 예방 백신이죠."


달밤의 제주는 즐거워
차영민/ 새움/ 1만2000원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저자 차영민 작가가 쓴 책 '달밤의 제주는 즐거워'는 제주도에서 사는 작가가 직접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은 에피소드를 모은 에세이다. 최소한의 '밥벌이'와 '글쓰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시작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통해 저자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술을 따르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사를 풀어놓는 '진상 1호', 고물 자전거를 싸게 팔겠다며 매일같이 찾아오는 화가 아저씨, 본인의 오해로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도 사과 한 마디 없는 아저씨, 편의점에서 격정적인 입맞춤을 하는 커플 등 작가는 자신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녹여내 편의점에서 펼쳐지는 에피소드를 생생하게 그렸다. 마치 우리의 일상과 같은 모습들에 이 책을 읽다 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고, '제주도를 한 번 찾아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특히 제주도 바닷가 마을에서 펼쳐지는 편의점의 일상은 역동적이면서 따뜻하다. '사람 냄새, 바다 냄새' 가득한 '달밤의 제주는 즐거워' 속에 가득한 이야기는 누구라도 공감하며 읽을 수 있는 유쾌한 이야기다.

2017년도 무한과 함께
'행복한 육아, 행복한 일상'을 보내세요!!



똑 똑 하 고 ♥ 게 으 르 게
똑게육아 올인원
로리(김준희) 지음 | 324쪽 | 15,000원
먹·놀·잠에서 훈육까지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장,
나의 삶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행복 습관
아유 해피?
Are you happy?



강현순 지음 | 올컬러 | 13,500원

무한 www.muhan-book.co.kr | 원고 투고 muhanbook7@naver.com | 전화 (02)322-6144 | 팩스 02-325-6143

‘불티’ 난 배터리株… 中 견제가 ‘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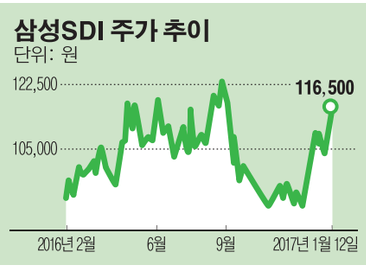
전기차 돌풍에 2차전지 수혜주로
삼성SDI·LG화학 등 주가 급등
中 정부 규제 등 대외리스크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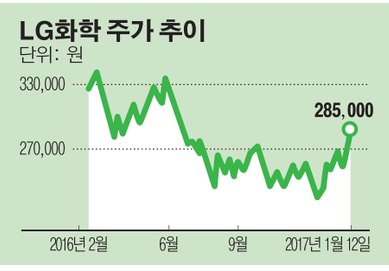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촉진 정책과 맞물려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내 증시의 수혜주 찾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에는 미국 전기차 전문업체 테슬라의 국내 진출과 제너럴 모터스(GM)의 전기차 ‘볼트 EV’의 국내 판매 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업계가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사업 민관협의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전기·자율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 규제완화, 연구개발(R&D) 및 인력 지원, 융합 플랫폼 구축, 시장 창출 등 방안을 제시했다.

증권업계는 전기차 활성화에 따른 1차 수혜주로 2차전지 관련 종목을 꼽았다. 2차전지는 안정성, 수명 등 전기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2차전지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삼성SDI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거론되고 있다.







삼성SDI는 지난달 7일 미국 전기차 제조사 루시드모터스와 차세대 배터리 공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작년 12월 6일 8만9900원이던 주가는 12일 현재 11만6500원을 기록해 한 달 만에 29.58% 급등했다.

최근 중국과 미국에 2차전지 공장을 늘린 LG화학 역시 지난달 1일 22만9500원이던 주가가 12일 현재 28만5000원으로 24.18% 급등했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엘앤에프(19.91%), 에코프로(14.27%), 코스모신소재(2.80%) 등 관련 소재 및 부품주가 상승했다.

긍정적 전망 속에서 2018년부터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는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일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전기버스 보조금 금지령을 내리자 삼성SDI(-2.75%)와 LG화학(-3.07%)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한 바 있다. 다행히 이달부터 전기버스 안전 기술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지만, 대외 리스크로 인한 주가 하락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가는 실물 경제의 호조 전망에 미리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급변할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며 “국내 증시에서 전기차에 대한 전망이 나쁘지 않다. 바이오 업종과 같이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움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전기차가 활성화되면서 기존 내연기관 기업들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등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삼기오토모티브의 경우 LG전자의 전기차 부품 파트너사로 선정되면서 올해부터 관련 부품을 중국 전기차 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소외 받던 부품업체 중에서도 전기차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전기차 시대에도 없어지지 않을 업체들이 다수 있다. 그중 실적 성장 가시성이 뚜렷한 업체들의 주가 상승 여력은 높을 것”이라며 디아이씨, 서연이화, 코프라, 아진산업 등을 꼽았다.

최두선 기자 sun@

불공정거래 포상 역대 최고
지난해, 1억2075만원 지급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와 조치에 도움을 준 신고자 5명에게 총 1억207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상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증거 등을 제시했다.

이번 포상총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13년 포상총액은 4140만 원에 불과했다. 평균 포상금액도 690만 원에서 올해 2415만 원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단일 건 중 최고 금액인 592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2013년 이후 4년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총 3억2525만 원(26건)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3건(50%, 1억180만 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19%, 4410만 원), 부정거래 6건(23%, 9325만 원)이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 원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양태가 지능화·복잡화되는 추세”라며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신고자 신분 등에 관해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고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잘나가는데…” “묻어둔건데…” 문닫는 소규모펀드 ‘탄식’

금융당국 강제정리 1년반만에
85% 펀드 청산… 126개 남아
수익률 월등·저조 펀드 더 부담
운용사, 정리연장 소식에 울상

설정 1년 지난 소규모펀드 중 1년 수익률 20% 이상인 펀드 (단위: %, 억원)

펀드명(약어)	펀드설정일	패밀리 순자산	펀드 수익률 (1년)	펀드 수익률 (3년)	패밀리 자금유출입 (1년)	패밀리 자금유출입 (3년)
프랭클린브라질[모](주식)	2008-03-04	26.38	74.92	-1.89	-15.83	-8.28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모](주식)	2008-05-19	13.69	69.37	-9.09	-5.82	1.88
교보악사파워브라질[모]1(주식)	2008-04-07	47.84	62.75	1.01	-6.59	-25.97
교보악사파워러시아[모]1(주식)	2008-04-07	27.81	48.30	-3.11	-2.10	-10.20
한국투자브릭스[모](주식)	2008-05-06	28.88	27.32	-20.43	21.71	13.83
신한BNPP포커스이머징원자재[모](주식)	2008-06-26	40.98	25.67	-18.58	20.74	7.80
KB유로컨버전스[모](주식)	2007-06-14	38.25	23.64	4.55	-9.60	-42.68
유리글로벌천연가스[모](파생결합증권-파생)	2009-10-09	18.99	23.04	-29.36	-2.56	-13.76

*조회 기준일: 2017.01.02 *한국펀드평가 유형분류에 따름 *추가개방형 공모펀드 *모펀드 기준, 개인연금펀드 제외

금융당국이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을 시행한 지 1년 반 만에 기존의 85%에 달하는 펀드들이 청산됐다. 아직 126개 펀드가 운용되고 있지만 내년까지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이 연장되면서 이마저도 대부분 자취를 감추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 같은 펀드 정리가 양적기준에 그치고 있는데다 자산운용사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13일 한국펀드평가 펀드스퀘어에 따르면 소규모펀드 100여 개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은 연초(2일) 기준 5.21%다. ‘프랭클린브라질[모](주식)’과 ‘미래에셋인덱스로브라질[모](주식)’, ‘교보악사파워브라질[모]1(주식)’ 등 최근 흥행한 브라질 펀드 세 개의 수익률은 각각 74.9%, 69.4%, 62.8%에 달했다.

‘한국투자브릭스[모](주식)’, ‘신한BNPP포커스이머징원자재[모](주식)’, ‘KB유로컨버전스[모](주식)’ 등은 20%가 넘는 연 수익률을 내고 있다. 10% 이상 수익률을 내는 펀드도 22개로 전체의 5분의 1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이 신흥국·특별자산을 기초로 한 펀드로 한동안 침체기를 겪다가 최근 들어 빛을 보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펀드 중 원본이 50억 원 미만인 펀드를 소규모펀드로 규정하고 지난해 2월부터 업계에 정리작업을 부추기고 있다. 당초 올 2월까지였던 모범규준 존속기한도 내년 2월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수익률이 뛰어나거나 반대로 너무 저조한 경우 펀드 청산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최근 펀드를 강제로 청산당한 한 투자자는 “2년 전 브라질 관련 펀드에 투자하고 내리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다가 최근에서야 반짝 빛을 보고 있었다”며 “이참에 투자금액을 더 늘릴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청산 결정이 내려져 허탈했다”고 말했다.

수익률이 저조한 펀드의 투자자들은 고민이 더 크다. 중국 펀드에 가입했던 한 투자자는 “일단 묻어두면 언젠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강제로 환매하게 되면서 손실이 현실화됐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는 공모형 펀드가 10개 이하이고 소규모펀드도 5개 이하인 소형 운용사에 대해 펀드 정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운용 규모가 아니라 수익구조, 운용실태 등을 펀드 정리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불건전기업 퇴출제’ 시행 한 달
장외시장 ‘투자자 보호’ 한 걸음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불건전기업’을 퇴출하기 위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고 있다.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실기업을 골라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13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투협은 K-OTC시장 운영 규정에서 ‘불건전기업의 포괄적 퇴출규정 명확화’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금투협은 원칙적으로 K-OTC 시장의 부정한 거래기업에 대해 △최종부도 △자본전액잠식 △주된 영업의 6개월 이상 정지 △타법인 피흡수합병 등 규정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 같은 포지티브 방식에서는 공시의무 위반, 법령위반 등 한정적 사유에 대해서만 퇴출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특히 실제로 폐업 등 행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 회사에 대해 적용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에 따른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코스닥·코넥스시장의 상장폐지 규정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금투협 관계자는 “기업이 영업을 안 한다는 확실한 증거와 근거가 있다면 금투협에서 직권으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통해 K-OTC에 참여하는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효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해외보다 퇴출이 안 되고 있다”며 “수익성이나 평판에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거래소나 K-OTC나 부실기업을 떠안고 있다가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기존 한정적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퇴출 사유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충분한 규모를 갖추고 등록과 퇴출이 잦은 장내시장과 달리 138개 기업만이 참가하는 장외시장의 경우 퇴출 결정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미 대선후보 힐러리 “신재생에너지 비중 33% 확대”
빌 게이츠 등 ‘청정에너지’에 200억 달러 투자
네덜란드 2025년부터 전기차만 판매 허용 추진

봄의 미세먼지, 여름의 누진세 등 생활밀착형 문제부터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까지 해결해줄 ‘에너지 혁명’이 온다!

에너지혁명 2030



토니 세바 지음 | 박영숙 옮김 | 15,000원

한국인이 된 일본인이 말하는
“독도는 왜 한국 땅인가?”

말만으로는 나라의 땅을 지킬 수 없다.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증명하는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독도, 1500년의 역사



호사카 유지 지음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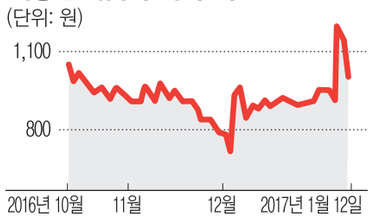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미래부 '제4이통' 재검토… 세종텔레콤 "재도전"



세종텔레콤 주가 추이
(단위: 원)



작년까지 7차례 진행에도 허가안 내…심사기준 완화 전망
"컨소시엄 구성·단독참여 등 구체적 사항은 아직 결정 안해"

세종텔레콤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3일 세종텔레콤 관계자는 "작년에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심사에서 탈락했을 때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자 재선정을 추진할 경우 다시 도전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연내 제4이동통신에 대한 허가 수요 발생시 사업자 재선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10년부터 통신사 간 가격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제4이통사 선정을 위한 심사를 일곱 차례 진행해 왔지만, 아무도 정부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기간통신사업자의 현행 허가제도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세종텔레콤은 1997년부터 국제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등 유선전화 서비스와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온 회사다. 지난해 7차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뛰어들었지만, 미래부로부터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했으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텔레콤은 지난해 미래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심사 발표 후 "미래창조과학부가 앞으로 신규 사업자 허가 정책을 유지할 경우 이번 심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보완하고 재정비해 사업권 획득에 재도전하겠다"며 "국내외 투자자 등과 협력, 기술제휴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미래부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없다"며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다시 추진될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할지, 단독으로 참여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선을 앞둔 가운데 정계에서 제4이동통신에 대한 대선 정책을 추진, 관련 논의가 또 다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콤텍시스템과 기산텔레콤, 모다정보통신, 서화정보통신 등 관련주들이 주목받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피씨엘, 美 헬스케어 설명회서 '암 진단키트' 협력 성과

김소연 대표 'SG Cap 기술' 소개… 볼리션·SFGF와 사업제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다중체외진단 전문기업 피씨엘이 미국에서 열린 헬스케어 투자 설명회에 참석, 암 진단키트 개발 협력 계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피씨엘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초청돼 회사의 기술 및 제품을 소개했다고 13일 밝혔다.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매년 1월 우수한 제약·바이오 회사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새로운 기술과 연구 결과 등을 소개하고, 헬스케어 투자자 및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와 1:1 미팅도 주선하는 헬스케어 분야 중 세계 최대 규모로 열리는 투자 설명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김소연 대표가 직접 '3차원 SG Cap 기술'의 우수성 및 해당 기술기반 다중진단 혈액선별 제품, 인플루엔자 및 암 진단용 신속진단(POCT) 제품, 'SG Cap'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서비스에 관해 설명했다.

피씨엘은 이번 콘퍼런스 기간 미국 등 투자기관 및 바이오테크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와 협력 등의 성과를 거뒀다. 대장암 신규 마커를 통해 대장암 조기 진단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볼리션(Volition RX Limited)과 암 진단키트 개발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SFGF(Stanford Functional Genomics Facility)와는 SG Cap 플랫폼 서비스 관련 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논의를 마무리했다.


김소연 피씨엘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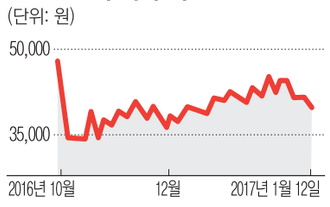
김소연 피씨엘 대표는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에서 회사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할 기회를 가지게 돼 기쁘고, 많은 참여기업 관계자로부터 기술에 대한 호평과 관심을 받았다"며 "행사를 통해 제품의 파이프라인 확대 및 해외사업 확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인크로스, NHN엔터와 맞손 동영상 광고 데이터 제휴 계약

자사 애드 네트워크 '다윈'에 음악·웹툰 등 빅데이터 연동 효율 높은 타깃팅 상품 출시

인크로스 주가 추이
(단위: 원)



디지털 광고 전문기업 인크로스는 동영상 광고 플랫폼 '다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NHN엔터테인먼트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크로스는 2013년 동영상 애드 네트워크 '다윈(Dawin)'을 출시한 이후 동영상 광고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왔으며, 국내 주요 포털 및 동영상 매체들과 제휴하면서 동영상 애드 네트워크 1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게임과 음원, 웹툰 등 다양한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종합 IT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로, 디지털 광고사업의 근간인 데이터 관리 플랫폼(DMP)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크로스는 이번 NHN엔터테인먼트와의 데이터 제휴 계약을 통해 '다윈'에 NHN엔터테인먼트의 DMP를 연동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동영상 타깃팅 광고상품을 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영상 애드 네트워크에 DMP를 연동한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디지털 동영상 광고에 타깃팅 기법을 적용하면 광고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유저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인크로스는 NHN엔터테인먼트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DMP를 다윈 플랫폼과 접목시켜 동영상 광고의 도달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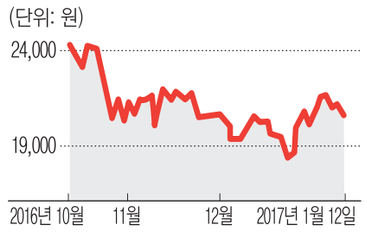
이재원 인크로스 대표는 "이번 제휴를 통해 더욱 많은 유저에게 명확한 광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윈 시스템을 고도화해 성별, 연령 타깃팅 외에 유저 성향 타깃팅까지 구현하는 새로운 동영상 광고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바디텍메드 '독감진단 검사키트' 日판매

'트리아스 플루 A&B' 제품 검체 채취 3~11분만에 확진

바디텍메드 주가 추이
(단위: 원)



병원용 현장진단 전문기업 바디텍메드가 독감진단 제품을 일본 전역에 판매한다.

바디텍메드는 일본 아크레이사를 통해 독감진단 제품 '트리아스 플루 A&B'(일본 출시명 스팟켐 플로라 Flu A&B)를 일본 전역에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바디텍메드의 고감도 광학기술이 접목된 이 검사 키트는 계절성 독감 검사 키트로서 인플루엔자 A형과 B형을 선별적으로 진단한다.

독감 진단 시장은 전 세계 기준 2조 원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해마다 6%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현장 진단 검사로만 약 100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센카-데이켄사의 퀵나비 플루(Flu) 제품이 약 40%를 차지하는 등 일본 제품이 주류를 이루는 시장이다.

바디텍메드의 독감 진단 제품은 비강액의 검체 채취 후 현장에서 3~11분이면 독감 여부를 확진할 수 있다. 발병 초기에 판정하기 곤란했던 바이러스 감염을 신속하고 높은 검출 성능으로 찾아낼 수 있다.

이 제품은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 허가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 바디텍메드는 이번 일본 전역에 제품을 출시하면서 전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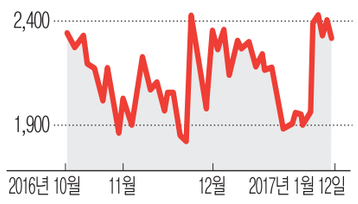
회사 관계자는 "한국 시장에도 출시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외자 주요 키트를 대체하며 눈에 띄는 매출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며 "기존 독감진단 제품 시장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제약바이오 사업 진출 성지건설 "신약개발 속도…올해 매출 발생"

지난달 의료기기 아이비팜 인수
신약개발 연구소 확보·임상 추진
中 의존도 낮추고 국내유통 확대

성지건설 주가 추이
(단위: 원)



성지건설이 올해 본격적인 제약바이오 사업에 나선다. 지난달 의료기기 수출기업 아이비팜을 흡수 합병해 사업 기반을 마련한 성지건설은 올해 안으로 신약개발 연구소를 확보하고 임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3일 이용승 성지건설 대표는 "지난해가 제약바이오 사업 진출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면 올해는 매출 발생 등 실질적인 성과가 드러날 것"이라며 "합병을 완료한 아이비팜을 기반으로 제약바이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지건설은 우선 아이비팜의 영업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매출의 대부분이 중국 수출이었으나 올해는 국내 유통을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인원을 확충 중에 있다.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외교 갈등이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자는 차원에서다.

아이비팜과의 합병은 성지건설의 실적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성지건설이 아이비팜을 흡수 합병함에 따라 실적이 재무제표에 반영돼 매출 및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성지건설은 아이비팜은 중국 진출 파트너인 북경인터림스와 연구 개발 및 제품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해 중국 시장 진출 성과가 이르면 올해 1분기 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단심실증' 치료제 개발 메지온 美서 임상3상

메지온은 폰탄수술(Fontan Operation)을 받은 단심실증(Single Ventricle Heart Disease) 환자 치료제의 임상 3상 투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메지온은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첫 환자를 등록한 후 미국 내 17개 병원에서 환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100명가량 환자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병원은 총 30개로 국가·병원별로 시험 개시 시점에 차이가 있다.

폰탄수술이란 낮은 압력의 정맥피가 폐동맥으로 흘러들어가게 해 주는 우심방-폐동맥 우회술이다. 폰탄수술을 받은 단심실증은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희귀질환으로 등록됐다.

작년 12월에는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허가를 받았으며 아산병원이 지난해 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서울대병원은 이달 중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약 승인을 위해서는 피보탈(Pivotal) 임상 3상 자료 외에도 1년 동안 약물을 투여하는 롱 텀 세이프티(Long-term safety) 임상 자료도 미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본 임상 3상 특정임상계획평가(SPA)의 경우 6개월에 대한 피보탈 3상 임상 자료만을 토대로 검토, 승인할 수 있도록 미 FDA와 이례적으로 합의했다.

또한 희귀 의약품 특성상 신약허가신청(NDA) 제출 시 신속검토제(Fast Track)가 적용돼 이른 시일 안에 상용화도 가능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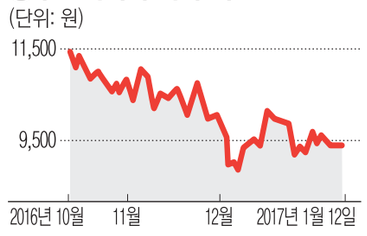
메지온 관계자는 "희귀 의약품 치료제는 환자 수가 적다는 특성상 임상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환자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현재의 진행 속도와 각 병원의 개시 시점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임상 3상에 필요한 환자 400명을 모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룽투코리아 '열혈강호 모바일' 중화권 공략

온라인 그래픽 사용권 확보
MMORPG 장르 개발 예정

룽투코리아 주가 추이
(단위: 원)



룽투코리아는 엠게임과 PC 온라인 기반의 '열혈강호' 모바일 게임 공동 개발에 합의해 '열혈강호 온라인'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룽투코리아는 엠게임의 대표적인 온라인게임 '열혈강호 온라인'의 노하우와 서비스 경험이 담긴 모바일 게임을 공동 개발한다. 특히 중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 시장에 적극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열혈강호 온라인'은 인기 무협만화 '열혈강호'를 기반으로 개발된 코믹 무협 온라인 게임으로 귀엽고 깜찍한 5등신 캐릭터와 화려한 무공, 원작을 코믹하게 재해석한 게임이다. 2004년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으로 자리매김했다.

룽투코리아는 중국에서 2005년 서비스돼 최고 동시 접속자수 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지금까지도 인기만화 '열혈강호'와 함께 중국 현지인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지식재산권(IP)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열혈강호 온라인' 고유의 그래픽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로 개발할 예정이다.

룽투코리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온라인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IP 기반의 모바일 라인업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룽투코리아는 '열혈강호'에 대한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서비스권을 갖고 있는 '타이곤 모바일'을 인수함으로써 열혈강호 모바일 게임 라인업만 12종을 확보해 둔 상황이다.

최성원 룽투코리아 사업총괄 이사는 "열혈강호 온라인은 인기만화 IP를 기반으로 PC 온라인게임, 웹게임 등으로 개발해 성공한 대표적인 트랜스미디어 성공사례"라며 "룽투그룹의 개발 및 서비스 노하우를 더해 모바일 게임으로도 중화권 서비스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안에서, 반도체 기술에 집중했다
밖에서,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인류가 누리고 있는 IT 디바이스의 새로운 변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없이 진화하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밖을 만들다

SK 하이닉스

